

한국 농촌 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⑰

근교마을의 사회경제 변화

대전시 기성동 증촌마을 사례

정 명 채(연구위원)

오 내 원(책임연구원)

최 경 환(책임연구원)

박 대 식(책임연구원)

이 상 문(책임연구원)

연구담당자	담당분야
정명채	연구총괄, 생활환경의 변화
오내원	경제활동구조의 변화
최경환	마을개황,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박대식	사회구조의 변화
이상문	공간구조의 변화

머 리 말

당연구원은 한국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농촌사회의 변화 과정과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1985년부터 「한국 농촌사회경제의 장기 변화와 발전(1985-2001)」 조사연구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연구는 충청남도의 도시근교와 평야, 중간 및 산간의 4개 마을을 대상으로 가구와 인구, 경제활동,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생활환경과 공간구조, 의식, 가치관 등을 미시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사례연구이다.

이 보고서는 사례마을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및 생활공간구조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마을별 보고서의 하나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마을을 사회의 한 단위로 설정하고 경제·사회·정치·문화적 측면에서 마을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메카니즘을 밝히고자 시도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본연구의 연구가설이 제시하는 농촌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연구진이 마을 단위로 1985년도부터 1994년까지 조사한 기초자료들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10년간의 변화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과 이의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종국적으로 한국 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함을 밝혀 둔다.

4개 마을의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종합보고서는 이미 지난 1995년 8월에 발간하였으며, 이 보고서는 도시근교, 평야, 중간 및 산간마을로 나누어 10년간의 변화를 미시적으로 다룬 4권의 보고서 중 근교마을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자료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 농촌이 걸어 온 변화의 발자취와 장래의 발전 방향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연구에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한 조사에 매번 성의를 다하여 협조해 주신 사례마을 주민들과 연구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96.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박 상 우

빈

면

목 차

제1장 마을 개황 및 여건 변화

1. 마을 개황	1
2. 주요 변화의 개요	3

제2장 인구 및 가족구조

1. 가 구	5
2. 인구	12
3. 가족구조	17

제3장 경제활동구조의 변화

1. 지역 경제 여건의 변화	26
2. 마을 주민의 취업구조	28
3. 농가 경영주의 특성과 영농후계자	29
4. 경지의 소유와 이용	30
5. 농업노동력 변화와 농업기계화	34
6. 농업경영실태	40
7. 비농업경제활동	46

제4장 사회구조의 변화

1. 사회집단의 변화	48
2. 사회망과 지도력구조의 변화	59
3. 종교 및 세시풍속의 변화	61

제5장 생활환경 및 공간구조의 변화

1. 생활환경의 변화	64
2. 주거·문화공간	69
3. 생산공간	96

표 목 차

제2장

표 2- 1	연도별 가구수 변화, 1985-94	6
표 2- 2	전·출입 가구 가구주의 직업 분포, 1985-94	7
표 2- 3	전출가구의 현황, 1985-94	9
표 2- 4	전입가구의 현황, 1985-94	9
표 2- 5	가구의 연도별 변화	10
표 2- 6	가구구성의 변화, 1985-94	10
표 2- 7	연령별·연도별 인구	13
표 2- 8	인구증감 요인별 변화	15
표 2- 9	연도별 전출자의 연령분포(단신 및 가구 전출자 포함)	16
표 2-10	연도별 전입자의 연령분포(단신 및 가구 전입자 포함)	16
표 2-11	가족유형	18
표 2-12	가족유형의 변화, 1985/1994	18
표 2-13	독신가구의 경제·사회적 특성(1994년말 현재)	22
표 2-14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가장 현황(1994년말 현재)	23
표 2-15	가구원수별 가구수	24
표 2-16	출타자의 연령별 구성	24
표 2-17	출타 목적별 출타자 분포	25
표 2-18	가족의 분산 정도	25

제3장

표 3- 1	증촌마을의 지역경제 여건과 변화	27
표 3- 2	15세 이상 주민의 취업실태 변화	28
표 3- 3	농가 경영주의 연령 분포	29
표 3- 4	마을 총경지면적의 변화	31
표 3- 5	경작규모계층의 변동	33
표 3- 6	농지 임차료 수준	34

표 3- 7 영농종사자수	35
표 3- 8 영농종사자 증감 요인	36
표 3- 9 농기계 보유 및 수도작 기계화 정도	37
표 3-10 노동력 고용과 품앗이	38
표 3-11 농업임료금의 변화	39
표 3-12 작목별 식부면적	40
표 3-13 상업화율의 변화	42
표 3-14 농산물 판매액별 농가호수	42
표 3-15 농업수입과 소득	44
표 3-16 경영주 취업상태·연령별 농업소득	44
표 3-17 A농가의 경영성과	44
표 3-18 비농업 취업 직종	46

제4장

표 4- 1 증촌마을의 사회집단 현황	49
표 4- 2 증촌마을의 또래집단적 喪事契의 현황	55
표 4- 3 증촌마을의 친목 관련 이익집단의 현황	57
표 4- 4 종교별 가구수의 변화	61

제5장

표 5- 1 증촌마을의 취학생 변화	65
표 5- 2 의료보험 종류별 가입 현황	67
표 5- 3 지역의료보험료 부담 현황	67
표 5- 4 마을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유형	69
표 5- 5 마을의 지형 및 공간분절 특성	70
표 5- 6 마을 공간 분절단위의 특성과 변화	70
표 5- 7 마을 주거공간의 주요 변화	72
표 5- 8 가구수, 주택수, 주택형태의 변화	75
표 5- 9 주택 지붕 형태의 변화	75
표 5-10 주택신축 상황, 증촌, 1994	76
표 5-11 주택 증개축 및 주택구입 상황, 증촌, 1994	77
표 5-12 주택 신·개축 및 공·폐가 증감 상황, 증촌, 1988-94	77

표 5-13	사례 주택의 공간구성 변화, 1988/1994	83
표 5-14	난방연료의 변화	90
표 5-15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설치, 1988-94	90
표 5-16	생활·문화수단 및 편의시설의 변화	90
표 5-17	마을 공동시설의 변화	91
표 5-18	마을 도로체계의 변화	92
표 5-19	종교·문화공간의 변화	93
표 5-20	농경지의 분포와 경작 활동의 변화	96

그림 목 차

제 2장

그림 2- 1	인구구조의 변화, 1985/1994	13
그림 2- 2	대가족 → 핵가족의 사례(8번 농가의 예)	20
그림 2- 3	핵가족 → 대가족의 사례(36번 가구의 예)	21

제 4장

그림 4- 1	증촌마을의 의사교환망	60
그림 4- 2	증촌마을의 지도력구조	60

제 5장

그림 5- 1	마을의 분절단위와 새로운 시설의 입지, 증촌, 1994	73
그림 5- 2	주택배치도, 증촌, 1988	79
그림 5- 3	주택배치도, 증촌, 1994	80
그림 5- 4	주택 신개축 및 공폐가 현황, 증촌, 1994	81
그림 5- 5	폐가된 KJH씨댁, 증촌, 1994	84
그림 5- 6	구옥 철거 후 신축된 YBR씨댁, 증촌, 1994	85
그림 5- 7	바깥채 개축으로 부분 개량된 YBU씨댁, 증촌, 1994	86
그림 5- 8	생활기능이 더욱 강조된 YBD씨댁, 증촌, 1994	87
그림 5- 9	마을 공동이용 시설 및 종교·문화 공간, 증촌, 1994	94
그림 5-10	신축된 마을회관의 평면도, 증촌, 1994	95
그림 5-11	농경지 분포 및 토지이용, 증촌, 1994	98

빈 면

제 1 장

마을 개황 및 여건 변화

1. 마을 개황

1.1. 지리적 여건

이 마을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대전광역시 서구 기성동 18통(증촌동)에 해당한다. 대전시 외곽의 남서부에 위치하여 논산군 벌곡면과 접하고 있다.

이 마을은 앞뒤로 높은 산이 있고, 마을 앞을 지나는 벌곡천 주위로 경지가 형성되고 있으나 지형상으로는 준산간지역에 해당한다. 벌곡천과 마을 사이의 비교적 평탄한 경지(증촌들)와 마을 양쪽의 계곡에 있는 계단식 논 및 산기슭의 밭이 경지의 전부인데 마을 전체적으로 밭은 매우 적으며 논면적도 넓은 편은 못된다. 더욱이 마을 경지 중의 일부는 종종 소유이기 때문에 호당 경지소유면적은 매우 협소한 편이다. 벌곡천에 설치된 보와 관정을 통해 농업용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가뭄 걱정을 별로 하지 않는 편이다.

이 마을은 양쪽의 계곡으로부터 발원하는 두 개의 소하천들을 경계로 하여 안대, 바깥대 및 방아재로 구분하고 행정구역상의 반 편성도 이를 기준으로 3반으로 편성되었다. 그렇지만 이들 하천의 폭이 3~5m 정도에 불과하여 마을이 지리적으로 격리된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자연부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마을은 지리적으로 대전 근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교농업이 발달하지 못했다. 과거에 몇사람이 비닐하우스 농사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 결과 아

직까지 이 마을의 주작목은 수도작이며 발작물은 자가용 양념채소류를 재배하는 정도로서 근교 농업의 특성을 찾아 볼 수 없는 상태였다.

1.2. 마을의 유래

증촌마을에 처음 이주한 庾氏¹ 조상은 현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炳字의 14대조인 雄字 先祖라고 한다. 그가 임진왜란을 피해 충청북도 옥천에서 이곳으로 이주해와 정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마을의 역사는 400년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 무송 유씨가는 이웃마을 ‘오리’(행정구역상으로는 대전시 서구 기성동 17통)와 이 마을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鎭琴派를 이루어 宗中을 유지해 오고 있다.

증촌마을은 대한제국 시대에는 충청남도 진잠군 下南面에 속했다. 그러다가 1914년 일제에 의한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충청남도 대전군 杞城面 평촌리로 바뀌었다. 이 후 1935년 대전읍이 대전부로 승격되면서 대전부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대덕군으로 개편되었고, 증촌마을의 행정구역은 대덕군 기성면 평촌리 증촌부락으로 바뀌었다. 1948년에는 다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증촌마을은 평촌3리라는 행정리로 분리되었다. 그러던 것이 1989년 1월 1일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마을의 생활중심지인 대전직할시로 편입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대전직할시가 대전광역시로 바뀌었다.

1.3. 교통 및 생활권

마을에서 1.3km의 거리에 대전시내와 벌곡간을 연결하는 639번 지방도가 포장되어 도로사정은 양호하다.² 대전-벌곡간 시내버스(일반 및 좌석)가 수시로 운행되고 있으며 대전시내에서 마을안까지 하루에 6회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교통은 매우 편리하다. 호남선 철도도 마을 옆을 통과하고 있어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가까운 열차역은 흑석역(동사무소 소재지)과 가수원역이다. 한편 호남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서대전 IC를 경유해야 한다. 인근 지역인 벌곡면 소재지에서 직행버스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자동차가 진입할 수는 없다.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대전시로 편입되기 전부터 대전 생활권에 속했다. 동

¹ 전국적으로도 수 천가구 정도에 불과할 정도의 稀姓임.

² 본 조사의 시점인 1985년에 도로포장이 완료되었다.

사무소 소재지에는 동사무소 외에 보건지소와 농협 등 행정 관련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대전시로 편입된 뒤로는 대전시내에서 생활과 관련한 대부분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³

초등학교는 마을에서 약 1km 정도의 거리(평촌1리)에 있으며, 중학교는 흑석동(동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기성중학교가 있다. 학군은 대전시 서구에 속해 서구 관내의 고교를 다닐 수 있는데, 인근 유성구 학군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있다.

2. 주요 변화의 개요

이 마을의 가장 큰 변화는 1989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덕군 전체가 대전시로 편입된 것이다. 대전시로의 편입은 주소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사고방식 및 생활 패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물론 대중교통이 편리해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던 이 마을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도시로 되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대부분 농정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는 도시정책 차원에서 추진되게 되었다.⁴ 또 주민들도 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보다는 비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기를 바라며 오히려 대단위 주거지 등 비농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기대감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크다.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당연히 학군도 변경되었다. 과거에는 대덕군 학군에 해당하던 것이 이제는 대전시 서구 학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와 같이 대전시내 중·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일부 세대가 대전으로 전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어졌다.

다른 변화로는 1986-87에 일부 경지가 경지정리된 것이다. 그러나 그 면적이 작아 마을의 농업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지는 못했다.

다음에 가구 및 인구면에서의 변화로는 단순히 주거목적을 위해 전입하는 가구가 최

³ 과거에는 기성면(흑석리) 5일장이나, 벌곡면 및 두마면의 5일장을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대전시로 편입되어 시내와의 교통이 좋아진 후로는 전적으로 대전시내를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⁴ 주민들이 당장 느낄 수 있는 변화중의 하나로는 대전시로 편입되면서부터는 농촌주택개량지원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근 들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주거비가 시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출퇴근 시간도 시내까지 버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되어 교통도 편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들 전입자들 중에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취학 및 취업을 위해 전출하였다가 마을 근처에서 직장을 잡고 마을 본가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다.⁵

한편 마을 주변의 변화로는 대전-벌곡간 도로변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장들이 속속 분산 입지하면서 마을사람들도 이들 공장에서 취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내에서의 부업도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거리가 마땅치 않아 주민들의 소일거리에 불과하고 소득증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설면에서의 변화로는 노인정과 제각(무송 유씨)의 신축을 들 수 있다. 노인정은 과거 마을회관 자리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2층으로 지었는데 1층에는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이 별도로 있고 주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2층은 회의실로 꾸며졌다. 이전에 마을회관에 붙어 있던 마을가게는 가게운영자가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자리를 옮겨 개설·운영하고 있다.

또한 과거부터 있던 제각을 그대로 둔채로 1991년에 약 2억원을 들여 제각을 크게 지었다. 건축비용은 마을내의 중증재산(대지 매각 등)의 처분을 통해 조달하였다.

주민 생활면의 변화로는 먼저 각종 가전제품의 사용이 보편화되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외관은 전통적인 농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웬만한 전기제품의 사용은 도시가구와 별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즉 텔레비전과 전화, 냉장고 및 가스레인지 등의 사용은 일반화되었고 난방시설도 연탄보일러나 기름보일러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최근들어 주택의 신·개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 신축의 경우 대부분은 구옥을 헐고 그 자리에 다시 짓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자동차 보유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을입구와 노인정 앞의 공터를 공용주차장과 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⁵ 현재 이 마을에서 전주로 출퇴근하는 교사가 1명 있다.

제 2 장

인구 및 가족구조

1. 가 구

1.1. 총가구수의 변화

증촌마을의 형성은 400년 이상 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지만 이 마을의 가구수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1945년경부터이다. 1945년의 가구수는 58호였으며 52호가 무송 유씨가이고 나머지 6호는 꺾씨, 권씨, 김씨, 박씨 등이었다. 이 후 1950년 중반까지는 안정적이던 가구수가 1950년대 후반부터 차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62년에는 66호까지 달하였다. 이를 정점으로 하여 1970년대말까지 가구수는 감소경향을 보이다가 1980년대 들어서면서 가구수의 변동이 거의 없어 본조사의 출발점인 1985년도의 총가구수는 58호였다.⁶

본조사시점과 40여년 전의 가구수가 58호로 동일한데 이는 우연의 일치이며, 실제로는 40여년간 많은 변동이 있었다. 1950년대에는 전입가구가 전출가구보다 많아 마을의 가구수가 증가하여 1960년대초에는 가장 많은 가구수를 나타냈다. 그 이후 매년 약간의 증감이 있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1980년대초까지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그 후 본조사의 출발점인 1985년까지는 가구수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⁶ 1945년부터 1984년까지의 가구수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사회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11)」, M15-11(1989. 12), pp.9-11을 요약·정리하였음.

표 2-1 연도별 가구수 변화, 1985-94

단위: 호

연 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계
총가구수		58	58	59	56	55	55	55	54	51	50	
증가	전입 분가	-	1	2	-	2	1	1	2	-	2	11
감소	전출 소멸	-	1	1	3	2 1	1	1	3	3	2 1	17 2

여기에서는 본조사의 기간인 1985년부터 1994년까지의 9년간의 가구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동안 총가구수는 1985년의 58호에서 1994년의 50호로 8호가 감소하였다. 이것은 가구전출이 매년 1~3호씩 발생하여 9년 동안 17호가 전출하고 2호가 소멸하여 전체적으로는 19호가 감소한 반면에 매년 1~2호의 가구가 전입하여 모두 11호가 전입한 결과이다. 따라서 총 30 가구의 전출입이 발생한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매년 약 1호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1985년 조사시작 당시 거주하던 58호 중에서 현재까지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44호이며 12호가 전출하고 2호는 소멸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에 전입한 11호 중에서 6호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5호는 1~4년만에 다시 전출하였다. 이렇게 단 기간에 재전출한 가구들은 모두 거주목적으로 이 마을에 전입하였지만 정착에 실패했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곧바로 전출한 가구들이다.

1.2. 전·출입 가구 분석

전출입가구의 가구주들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전출가구의 경우 농업종사자가 7명, 비농업종사자가 6명이며 노령자 등 기타가구가 4호이다. 반면에 11호의 전입가구 중에서 농업종사자는 2호에 불과하고 나머지 9호는 비농업종사자 및 기타 가구들이다. 즉 전입가구들은 대부분 영농 목적보다는 거주 목적으로 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농업종사가구 중 1호(61번 가구)는 임차농인데 아들이 비농업(건축)분야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이 가구도 영농보다는 거주목적이 더 강했다. 그나마 이 가구는 전입 2년만에 다시 대전시내로 전출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이 마을은 대전시내와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기 때문에 농업생산활동보

표 2-2 전·출입 가구 가구주의 직업 분포, 1985-94

단위: 호

직업구분		전	출
농업	자작 및 소작농	6	1
	소작농	1	1
농업노동 제조·가공업 서비스업 기타		-	-
		6	6
		-	
		4 (2)	3
계		17 (19)	11

다는 거주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989년 1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전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판단된다.

전출가구 12호의 가구주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5명, 여자가 7명이다. 여성가구주란 남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인데, 남자 가구주 중에서도 3호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가구로서 전체 전출가구 12호 중 10호가 가구주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이다. 이들 중 2호는 재혼(남자1, 여자 1)을 계기로 타지로 전출하였으며, 6호는 고령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 자녀에게 위탁하기 위해 전출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거주를 목적으로 전입하였다가 전출한 가구(62번 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전출가구들은 「부부 + 자녀」로 구성되는 정상적인 가구가 아닌 것이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남자 가장의 부재가 가구의 전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985-94 기간의 전출가구들의 현황은 <표 2-3>과 같다.

한편 전입가구 11호를 살펴보면, 먼저 이 마을 출신으로 귀향(U-turn)한 가구가 4호 있다. <표 2-2>에서 전입가구 중 자작농가 1호(68번 가구)는 1994년에 이 마을로 전입한 가구인데 30여년전까지는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짓다가 전출했던 가구이다. 이 가구가 귀향하게 된 것은 이 마을에서 여성노인 단독가구로서 농지임대수입으로 생활하던 가구(45번 가구)와 형제간(형수)이었는데 1994년에 45번 가구가 사망하여 그의 집과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인의 영농활동은 1995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주로 본인이 영농활동에 종사하고 부인은 대전시내의 본가를 수시로 왕래하고 있다. 이외에 휴양을 목적으로 귀향한 가구가 1호(67번 가구), 주거목적으로 귀향한 가구가 1호(70번 가

표 2-3 전출가구의 현황, 1985-94

가구 번호	전출 연도	가구주연령 (전출당시)	전 출 가족수	전출전 직 업	전출후 직 업	전출지	전 출 목 적
26	1986	32	4명	농 업	노 동	대 전	노동에 의한 생계유지
52	1987	46(여)	4	비농업노동	주 부	수 원	재혼에 의한 전가구 전출
6	1988	55	2	농 업	상 업	서 울	재혼과 동시에 서울로 이주 (농지는 판매)
60	1988	73	1	무 직	무 직	논산군	본가로 귀가(대전거주 자녀와)
48	1988	59(여)	1	농 업	무 직	대 전	대전거주 자녀와 합류(농지 임대)
13	1989	78	1	무 직	무 직	제 천	아들집으로
59	1989	40	4	제화공	제화공	대 전	단순거주지 이동(자녀교육)
61	1990	72	6	무 직	무 직	대 전	자식의탁(딸집으로)
49	1991	84(여)	2	무 직	무 직	원정리	자식의탁(딸집으로)
19	1992	57	1	농 업	경비원	벌곡면	취업
20	1992	51	5	농업+노동	노 동	대 전	자녀교육
33	1992	60(여)	5	무 직	무 직	대 전	자식의탁
51	1993	79(여)	1	무 직	무 직	대 전	자식의탁(아들집으로)
62	1993	44	7	제화공	제화공	대 전	단순거주지 이동
65	1993	58(여)	1	봉제공	봉제공	대 전	단순거주지 이동
22	1994	73	1	농 업	무 직	서 울	자식의탁(부인사망후)
55	1994	49(여)	4	농 업	식당경영	대 전	가구주사망후 가구원 전출

구가 있다. 또한 1985년 조사 시작 당시에는 이 마을에서 영농 및 축산을 하였으나 1989년 대전시내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출하였다가 1994년에 정육점을 처분하고 다시 이 마을로 전입한 가구가 1호(46번 가구) 있다. 대전시내로 거주지를 옮겼어도 가구주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 마을에서 축산업(한우 및 돼지 사육)을 하고 본가는 모친이 관리하였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귀향이라고는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⁷ 그렇지만 1994년부터 부부가 이 마을에 상주하며 본격적으로 축산업에만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향으로 볼 수 있다.⁸ 1985-94 기간 전입한 가구들의 현황은 <표 2-4>와 같다.

1.3. 가구의 성격 변화

지금까지 가구의 전출입 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가구 전출입으로 인해 마

⁷ 생활은 대부분 대전시내의 본가를 왕래하였으나, 때로는 축사에 딸린 관리사에서 머물기도 하였다.

⁸ 이 조사에서는 1994년부터 이 가구가 모친(46번 가구)을 승계하여 가계를 이어 나가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모친은 1994년에 차남(70번 가구)이 전입하면서 함께 동거하고 있다.

표 2-4 전입가구의 현황, 1985-94

가구 번호	전입 연도	가구주 연령	전입 가족수	전입전 거주지	전입전 직업	전입후 직업	전입 목적
59	1986	37	4	기성면 평촌1리	농업노동	회사원 (제화사)	거주목적('89 전출)
60	1987	69	1	논산군 두마면	무직	무직	정신수양('88 전출)
61	1987	69	5	기성면 흑석리	무직	농업	유씨 종답 경작('90 전출)
62	1989	41	7	대전	제화공	제화공	거주목적('93 전출)
63	1989	35	5	구리시	석공	석공	거주목적(처가마을)
64	1990	33	4	대전	목공	목공	거주목적
65	1991	56	1	대전	봉제공	봉제공	거주목적('93 전출)
66	1992	38	1	대전	교사	교사	예술활동 작업장 활용
67	1992	69	2	대전	경비원	무직	휴양(고향)
68	1994	55	2	대전	점원	농업	영농(45번 가계 승계)
70	1994	49	4	대전	노동	비농업	거주목적(귀향), 모친 부양

표 2-5 가구의 연도별 변화

단위: 호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85/94
농가	48	46	46	42	42	41	39	37	37	38	-10
주거	3	3	2	3	2	2	3	3	3	2	-1
농업노동자	2	2	1	-	-	1	1	1	-	-	-2
비농업취업가구	2	2	5	6	7	8	9	8	7	6	4
기타	3	5	5	5	4	3	3	5	4	4	1
총 가구 수	58	58	59	56	55	55	55	54	51	50	-8

을의 가구 구성 내용도 많이 달라졌다. 그동안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은 농가였다<표 2-5>. 1994년 현재 농가는 38호로서 9년전에 비해 20% 이상(10호)이나 감소하였다. 반면에 비농업취업가구는 4호가 증가하였다. 농지임대가구나 농업노동자는 조사시점에도 몇 가구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농업노동으로 소득을 확보하던 농업노동자가구들은 전출하거나 비농업부문에 취업함으로써 현재는 한 가구도 없다. 또한 주로 노령가구들인 기타 가구는 연도별로 한두 가구의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 전체적으로 보면 농가수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

표 2-6 가구구성의 변화, 1985-94

단위: 호

1985 \ 1994		농가	비 농 가				전 출	계
			지 주	농 업 노동자	비농업 취업자	기 타		
농 가		35	2		3	(1)	7	48
비농가	지 주	2					1	3
	농업 노동자	-			1		1	2
	비농업취업자	-					2*	2
	기 타	-				2(1)	1	3
전 입		1			2	3	6 \ 12	
계		38	2		6	4		50\58

() 안은 소멸 가구임.

* 1호(55번 가구)는 가구주 사망 후 전가구원이 전출.

면에 비농업가구가 증가함으로써 혼주화가 많이 이루어졌다.

한편 1985년 본조사를 시작할 당시에 거주하던 가구들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살펴보면 <표 2-6>과 같다. 농가 48호 중에서 지금까지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가구는 35호(72.9%)이고 7호는 전출하였으며 3호는 재촌탈농하여 비농업분야에 취업하였고 2호는 농지임대가구로 되었으며 1호는 소멸하였다. 재촌탈농한 3호를 살펴보면, 1호(4번 가구)는 가구주가 고령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같이 살고 있는 아들에게 집안살림을 넘겨 주었고, 비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아들이 가게를 승계함으로써 가구의 성격이 변화한 것이다. 다른 1호(39번 가구)는 농사를 짓다가 농협에 노무직으로 상시취업하면서 농지를 임대하고 배우자는 마을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1호(32번 가구)는 여성가구주로서 1987년까지는 종답을 임차하여 경작하였으나, 1988년부터 영농을 중단하고 대전시내의 봉제공장에 취업하였다. 또한 2호의 임대가구는 농지가 많아서라기보다는 고령(10번 가구)이거나 남자 경영주가 사망하여 배우자(43번 가구)가 가게를 승계하였지만 농사를 지을 형편이 못되어 임대농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소멸한 1호(45번 가구)는 조사 당시에는 여성단독가구로서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이듬해인 1986년부터 영농을 중단하고 농지임대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사망함으로써 소멸되었다.

한편 1985년 당시 지주였던 3호는 모두 고령의 여성가구주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들이 모두 여성가구주라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은 경지가 많아

서라기보다는 여성으로 고령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하여 작은 면적의 소유지조차도 경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중 1호(49번)는 이미 1985년에 78세의 고령으로서

무직의 조카와 생활하였다. 당시에는 논 1,000평, 밭 500평을 임대하였다. 그 후에는 1,000평을 처분하고 밭 500평만을 경작하다가 1991년에 대전시내의 딸집으로 전출하면서 밭은 임대하였다. 이외에 2호(53, 54번)는 현재도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1985년 당시의 경지면적은 모두 400평 정도였다. 당시에는 이나마의 경지를 임대하였기 때문에 지주로 분류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계임작업이 가능하여 직접 농사를 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농가로 분류된 것이다. 특히 이중 1호(54번)는 농사철에만 상주하고 농한기에는 대전의 차녀집에서 살림을 돌봐 주고 있다. 마을에는 수시로 다녀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대전시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노동자가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1985년에는 농업노동자가구가 2호 있었는데 모두 여성가구주들이었다. 이 중 1호(48번)는 소유지는 없고 모내기나 기타 품팔이로 생활을 꾸려 나가다가 1988년에 전출하였다. 다른 1호는 현재도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1988년에 인근 공장에 취업하였다.

비농업취업가구 2호 중 1호(51번)는 남자 가구주의 사망으로 여성가구주가 1985년 조사당시에는 비농업부문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로는 기타가구의 성격이 더 농후하였다. 다른 비농업취업가구(55번)는 가구주가 단청일에 종사하였는데 1994년 가구주가 사망한 뒤에 남은 가족들이 대전으로 전출하였다. 1991년에는 비농업가구가 9호에 달하기도 했으나 가구전출로 인해 1994년 현재 비농업가구는 6호이다. 이 중 2호는 최근에 거주를 목적으로 전입한 가구들이며 기존의 농업경영주가 탈농하여 비농업분야에 취업한 경우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도 기존 농가의 재촌탈농에 의해 비농업가구가 증가하기보다는 저렴한 거주지를 찾아 전입하는 비농업가구들에 의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기타 가구는 1985년의 3호 중에서 1호는 소멸하고 1호가 전출했으나 1994년 현재 4호로서 1호가 증가하였다. 이는 2가구(67, 68번 가구)⁹가 귀향하고 대전시내 고교예술교사(66번 가구)가 작업장 마련을 위해 전입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 마을은 茂松 庾氏가 대성을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동족부락이다. 1985년 당시에는 총 58가구 중 49호(84.5%)가 유씨가이며 나머지 9호 중에서 3호도 유씨가와 외

⁹ 이 중 68번 가구는 영농을 목적으로 전입하였다. 그러나 1994년 농사가 다 끝난 뒤에 전입하였기 때문에 기타가구로 처리하였다. 1995년부터는 농가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가나 처가 등으로 인척관계를 맺고 있어 전혀 무관한 타성은 6호에 불과하였다. 9년이 경과한 1994년 현재도 동족부락의 성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동안 12호의 유씨가 전출한 반면에 3호가 전입(귀향)해 옴으로써 마을내에서의 무송유씨는 40호로서 전체 가구(50호)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타성씨는 10호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3호가 유씨가와 외가나 처가 등의 인척관계를 맺고 있어 전혀 무관한 성씨는 7호(14%)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유씨가가 가구구성 비율면에서는 약간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동족부락으로서의 성격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¹⁰

다음에 그동안 가구주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 1985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44호 중 40호가 가구주 변동이 없다. 가구주의 변동이 있는 4호를 살펴보면 2호가 남자 가구주에서 여자 가구주로 바뀌었는데 이 가구들은 남자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여성단독가구로 된 경우(38번)와 남자 가구주가 타지로 출타하여 농사철에만 잠시 귀가하여 농사를 짓고 출타하기 때문에 여성 배우자로 가구주를 변경한 경우(29번)이다. 이외에 가구주였던 아들이 가족과 함께 전출하면서 모친이 가구주로 되었다가 전출했던 아들이 귀향하여 다시 가구주로 된 경우(46번)와 가구주 본인의 고령으로 가계를 아들에게 넘겨 준 경우가 1호(4번) 있다. 즉 전통적인 「父 → 子」의 가계 승계과정을 거친 경우는 1호에 불과하다.

2. 인구

2.1. 인구의 변화

1994년도 마을의 총인구는 162명으로 남자와 여자가 각각 81명씩이다. 총인구는 1985년의 224명에서 62명(27.7%)이 줄어들었는데, 남자는 28명(25.7%)이 감소하고 여자는 34명(29.6%)이 감소하여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특히 1985-88 기간에 여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연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에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1, 표 2-7>. 10세 미만의 인구는 1985년에는 46명이었던 것이 1994년에는 10명에 불과해 9년 동안 무려 36명이나

¹⁰ 최근 들어 마을내에 제각을 신축하는 등 종종 활동은 오히려 활발해지는 느낌이다.

그림 2-1 인구구조의 변화, 1985/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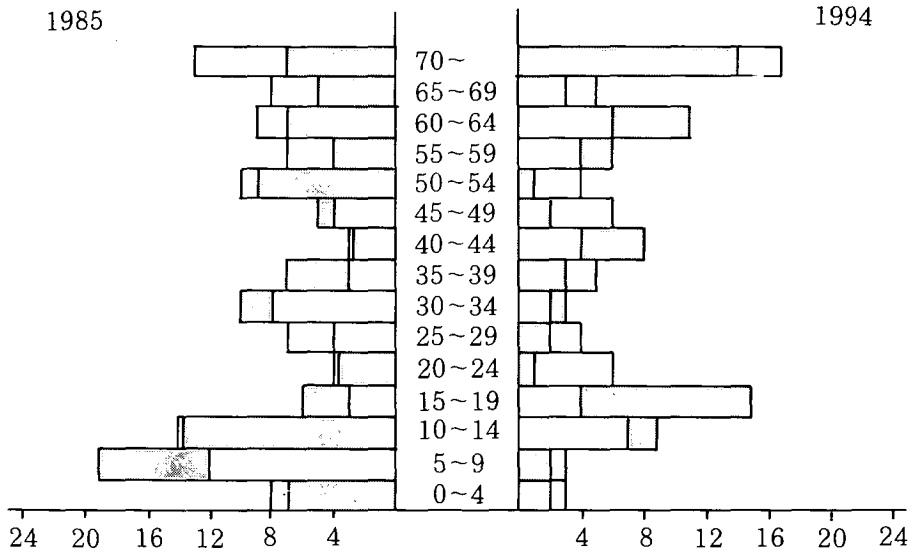


표 2-7 연령별·연도별 인구

단위: 명

연령별	남				여				계	
	1985	1988	1991	1994	1985	1988	1991	1994	1985	1994
0~4	7	1	3	2	8	3	3	3	15	5
5~9	19	5	4	2	12	9	6	3	31	5
10~14	13	19	17	9	15	11	11	7	28	16
15~19	6	6	13	15	3	3	6	4	9	19
20~24	4	3	3	1	4	5	5	6	8	7
25~29	4	1	1	2	7	1	4	4	11	6
30~34	10	3	1	3	8	10	5	2	18	5
35~39	8	9	5	3	3	4	8	5	11	8
40~44	3	6	9	8	3	3	1	4	6	12
45~49	5	3	1	6	4	3	3	2	9	8
50~54	8	8	4	1	10	4	2	4	18	5
55~59	4	5	9	6	8	9	8	4	12	10
60~64	7	4	1	6	9	7	9	11	16	17
65~69	5	6	6	3	8	8	8	5	13	8
70~	7	12	14	14	13	12	13	17	20	31
계	109	102	91	81	115	93	92	81	224	162

감소하여 총인구의 감소가 상당부분은 이 계층의 인구가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계층의 인구가 이렇게 크게 감소한 것은 가족계획의 실시로 출산율이 저하된 것과 아울러 결혼을 계기로 분가하는 가구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70세 이상의 노인층은 1985년에는 20명이던 것이 1994년에는 31명으로 늘어나 전체인구 및 타 연령계층의 인구가 감소한 것과는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인구가 증가한 것은 40대 연령층이다. 이렇게 40대 연령층이 증가한 것은 조사 당시 30대이었던 인구계층 중에서 상당수가 전출하였지만 이들 중의 일부는 현재도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외의 모든 연령계층은 인구가 감소하였는데 인구감소가 심한 순서로 보면 30대, 50대, 20대의 순이다. 한편 10대 인구는 절대적으로는 2호가 감소하였으나 총인구의 감소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는 증가였다. 이것은 이 마을이 대전시와 가깝고 더욱이 대전광역시로 편입되면서는 교통여건이 양호해졌을 뿐만 아니라 대전시 학군에 포함됨으로써 굳이 진학을 위해 대전으로 전출할 필요성이 없어져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에서 통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진학을 하지 않은 10대 연령층이 취업을 한 경우에도 집에서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한 것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령층의 변화 양상은 주요인구지표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57) 1985년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약간 적었으나 1994년에는 같은 수준으로 되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 초기인 1980년대 후반에 여자들이 많이 전출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년인구부양비는 48.5%에서 70.0%로 상승하였는데 특히 65세 이상의 노령계층이 많이 증가하여 노령화지수는 44.6%에서 150.0%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0세 미만인구는 대폭적으로 감소하여 소년인구부양비는 73.3%에서 32.5%로 크게 하락하였다. 4세 이하 인구의 가임여성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모아비는 46.9%에서 18.5%로 떨어져 과거의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이 마을의 출산력이 매우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노인인구(60세 이상)의 증가에 비해 소년인구(14세 이하)의 감소폭이 더욱 커 총부양인구비는 121.8%에서 105.0%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2.2. 인구의 증감 원인

이 마을은 대전광역시(시내)와 인접해 있어 인구이동(전출입)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9년 동안 총인구는 62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사회적인 요인에 의한 것

표 2-8 인구증감 요인별 변화

단위: 명

1985 - 1994 인구증감수		- 62
사회적 증감	전 입 (a)	74
	전 출 (b)	125
	순증감 (a - b)	-51
자연적 증감	출 생 (c)	8
	사 망 (d)	19
	순증감 (c - d)	-11
사회적 증감률(%)		82.3%
자연적 증감률(%)		17.7%

이다. 즉 전입인구는 74명에 불과했는데 전출인구는 125명에 달함으로써 사회적 요인에 의해 51명(82.3%)이 감소하였다. 이외에 8명이 출생한데 비해 19명이 사망함으로써 자연적 요인에 의한 감소는 11명(17.7%)에 불과하였다<표 2-8>.

따라서 그동안의 인구변동은 연인원으로 볼 때 227명에 달해 9년간 매년 평균적으로 약 25명 정도의 인구 변동이 있었던 결과가 된다.

2.3. 전출입자 분석

9년 동안 전출한 125명 중에서 10대와 20대가 각각 40명, 41명으로서 이들이 전체 전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4.8%나 된다. 그다음으로는 30대, 10대의 순으로 전출자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전출자 중 30대 이하가 106명으로 전체의 84.8%를 차지하여 다른 농촌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촌자들의 대부분이 젊은층이었다. 이 마을이 대전시로 편입되어 여러가지 여건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취학이나 취업 등을 위해 젊은이들이 이촌하는 사정은 다른 농촌지역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상당수가 취업이나 취학을 목적으로 인근 대전시로 전출하였으며,¹¹ 다음으로는 서울과 다른 道 도시로 전출하였다<표 2-9>.

한편 타지역에서 이 마을로 전입한 사람들도 총수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연령계층별 분포는 전출자의 경우와 비슷하다<표 2-10>. 20대 인구가 3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10대, 30대의 순이다. 따라서 전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0대 이하가 전체 전

¹¹ 1989년부터는 이 마을이 대전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대전 시내로의 전출은 관내 전출에 해당하나 다른 지역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내 이동으로 간주하였음.

표 2-9 연도별 전출자의 연령분포(단신 및 가구 전출자 포함)

단위: 명

연령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계 '85~'94
- 9	4		1	3	2		2			12
10 - 19	8	11	3	3	1	2	1	7	2	38
20 - 29	7	6	5	5	3	5	5	1	5	42
30 - 39	4		1	1	2			2	1	11
40 - 49		1		1		1		2	1	6
50 - 59			2				2	1	2	7
60 - 69					1				1	2
70 -			1		2	2	1		1	7
계	23	18	13	13	11	10	11	13	13	125

표 2-10 연도별 전입자의 연령분포(단신 및 가구 전입자 포함)

단위: 명

연령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계
- 9	2	1		3	2					8
10 - 19	5		2	6	2	1				16
20 - 29	5	2	3	5	5	3	4		3	30
30 - 39	3	1		3	1					8
40 - 49	1			1					2	4
50 - 59						2	1		1	4
60 - 69		1					1			2
70 -		2								2
계	16	7	5	18	10	6	6		6	74

입자의 83.8%를 차지하여 인구변동이 주로 젊은층의 이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입인구의 사정은 전출인구의 경우와 조금 다르다. 전출인구보다는 불규칙하기는 하였지만 1980년대말까지만 해도 20명 가까이 되었던 전입인구가 최근 들어서는 전입인구가 없는 해도 있는가 하면 6명 정도의 전입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들어 고향으로 전입하는 U-turn자가 많으나 노후생활이나 거주목적이 상당수이며 외지 인인 경우에는 순전히 거주목적으로 전입하고 있다. 귀향자들은 모두 마을내에 소유지가 있다든지 지역적인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와 같이 인구의 전출입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과거에 비해 인구가 동규모가 작아지고 있다. 1986년만 하더라도 23명에 달했던 전출 인구수가 1990년대 들

어서면서는 10여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마을이 대전시로 편입되어 취학이나 학업을 위해 반드시 전출할 필요성이 작아진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큰 원인은 전출할 인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전입인구도 1986년에는 16명이던 것이 1994년에는 6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인구의 변동을 전망해 본다면 현재 취학이나 취업 등으로 출타할 가능성이 많은 10대, 20대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단독으로 생활을 유지하기가 곤란하여 조만간 출타한 자녀들에 의지해야 할 고령가구들이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전출인구는 앞으로도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인구의 전입은 귀향자나 거주목적으로 전입하는 외지인들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과거와 같은 감소추세는 아니더라도 당분간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를 상회하여 마을 인구의 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가족구조

3.1. 가족유형의 변화

경제발전과정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대가족제도는 완화 내지 해체되고 핵가족제도가 지배적인 형태로 되었다. 근교마을도 이러한 우리 농촌사회의 전반적인 현상과 마찬가지로 핵가족화가 지배적인 상태로 되었다<표 2-11>. 본조사 착수 당시인 1985년에 이미 핵가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후 「(편)부모 + 부부 + (자녀)」로 구성되는 직계가족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부부」및 「독신」의 핵가족 형태는 1990년초까지는 절대적으로도 증가하여 핵가족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1991년 이후에는 핵가족 세대가 절대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으나 상대적으로는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 형태의 변화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을 인구의 감소가 주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1985년 당시의 가구들이 그동안 어떠한 변화를 가져 왔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12>와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1985년에 거주하던 58호 중에서 14호가 전출하였는데, 이 중에서 「부부 + 자녀」의 가구가 7호나 차지하였다. 전출한 가구의 가족형태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나머지 44호를 대상으로 가족 형태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까지 거주하고

표 2-11 가족유형

단위: 호, %

가 족 유 형		1985	1988	1991	1994
핵 가 족	독신	5(8.6)	7(12.5)	10(18.2)	8(16.0)
	부부	7(12.1)	12(21.4)	11(20.0)	13(26.0)
	부부 + 자녀	20(34.5)	19(33.9)	18(32.7)	12(24.0)
	편부부 + 자녀	4(6.9)	3(5.4)	4(7.3)	3(6.0)
	미혼 형제자매	1(1.7)	-	-	-
	소 계	37(63.8)	41(73.2)	43(78.2)	36(72.0)
직 계 족	(편)부모 + 부부 + (자녀)	17(29.3)	10(17.9)	8(14.5)	10(20.0)
	(편)부모 + (편)부부 + (자녀)	1(1.7)	2(3.6)	2(3.6)	3(6.0)
	(편)부부 + 손자녀	-	1(1.8)	-	-
	소계	18(31.0)	13(23.2)	10(18.2)	13(26.0)
기 타		3(5.2)	2(3.6)	2(3.6)	1(2.0)
계		58(100)	56(100)	55(100)	50(100)

표 2-12 가족유형의 변화, 1985/1994

단위: 호

1985 \ 1994		핵 가 족					직계가족			기타	전출	계
		(a)	(b)	(c)	(d)	(e)	(f)	(g)	(h)			
핵 가 족	독신④	3									1(1)	5
	부부⑤	2	4				1					7
	부부+자녀③			3	7	1	1			1	7	20
	편부부+자녀⑥	1				1					2	4
	미혼형제자매 ⑦										1	1
직계 가족	(편)부모+부부+(자녀)①		4	3	1		7	2				17
	(편)부모+(편)부부+(자녀)⑧						1	1				2
	(편)부부+손자녀⑨											-
기 타											2	2
전 입		1	2	2			1				14 6	
계		7	13	12	3		11	3		1		58 50

* () 는 소멸가구임.

있는 44호 중 19호가 직계가족 형태이었고 25호가 핵가족 형태였다. 그동안 19호의 직계가족 중 8호가 핵가족으로 변화한 반면에 25호의 핵가족 중 직계가족 형태로 변화한 것은 2호에 불과하였다. 직계가족이 핵가족으로 변화한 것은 모두 「(편)부모 + 부부 + (자녀)」의 형태로서 자녀 또는 손자녀의 전출로 인해 핵가족 형태로 변한 것이다. 기존 가구의 이러한 변화와 아울러 그동안 전입한 6호 중 5호가 핵가족으로서 핵가족 형태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본조사 당시 대가족이었던 가구가 어떻게 핵가족으로 변화했는지, 반대로 핵가족이었던 가구가 어떻게 대가족으로 변화했는지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 대가족 → 핵가족의 사례

그동안 가족 구성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한 가구는 모두 8가구인데 여기에서는 그 중 하나인 8번 가구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1985년 당시 이 가구는 7명의 가구원이 있었다. 가구 구성을 보면 64세의 남자 가구주와 60세의 배우자, 79세의 노모, 그리고 차남의 식구 4명(차남 부부 및 손자녀 각 1명) 등이었다. 그리고 가구주의 아들 3형제가 대전에 출타중이었다. 차남은 부모인 가구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 동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이었다. 따라서 차남은 1986년에 일자리를 찾아 가족들을 데리고 전출하였다. 이때 손녀(차남의 딸)는 동반하지 않고 계속 조부모와 함께 동거하였다. 이 손녀는 이곳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1992년에 청주로 전출하였다. 청주에서 취업을 하여 낮에는 직장에 나가고 밤에는 산업체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였다. 한편 출타하였던 3형제는 그동안 모두 출가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고령인 모친과 칠순을 전후한 가구주 부부 3명만이 990평의 논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 농사로 식량 정도를 자급하는 정도이고, 5남 1녀의 자녀들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 핵가족 → 대가족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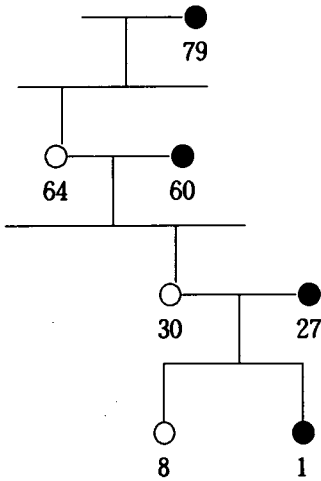
핵가족 형태에서 대가족 형태로 변화한 가구는 2호이다. 그 중 하나인 36번 가구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985년에는 칠순이 넘은 가구주 부부만이 살고 있었다. 자녀는 5남 4녀를 두었는데 그당시 이미 3남 4녀는 출가하였다. 미혼의 두 아들 중 4남은 대전에서 취업 중이었고 5남은 입대중이었다. 1989년 결혼하여 대전시내에서 거주하던 3남 가족(셋째 아들, 며느리, 손녀)이 전입하였다. 대전시내의 세탁소를 계속 운영하

그림 2-2 대가족 → 핵가족의 사례(8번 농가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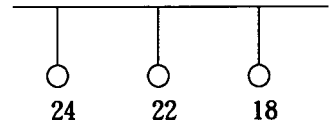
○ = 남자 ● = 여자, 숫자는 당시의 연령

1985

〈동거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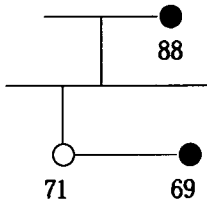


〈출타가족〉



1994

〈동거가족〉



〈출타가족〉

면서 주거지만 본가로 옮긴 것이다. 또 전입하던 해인 1989년에 손자가 출생하여 가족은 모두 6명으로 증가하였다. 농업 이외에 세탁업을 하고 있어 겸업농가이다. 그러나 아들 부부는 세탁소 운영을 전담하고 휴일에만 농사일을 거들고 있기 때문에 2,400평의 농사는 노부부가 농기계 임작업을 통해 꾸려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3.2. 독신가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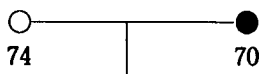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인구 및 가구의 감소로 인해 핵가족화가 심화되는 등 가족구조에

그림 2-3 핵가족 → 대가족의 사례(36번 가구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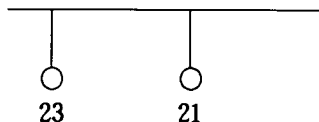
○ = 남자 ● = 여자, 숫자는 당시의 연령

1985

<동거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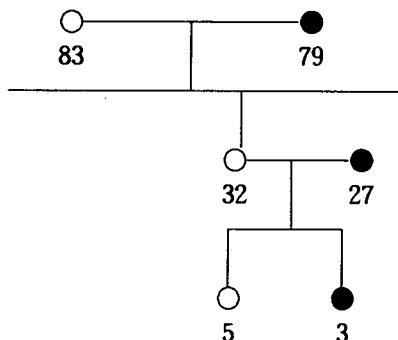


<출타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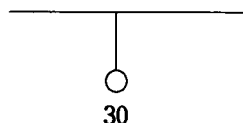


1994

<동거가족>



<출타가족>



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고령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단독가구수가 5호에서 7호로 증가하여 절대적으로만 본다면 커다란 변화로 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1985년 당시 단독가구 5호 중 현재에도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3호이고 1호는 전출하고 다른 1호는 가구주가 사망함으로써 가구 자체가 소멸하였다. 한편 「부부」가구 중 2호가 배우자가 사망하여 단독가구가 되었고 「편부부 + 자녀」가구 중 1호가 자녀의 전출로 인해 단독가구가 되었다. 이외에 대전시내 교교의 미술교사가 작업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입한 1호를 포함하면,¹² 그동안 단독

¹² 이 가구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단독가구는 아니다. 대전시내의 본가에서 처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작품활동을 할 때에만 이곳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을내의 주택과 그에 딸린 경지를 구입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연구에서는 분석상 본인만이 전입하여 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표 2-13 독신가구의 경제·사회적 특성(1994년말 현재)

가구 번호	성별	연령 (세)	직업	농경지 소유	생활수단	비고
32	여	67	비농업	무	백화점 근무(청소원)수입	'94가구주 사망
38	여	67	농업	600평	농업소득	
43	여	63	무직	700평	농지임대소득, 자녀보조	
53	여	70	농업	400평	농업소득, 자녀보조	
54	여	79	농업	무	종중답 경작소득, 자녀보조	
58	여	77	무직	무	자녀보조 (장남: 이웃마을거주)	2녀(대전)의 자녀 돌봄 농번기에만 영농종사 아들이 이웃마을에서 비닐 하우스 운영 작품활동만 하고 생활은 시내 본가에서 함
66	남	40	교사	무	대전시내 고교 미술교사	

* 53, 54, 58번 가구는 85년 당시부터 독신가구임.

가구는 4호가 증가하였다. 즉 전체적으로는 2호가 감소한 반면에 4호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단독가구수의 증가 자체보다는 그 가구주들의 생활실태에 있다. 먼저 단독가구 7호 중 6호가 여자라는 점이다. 예술활동을 목적으로 전입한 1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령 여성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경우 이미 정상적인 노동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에 종사하기 어렵다. 현재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가구주는 32번 가구뿐으로서 대전 시내의 백화점에서 청소일을 하면서 한달에 40~5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 나머지 5명은 농지임대소득, 농기계임차에 의한 농업소득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해 부득이 생활비의 일부를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물론 그동안 자녀들의 뒷바라지에 전념하느라고 연금·보험 등 자신들의 노후대책을 마련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다.

한편,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6호 이외에 여성가구주가 있는 가구가 2호가 있다 <표 2-14>. 한 가구(29번)는 남편이 수년전 출타하여 여성가구주가 노부모를 모시면서 농사일을 꾸려 나가고 있다. 농사철이 되면 출타한 남편이 농사일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전체적인 살림을 여성가구주의 주관하에 꾸려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한 가구(57번)는 두 딸(6녀, 7녀)과 함께 살면서 인근에 있는 공장에 취업하고 있다. 6녀는 같은 공장에 취업하고 있으며 7녀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농지가 없어 농사일은 전혀 없다.

이상에서 독신가구 및 여성 가구주 가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앞으로도 농촌지역에

표 2-14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가장 현황(1994년말 현재)

가구번호	연령 (세)	직업	농지소유	부양가족수			비고
				동거	출타	계	
29	59	농업	1,914평	2	3	5	출타남편이 영농지원
32	67	비농업	무	1	-	1	
38	67	농업	600평	1	-	1	
43	63	무직	700평	1	1	2	
53	70	농업	400평	1	-	1	
54	79	농업	무(종답임차)	1	-	1	인근 공장 근무
57	57	비농업	무	3	-	3	
58	77	무직	무	1	-	1	

서 핵가족이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단독가구 특히 여성 단독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독자적으로 마련해 놓은 노후대책이 없기 때문에 출가(또는 출타)한 자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성장한 자녀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을 갖춘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안되지만 이들의 일부는 아직 출가전이거나 결혼했어도 경제적인 기반이 미흡하여 부모를 충분히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3. 가족분산과 출타가족의 실태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근교마을인 이 마을도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 및 가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핵가족화가 더욱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인구 및 가구수의 감소와 아울러 가구별 가구원수도 많이 줄어들었다. 1985년당시만 하더라도 한 가구는 보통 4~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1994년에는 2~4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가장 많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5년에는 평균 가구원수가 3.83명이던 것이 1994년에는 3.24명으로 9년 동안 평균가구원수가 0.59명이나 감소하였다<표 2-15>.

가구원의 감소는 동거 가구원뿐만 아니라 출타 가구원도 많이 감소하였다. 마을 전체적으로 보면 1985년에는 72명에 달하던 출타 가족이 1994년에는 31명에 불과하다. 이는 그동안 취학 또는 취업 그리고 입영 등으로 출타했던 가구원들이 취업 후 결혼하여 분가함으로써 출타가족이 감소한 것이다.¹³

¹³ 미혼 자녀가 출타가족이 된다. 따라서 장남이라도 결혼하여 분가한 경우에는 가족에서 제외하였다.

표 2-15 가구원수별 가구수

단위: 호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이상	계	평 균 가구원수
1985	5	11	9	10	13	8	1	1	-	58	3.83
1988	7	12	8	12	12	5	-	-	-	56	3.45
1991	10	11	8	8	12	4	2	-	-	55	3.38
1994	8	14	6	9	7	5	1	-	-	50	3.24

표 2-16 출타자의 연령별 구성

단위: 명

	0 - 9	10 - 19	20 - 29	30 - 39	40 - 49	50 - 59	60세 이상	계
1985	-	20	48	2	1	-	1	72
1988	-	13	48	1	-	-	-	62
1991	-	5	33	6	2	-	-	46
1994	-	5	18	7	-	1	-	31

출타자들의 연령 구성을 보면 20대 연령층이 어느 해를 막론하고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2-16>. 그러나 <표 2-16>에서 보듯이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출타가족수가 줄어들면서 20대 연령층의 비율도 작아지고 있다. 즉 198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하여 출타가족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출타하여 취학 및 취업을 하였던 상당수의 출타자들이 졸업 후 취업과 아울러 결혼을 함으로써 분가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결혼하여 분가하는 가구원보다 신규로 출타하는 가구원수가 적어 전체 출타 가족수가 계속 감소하였다. 이러한 출타가족의 감소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마을내에 젊은이들이 많지 않고, 그동안 출생률도 현저히 낮아져 아동수가 많지 않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전시로 편입되어 중고등 학생들이 대전시내의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전학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출타가족들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취업을 위해 대다수가 출타하였고 그 다음이 취학 목적이었다<표 2-17>.

이와 같이 출타가족의 감소로 인해 가족의 분산 정도는 점차 완화되었다<표 2-18>. 과거에는 10대, 20대의 젊은층이 취학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출타함으로써 한 가족이 여러 지역에 분산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구 및 인구의 감소, 특히 출타가족의 취업, 결혼 및 분가 등으로 가족에서 제외됨으로써 가족분산 현상은 크게 완화되었다. 1985

표 2-17 출타 목적별 출타자 분포

단위: 명

	취 업	취 학	입 영	기 타	계
1985	47	20	4	1	72
1988	46	9	6	1	64
1991	34	8	3	1	46
1994	15	9	4	3	31

표 2-18 가족의 분산 정도

단위: 호, 명

가족당 가구수	1 가구	2 가구	3 가구	4 가구	평 균 도시분가수	호당평균 출타자수
1985	23	24	10	1	1.81	1.24
1988	24	21	9	2	1.80	1.11
1991	26	20	8	1	1.71	0.95
1994	27	20	2	1	1.54	0.70

년에 1.24명에 달하던 호당평균 출타자수가 1994년에는 0.70명으로 줄어들어 현재는 출타자수가 호당평균 1명에 훨씬 못미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 취학 또는 취업을 위해 출타하였던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결혼과 함께 분가함으로써 가구주 부부만이 한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출타가족들이 계속 취업, 결혼 후 분가하게 되면 가구주 부부만으로 이루어지는 고령 핵가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3 장

경제활동구조의 변화

1. 지역 경제 여건의 변화

농촌마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가 전체의 농업/농촌 정책의 변화 등 외부적 요인과 마을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여건, 마을의 농업생산 기반 등 지역여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기간인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전반의 외부적 요인 중 첫째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진전되고 그에 따라 정부의 농정기조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농가의 선별적 지원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증촌마을에서도 수입개방 품목인 콩과 포도의 재배가 감소되는 등 변화가 일어났는데 1994년 UR 협정의 결과가 가시화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직업 및 거주지 선택, 농업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경쟁력 강화 위주의 농업정책은 이 마을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젊은 층이 대부분 이촌하고 영세한 노령 농가들이 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화의 진전으로 농지 가격이 높아 전업농의 형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조사기간 중 증촌마을에 지원된 농업정책을 보면 경지정리와 기계구입자금 지원이 있었지만, 전업농이나 후계자 지정, 농지구입자금 등의 지원은 없었다.

두번째의 외부적 요인은 도시화의 진전과 확산이다. 증촌마을은 1989년 대전직할시에 편입되었고 이에 따라 도로교통과 생활환경, 농업경영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

전으로의 연결도로인 639번 지방도는 1985-86년 사이에 포장되었으며 직할시 편입 전 후에 마을까지 시내버스가 들어오고(1일 6회), 이웃 평촌 1구까지는 시내버스가 1일 30회 이상 운행되어 대전으로의 통학과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 결과 마을 내에 비농업취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한편, 도시화에 따른 생활환경상의 변화로 주택의 신증축, 난방 및 주방시설, 화장실의 변화, TV 등 매스컴과 전화의 보급 확대, 쓰레기의 외부 수거 등을 들 수 있다. 도시화의 확산은 이 마을에서는 비농업부문의로의 전환을 촉진시킨 반면 농업의 상업적 발전에 기여하지는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주택, 교육, 의료 및 일반 소비생활의 양을 확대하고 질을 향상시켰다.

세번째의 외부 요인은 산업화의 진전 과정에서 산업간, 산업내에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특히 농산물 판매가격에 비해 노임이 크게 상승하면서 농업경영에서도 노동절약적 기술의 채택이 강요되었는데 쌀과 같이 정책적으로 기계화가 추진된 부문을 제외하면 경영 및 재배기술이 뒤떨어진 지역의 농업은 경쟁 격화 속에서 쇠퇴하게 된다. 사례 마을에서 경제작물이 크게 줄어들게 된 것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 외에 1985-1994년 중에 증촌마을의 경제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여건 변화를 들면 <표3-1>과 같다.

표 3-1 증촌마을의 지역경제 여건과 변화

지역산업화와 정주 편의성	○ 1985년 이후 좋아짐 ○ 1985/86 대전시와의 연결도로 포장됨 ○ 1985년 전후 이웃 평촌1구에 공장 입주가 늘어남(분산 입지) ○ 1989년 대전광역시에 편입됨
농업생산기반	○ 1986/87 경지정리가 실시되었으나 논외 60%가 곡간답으로 남아 있음. ○ 곡간답으로의 농로는 잘 정비되어 있으나 밭으로의 접근도는 향상되지 않아 매우 불편함.
전업농 형성 조건	○ 1980년대초 시설원예, 복합영농 실패 경험으로 농업에 대한 태도가 매우 보수적임. ○ 젊은 층의 비농업취업, 이촌으로 영농 후계세대가 단절 위기임. ○ 직할시 편입으로 농업적 지원이 감소함

2. 마을 주민의 취업구조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사기간중 증촌마을의 가구구성을 보면 비농가와 겸업농이 증가하고, 농가 그 중에서도 전업농이 급격히 감소하여 농업부문의 상대적 비중 감소와 비농업부문의 확대라는 예상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마을 주민의 개인별 취업상태를 보더라도 농업취업자의 감소가 두드러지는 반면 비농업취업자수는 증가하여 가구구성과 마찬가지로 혼주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1985년에는 15세 이상의 취업인구 115명 중 농업에 전업적으로 종사하는 주민이 105명, 농업과 비농업에 겸업취업자가 7명으로 농업취업자가 절대적이었으나 이후 비농업취업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1994년에는 농업전업자의 비율은 55.3%(52명)로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중 비농업취업자는 농업겸업자를 포함하여 10명에서 4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와 같은 산업별 취업자수의 외형적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취업자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 인구의 전반적인 노령화 속에서 그나마 소수의 젊은 노동력마저 비농업부문으로 전직하여 농업부문의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 3-2 15세 이상 주민의 취업실태 변화

단위: 명 (%)

		1985	1988	1991	1994
취업인구	농업 전업	105 (91.3)	70 (73.7)	60 (65.9)	52 (55.3)
	농·비농 겸업	7 (6.1)	13 (13.7)	14 (15.4)	18 (19.1)
	비 농 업	3 (2.6)	12 (12.6)	17 (18.7)	24 (25.5)
	소 계	115(100.0)	95(100.0)	91(100.0)	94(100.0)
비취업인구*		35	41	48	42
계		150	111	139	136
연평균 영농종사자 감소율(%)		4.8			

* 비취업인구에는 학생, 노령자, 주부, 질환자, 실업자가 포함됨.

3. 농가 경영주의 특성과 영농후계자

사례 마을은 경영주의 노령화가 매우 심한 편이다. 조사기간중 농가 경영주의 연령별 분포 변화를 보면 40세 미만의 젊은 층이 크게 줄어든 반면 노령층이 증가하고 있다. 영농후계세대라 할 수 있는 30대 경영주가 1985년에는 10명(20.8%)이던 것이 1994년에는 한명도 없어 이 마을에서 농업에 신규로 취업하는 젊은 층이 단절된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 노동능력이 거의 없고 경영능력도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70세 이상의 경영주가 3명에서 1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60대 경영주까지 더하면 22명으로 노령 경영주가 전체의 57.9%나 차지하고 있다.

증촌마을이 이와 같이 노령화의 경향이 심한 것은 노령가구가 살기에 생활환경이 비교적 좋고 기계화로 영농이 편한 점, 동족부락으로서의 특징이 노령가구의 이촌을 억제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경영주의 노령화와 젊은 층의 감소는 이 마을의 농업발전이 되쳐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증촌마을에서 노령화가 특히 심하게 진전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녀세대에 의한 영농승계율이 낮은 때문이다. 1985년 당시 경영주 연령이 55세 이상인 농가수는 22호였는데, 9년이 지난 1994년 현재 이들의 영농상황을 보면 14호의 농가가 후계자 없이 노령화된 본인 또는 부인이 영농을 계속하고 있으며, 8호는 그나마 본인

표 3-3 농가경영주의 연령 분포

·단위: 명

	1985	1988	1991	1994
30세 미만	-	-	-	-
30 - 39	10	5	2	-
40 - 49	7	7	7	9
50 - 59	13	12	10	7
60 - 69	15	10	11	10
70세 이상	3	8	8	12
계	48	42	38	38
경영주 평균연령	53.6	56.6	59.9	63.2

세대의 영농이 불가능하여 이미 탈농하였다. 반면 자녀가 영농을 승계한 농가는 전혀 없었다. 1994년 현재 55세 이상인 농가 28호에서 영농후계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농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은 예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농촌 마을에서의 후계세대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경영주의 학력을 보면 국졸이하가 32명(84.2%), 중졸이 2명, 고졸(퇴)이 3명, 전문대졸(농업 전공이 아님)이 1명으로 역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4. 경지의 소유와 이용

4.1. 경지 조건

조사기간중 증촌마을 농업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경지정리이다. 1986년 겨울에 시작되어 1987년 봄에 완공된 경지정리사업은 마을의 농경지 필지구조와 농로,수로 등 물리적 공간구조를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농업기계화가 급속히 추진되었고 작부체계에도 변동이 일어나는 등 마을의 농업경영과 농가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경지정리지구 총면적은 17ha이나 이웃 오리 주민과 외지인의 소유지를 제외하면 마을 주민과 종중에서 소유한 면적은 11ha로 당시 마을 논 면적의 40% 정도에 달하였다. 농경지는 길이 100m, 폭 30m로 구획되었으며(필지당 900평), 이는 원래의 가구별 소유지를 참작하여 300평 단위로 재분할되기도 하여 교환·재분합되었다. 경지정리로 인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에 마을 정자나무 옆으로 휘어져 있던 마을 진입로가 직선으로 변경되었으며, 노폭도 4m로 확장되고 시멘트 포장이 되었다. 이 진입로는 마을 농지로 진입하는 간선 농로 역할도 함께 하며, 마을로 버스의 진입도 용이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농로와 용배 수로가 정비되어 기계화와 용수가 용이해졌다.

둘째, 기계화의 진전을 가져왔다. 이 마을은 1986년까지는 이앙과 수확을 모두 수작업에 의존하였으나, 1987년부터 비록 이웃마을 주민의 임작업이지만 기계작업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1988년에는 이앙작업의 36%, 수확작업의 49%가 기계화되었다. 1989년에는 마을에서 가장 젊은 농가인 유○구씨가 이앙기와 콤바인을 구입하여 본격적으로 기계화가 진행되었다.

셋째, 경지정리에 따른 기계화로 노동생산성은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생산성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경지정리 후 토질이 바뀌어 논외 배수가 나빠져서 전에 답리작으로 가구마다 200-300평씩 하던 마늘재배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별다른 경제작물이 없는 근교마을에서 비옥우와 함께 중요한 현금수입원이던 논마늘 면적이 1986년 7,010평에서 1987년에는 3,520평으로 감소한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다.

경지정리가 된 논은 10a당 수확량이 쌀 6가마(480kg) 정도로 전국 평균치보다 높으나 마을 논외 60% 가량을 차지하는 곡간답은 300kg 내외의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마을의 북동쪽과 서쪽에 있는 곡간답은 위에 작은 보가 있어서 용수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으나 토질이 척박하고 일조량이 적어 수량이 낮다. 한편 밭은 대부분 종종 소유의 임야를 개간한 것으로 경사가 심하고 자갈이 많아 생산성이 극히 낮다.(경사전에서의 대표작물인 콩의 수량이 100평당 30kg 정도로 전국 표준생산량 57kg의 절반에 불과함.) 최근에는 노동력 부족으로 개간밭의 면적이 급격하게 줄어 임야로 환원되고 있다.

4.2. 면적의 변화와 경지조건

경지면적의 증감과 그 이용도는 마을의 농업생산력 변화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경지면적의 변화는 마을 주민의 소유지 면적과 마을 내외간의 임대차 규모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조사기간중 증촌마을의 총경지면적은 소유면적이 22%, 경작면적이 23% 감소하였다.

표 3-4 마을 총경지면적의 변화

단위: 평

	1985	1988	1991	1994	'94/'85
마을 총소유 면적	87,697	76,747	71,476	62,091	0.78
농가소유	64,515	54,090	49,907	44,072	0.68
비농가 소유	3,022	4,632	5,342	5,796	1.92
위토, 동네논 등	20,160	20,025	16,227	12,223	0.61
외부로 임대	6,781	5,661	3,972	2,652	0.39
외부에서의 임차	8,268	15,408	11,048	9,019	1.09
총경작면적	89,184	88,494	78,552	68,458	0.77
농가호수	48	42	38	38	0.79
호당 소유면적	1,344	1,288	1,313	1,160	0.86
호당 경작면적	1,858	2,107	2,067	1,801	0.97

증촌마을에서 조사기간중에 이촌한 가구가 이촌 당시에 소유한 면적은 6,243평(1985년을 기준한 마을 소유면적의 7%)으로 그다지 큰 면적은 아니다. 그럼에도 경지소유면적의 감소가 큰 것은 지속적인 농지가격 상승으로 마을 주민의 농지구입 능력과 의사가 감퇴하면서 마을 내에서 농지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외지인의 농지구입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 중증산 개간밭의 임야 환원, 1986/87년 경지정리시의 감보도 소유지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¹

한편 외지인과 비농민의 소유지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의 입차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마을 구역내의 농경지 경작이 이웃마을로 넘어갔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마을경작권(圈)의 축소는 증촌마을의 농기계 보유대수가 적고 경영주의 노령화가 심한 점 등, 전체적으로 마을의 농업경영능력이 낙후되어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 주민들의 비농업부문 취업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의 중심이 비농업으로 이동하였다. 그 결과 증촌마을에서는 농가호수가 48호에서 38호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당 경지면적은 늘지 않고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다. 농가호수의 감소가 바로 경영규모확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증촌마을의 예를 들면 전업적 영농을 하려는 주체의 존재, 일반적으로는 기계화가 편리한 경지조건 등—이 충족되어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4.3. 가구별 경작규모의 변화

증촌마을은 호당 소유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경작규모도 매우 작아 평균 1,800여 평에 불과하다. 이 마을의 경지규모가 작은 것은 결국 산업화과정에서 농가 호수가 적절하게 감소하지 않고 마을내에 적체된 결과이다. 이는 동족부락으로서의 유대관계가 강하여 이촌이 억제된 점, 상당한 농지가 대를 넘어가면서 중증토로 편입되고 이것이 역으로 영세민의 최저한의 생활근거가 되었던 점이 작용한 것이다. 더욱이 마을이 대전시로 편입된 최근에는 이촌 심리가 더욱 억제되어 노동능력이 매우 취약한 노령층이 마을에 집적되고 이들이 자기가 소유한 소규모의 농지, 또는 중증토를 빌려 영농함으로써 수치상의 평균 영농규모는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앞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마을 농가 경영주의 42.1%가 65세 이상이며, 70세 이상 농가만도 12호(31.6%)에 이르는데, 이들 노령농가들의 평균경작면적은 1,475평에 불과하다.

¹ 증촌마을 경지정리사업지구의 감보율은 6.7%로 평균 감보율 5%를 상회하였다.

표 3-5 경작규모계층의 변동

단위: 호

		1994년도 경지규모				탈농가구
		0.5ha 미만	0.5-1.0	1.0-1.5	1.5-2.0	
1985년 경작규모	0.5ha 미만	8	2	1	-	7
	0.5 - 1.0	5	13	2	-	6
	1.0 - 1.5	-	-	1	2	-
	1.5 - 2.0 ha	-	1	-	-	-
신규 진입가구		3	-	-	-	-

* 망점 부분은 경지규모 계층의 변화가 없었던 농가수임.

반면, 경지확대가 어려운 것도 마을의 사회적 특성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종중토와 이촌한 친척들의 보유농지가 임대농지의 주 공급원인 상황에서 농지임차는 경쟁이 아닌 다른 원리에 의해 결정되었을 것이다. 마을의 가장 젊은 농가이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을 소유하고 있는 3번 농가(1994년 44세)도 임차지 3,800평을 포함하여 경작지는 5천여평에 불과하고, 주로 마을의 기계임작업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가구별로 보면 경지규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985년에 4,800평으로 경작면적이 가장 컸던 자작농 7번 가구는 부채 누적 때문에 농지를 팔면서 규모가 줄었고(1988년, 65세), 앞의 3번 가구와 담배 등 경제작물을 꾸준히 해 오던 35번 농가가 임차를 통하여 규모를 확대하였다(각각 5,048평과 4,800평). 한편 새로 영농에 진입한 세 농가의 경지규모는 모두 1,500평 미만으로 영세하였다.

4.4. 농지 임대차 관행

중촌마을은 농지의 임차료가 비교적 낮은 편이며 임차료의 하락 속도도 빠르다. 농업노동력의 부족이 심화되는 한편 농외취업기회가 확대됨으로써 농지임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계작업이 어려운 미경지정리 필지와 곡간답에서 임차료의 하락폭이 크고 임차료 수준도 낮아 곡간답의 평균 임차료율은 수확량의 20-30%에 불과하다. 밭은 대부분 종중 소유의 임야를 개별 농민이 개간한 후 장기간에 걸쳐 경작하고 있는 형태로서, 평당 100원의 낮은 임차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생산성이 낮고 노동력이 부족하여 점차 경작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표 3-6 농지 임차료 수준

단위: 200평당

구 분			1985	1994
중답 (경지정리 논)	정 조	임 차 료 총생산량 임차료율	쌀 16말 쌀 35말 45.7%	쌀 12말 쌀 35말 34.3%
	타 조	임차료율	50 %	40 %
하답 (곡간답)	정 조	임 차 료 총생산량 임차료율	쌀 11말 쌀 25말 44.0%	쌀 5말 쌀 25말 20.0%
	타 조	임차료율	50%	30.0%
밭	정 조	현금임차료율	20,000원	20,000원
	타 조	임차료율	50%	-

임차료의 계산방법은 점차 定租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 논인 경우 1985년에는 5 : 5의 반분타작 형태가 많았으나 경지정리 후에는 정조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4:6제, 3:7제 같은 타조는 일부 곡간답이나 재촌지주와의 사이에서만 행해지고 있다. 이는 수리조건이 양호해짐에 따라 수확량의 변동이 작아진데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화폐경제의 발달과 경제작물의 증가, 부채지주 소유지의 확대에 따라 임차료 지불 형태도 근년에 올수록 현금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85년만 해도 밭의 임차료는 콩과 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1994년에는 거의 현금화되었다.

5. 농업노동력 변화와 농업기계화

5.1. 영농종사자의 감소와 구성 변화

조사기간중 농업노동력의 전반적인 변화를 요약하면 영농종사자의 감소와 노령화이다. 이는 은퇴하는 노령층을 대체하는 신규 진입이 거의 없는 반면, 탈농과 이촌이 젊은 층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조사기간중 농가호수는 20.8% 감소하였는데 농가의 영농종사자는 그보다 높은 비율인 37.0%가 감소하였다. 그 결과 농가 호당 영농종사자수는 2.31명에서 1.84명으로 0.5명 정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양적 감소보다 심각한 것은 노령화에 따라 노동력이 질적

표 3-7 영농종사자수

단위: 명(%)

		1985	1988	1991	1994
연령별	30세 미만	13	1	1	-
	30 - 49	23	15	8	5
	40 - 49	12	14	14	13
	50 - 59	28	23	17	12
	60 - 69	28	21	21	21
	70세 이상	7	9	13	19
	계	111	83	74	70
호당 평균 영농종사자수		2.31	1.98	1.95	1.84
60세 이상 비율		31.5	36.1	45.9	57.1
여성 비율		51.4	49.4	51.4	51.4
환산노동능력		82.1	65.0	46.4	34.8
호당 평균		1.71	1.55	1.22	0.92

* 농림수산부의 성·연령별 노동능력환산표에 의함..

** 비농가의 영농종사자(농업노동자)는 제외하였음.

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985년에는 30세 미만의 영농종사자가 13명이고 30대가 23명으로 양층이 전체의 1/3 가까이 되던 것이 1994년에는 30세 미만은 전혀 없고 30대가 겨우 5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반면 60세 이상이 35명(31.5%)에서 40명(57.1%)으로 늘어 전체 영농종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동능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70세 이상이 19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명목상의 영농종사자일 뿐 실제 생산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령구조를 고려한 환산노동능력은 마을 전체로 보아 1985년의 82.1명에서 34.8명으로 58%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농가 호당 0.92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는 농가의 전체 농업노동력 보유 수준이 20~55세의 남자 1명에 못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²

5.2. 영농종사자의 증감 요인

영농종사자가 감소하는 것은 새로 영농에 참여하는 인구보다 노령층의 은퇴와 젊은 층의 탈농이 많기 때문이다.

² 환산노동능력의 계산은 농림수산부의 성별·연령별 노동능력 환산표에 의하였다. 그리고 비농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환산능력의 1/3만 농업에 투입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3-8 영농종사자 증감 요인

단위: 명(%)

		계	- 30	30 - 39	40 - 49	50 - 59	60세 이상
1985년 영농종사자수		111	13	23	12	28	35
탈농자	소계	46	10	12	4	4	16
	재촌취업	7	1	3	2	1	-
	재촌은퇴	9	-	-	-	1	8
	사 망	7	-	-	-	1	6
	취업이촌	20	9	9	2	-	-
	은퇴이촌	3	-	-	-	1	2
계속 영농참여자		65	3	11	8	24	19
신규 영농참여자		5	1	2	1	-	1
1994년 영농종사자수		70	-	-	-	-	-

* 연령은 1985년 기준임.

1985년 조사 당시의 영농종사자 111명 중에서 1994년까지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65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조사기간중의 영농중단자 46명의 탈농 형태를 보면 취업을 위해 이촌한 사람이 20명(43.5%)으로 가장 많고 여기에 재촌 취업자 7명(15.2%)을 더하면 영농을 중단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비농업부문의 취업 때문에 탈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농의 다음 요인으로는 재촌은퇴(9명), 그리고 사망(7명)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 영농지속자 비율을 보면 1985년 당시 40대와 50대는 80% 정도가 1994년까지 영농을 계속하고 있는 반면 비농업취업자가 많은 20대는 23%, 30대는 52.2%의 낮은 영농지속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영농지속률의 연령대별 차이 즉 선택적 이촌이 농업종사자 연령구조 변동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60대 이상은 노령화로 인한 은퇴와 사망 때문에 1994년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은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5.3. 농업기계화의 진전과 노동력 교환관계의 변화

중촌마을은 호당 경지면적이 작아 기계화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따라서 기계화 진행도 늦은 편이었다. 1985년 이전에는 경운, 정지 작업만 경운기로 하였을 뿐

표 3-9 농기계 보유 및 수도작 기계화 정도

		1985	1988	1991	1994
농기계 보유대수	경운기	6	6	5	9
	트랙터	-	-	1	1
	이앙기	-	-	2	2
	콤바인	-	-	1	1
	동력탈곡기	2	4	-	-
	동력분무기	3	4	5	6
	관리기	-	-	-	-
수도작 기계작업률(%)	경 운	n.a.	85	95	100
	정 지	n.a.	87	98	100
	이 앙	0	36	83	100
	수 확	0	49	83	100

* 경운, 정지의 기계작업률은 1987년부터 조사함.

이앙, 수확작업은 모두 수작업에 의존하였다. 1986/87년 경지정리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이웃 평촌2리, 오리의 기계소유자에 기계임작업을 맡기다가 1989년에야 비로소 39세의 젊은 농가(3번 가구)가 이앙기와 콤바인을 구입하였다. 이 농가는 1991년에 트랙타도 구입하였으며 마을 내 논면적의 절반 정도를 맡아 경운, 정지, 이앙,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1994년의 주요 기종별 보유 대수를 보면 트랙타와 콤바인이 각 1대, 이앙기가 2대로서 미곡 경작면적 20ha에 비하면 약간 부족한 편이나 이웃마을 기계 소유자에 임작업을 맡겨 1993년부터는 수도작의 경운, 정지, 이앙, 수확작업은 모두 기계화되었다. 경운기는 9농가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경운용보다는 운반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밭은 특별한 경제작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계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관리기를 비롯한 전작용 농기계는 1994년까지도 도입되지 않았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없었으며, 단지 동력탈곡기 보유자를 중심으로 탈곡작업만이 2개 있었으나 콤바인 작업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1985년과 1986년 작업을 끝으로 각각 해체되었다.

평촌마을에서 공동체적 농작업 집단인 두레가 소멸한 것은 1960년대 초반이라 한다. 두레가 소멸한 이후에도 수도작을 중심으로 품앗이와 노동력 교환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되어 왔는데 이는 1987년 이후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감소하였으며, 1994년에는 노동력 교환관계가 사실상 소멸해 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촌마을에서 노동력 교환관계가 미약한 원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표 3-10 노동력 고용과 품앗이

단위: 日·人

		1985	1988	1991	1994
농업노동고용량	미작	450	168	35	4
	미작 외	209	139	72	0
마을 외부 노동력 고용량		10	40	0	0
품앗이 교환량	미작	222	222	45	0
	미작 외	155	18	10	0
농가 호당 평균	고용	13.7	7.3	2.8	0.1
	품앗이	7.9	5.7	1.4	0

첫째, 호당 경지규모가 영세하고 대부분 미곡 위주의 자급적 농업을 하는 동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원래 고용노동관계는 소수의 노령화된 중농층에 한정되었었다. 그러던 것이 수도작 기계화의 진전으로 그나마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몇몇 농가를 제외하면 벼 재배면적이 1,000평 내외에 불과해 기계작업의 보조로 수작업이 필요한 이앙시 보식이나 모판 나르기, 수확보조 작업, 수확후 건조작업 등은 거의 가족노동력으로 가능한 수준이다.

둘째, 주민의 대부분이 동족인 반촌(班村)으로서 ‘품을 파는 것’에 대한 기피성향을 가지고 있다. 서로 친척으로 얹혀 있는 관계에서 마을 안에서 품을 팔기보다는 오히려 외지에 나가 품을 파는 것이 심적 부담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도시 근교에 위치해 있어 주변 지역의 노임은 크게 상승한 반면 마을 내에서 결정되는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마을내에서 노동력 판매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³ 한편 노동력 수요 측면에서도 비싼 노임을 지불하면서 수익을 올릴만한 고소득 작목이 도입되지 않은 실정이다.

개별적 품앗이 외에 공동노동조직으로는 놀이계가 발전된 형태의 모내기조직이 1985년부터 활동한 사례가 있다. 이들은 30-40대의 젊은 층 6가구로 구성되었으며 1988년에는 계원들의 자경지 8,900평과 노령가구의 3,000평을 추가로 도급받아 모내기를 하였다.

³ 예를 들어 1991년의 남자 노임은 일당 2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주변 임금이 30,000원 정도여서 실제 사람을 쓰고 나서는 5천원 정도 추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피고용자 입장에서 마을에서 정한 공식 임금 외의 돈을 가외로 받는 것이 거북하다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었다. 1994년에는 이를 현실화시켜 일당 4만원으로 결정하였지만 이 마을 농업에서 이러한 임금을 주고 남자 노동력을 고용하는 경우는 없다.

표 3-11 농업임료금의 변화

		1985	1988	1991	1994
농업노임(천원/일)	남자	5	10	25	40
	여자 모내기(A)	5	8	15	20
	여자 밭일	3	4	8	15
농기계 임작업료 (천원/200평)	이앙(B): 작업만	n.a	10	13	15
	콤바인 수확	n.a	10	20	25
	논 경운	5	5	7	10
	방제 1회	0.5	1	2	3
노임의 상대 가격 (A/B) * 100 %		-	80	100	133

* 식사, 담배 등의 현물지불액은 포함하지 않은 것임. 현물 지불액은 대체로 현금지급액의 30-40 %로 평가됨

**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논은 임작업료는 20-30% 할증함.

이들과 별도로 50-60대 9가구가 별도의 모내기 작업단을 만들어 자경지의 모내기 작업을 한 사례도 있다. 이들 모내기 작업반은 마을 내부의 노동력 이질화로 품앗이 체계가 붕괴되면서 나타난 과도적 형태로서 임작업을 목적으로 한 청부작업반과는 구별된다. 이들은 이앙작업의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1988년의 작업을 끝으로 해체되었다.

<표 3-11>에서 전반적으로 기계임작업료에 대한 농업노임의 상대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이것이 기계화를 촉진한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증촌마을에서 1988-94년 간 기계임작업료는 대략 2~2.5배 가량 인상되었는데 농업노임은 2.5~4배나 상승하였다. 농업노임은 특히 1988-91년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여 도시 비농업부문에서의 임금상승과 시기를 같이 하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중 농가의 농산물 판매가격은 쌀값이 60% 오르는 등 평균 68% 상승하여 농가의 노동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거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임료금 변화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 두드러진 것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남자 임금의 상승폭이 커 여자노임과의 차이를 넓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농촌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공통된 현상이지만, 특히 그동안 동족부락의 특성 때문에 노임상승이 억제되던 이 마을에서 남자 임금이 일당 4만원으로 현실화된 것은 경제논리 즉 기회비용의 개념이 보다 강하게 작용하게 되었음을 말해 준다.

한편 여자 노임은 모내기 때는 남자와 같은 수준을 받고 일반 밭일은 그보다 40% 정도 낮아 계절적으로 심한 차이를 보이던 것이 그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이

양작업의 기계화로 이양시 여성노동력 수요가 줄어들고 취업기회의 확대로 여성 노임의 결정에서도 비농업부문 임금수준이 감안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기계임작업에서는 최근 이양기 보급의 확대로 이양작업료의 상승률이 낮은 반면, 농민들이 하기를 꺼리는 방제작업료는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6. 농업경영실태

6.1. 작목구성과 작부체계

증촌마을은 대도시 근교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원예, 낙농, 축산, 과수농업의 발달이 매우 늦어 근교농업적 특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는데, 조사기간중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어 1994년에는 거의 미곡단작농업 형태를 보여 준다. 즉 농가호수의 대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곡면적은 9% 정도 감소한데 그친 반면, 산전(임야 개간발)의 유희지화로 다른 작목의 면적이 크게 줄어 미곡의 식부면적 비율은 68.5%에서 89.1%로 늘어났다. 그 결과 수치상의 상업화를 증가에도 불구하고 참깨, 담배 등 특용작물과 노지채소, 두류 등 여타 모든 작목의 면적이 감소하거나 없어져 상업적 작목 선택이란 점에서는 후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담리작으로 5천~7천평씩 재배되어 중요한 소득원이던 마늘은 1986/87년 경지

표 3-12 작목별 식부면적

단위: 평

	1985	1988	1991	1994	'94/'85
미곡	66,111	66,459	66,537	60,349	0.91
맥류·잡곡·서류	1,510	850	425	-	0
두류	9,260	9,016	5,490	2,753	0.30
시설채소	-	-	-	-	-
노지채소	11,665	6,545	2,540	1,720	0.15
참깨, 들깨	6,298	5,293	4,288	2,806	0.45
담배	1,600	1,000	1,000	-	0
기타 특용작물	-	-	-	100	-
계	96,444	89,163	80,280	67,728	0.70
경지이용률	108.1	100.8	102.2	98.9	-

정리 후 농지의 배수조건이 나빠져 재배가 차츰 줄다가 1994년에는 완전히 사라졌으며, 과수로는 유일하게 300평 있던 포도원도 관리가 부실하다가 1991년에는 중단되었다.

축산을 보면 한우 1~5마리를 사육하는 부업적 사육농가가 1985년 36호(총 69마리 사육)에서 1994년에는 12호(21두 사육)로 감소하였다. 양돈은 1985년에는 2호가 80두를 공동으로 사육하였는데 1986년 돈(豚)콜레라 발생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한 농가가 탈퇴한 후 다른 농가가 남아 경영을 계속하다가 최근에 120두로 규모를 늘렸다. 이 농가는 1994년에 한우도 20마리 입식하였는데 앞으로 사육규모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중촌마을의 농업발달이 뒤쳐진 것은 다음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호당 경지면적이 작아 원래 자급 위주의 영농을 해 온 점이다.

둘째, 밭이 대부분 문중산의 기슭을 개간한 경사지로서 필지당 면적이 작고 토양이 척박하며 관수가 어려워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시설원예나 특용작물의 재배가 어려웠던 점이다. 이 경사전에서는 자급용 두류와 노지채소를 재배해 왔으나 최근 노동력 부족으로 그나마 경작이 포기되는 면적이 많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셋째, 대전과의 교통이 편리해진 것은 최근의 일로 그 전에는 상업적 영농을 하더라도 시장성이 불리했던 점이다. 예를 들어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1983-84년 복합영농의 일환으로 4호가 시설원예를 하다 실패한 것은 농사기술 수준이 낮았던 점도 있지만 규모가 적어 수집상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대전에 출하해야 하는 제약이 작용했던 때문이다.

넷째, 동족부락으로서 진취성이 떨어져 적극적 기술도입의사를 가진 계층이 적었던 것도 중요한 사회적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낙후된 농업은 조사기간중 마을이 대전시로 편입되고 교통이 편리해진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극복되지 않고, 주민들은 오히려 비농업부문에 취업을 강화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역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 마을이 근교지대의 특성을 살려 상업적 농업을 발전시킬 가능성은 크게 제약된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의 영농 형태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상업화율을 들 수 있다.⁴ 중촌마을의

⁴ 조사마을의 상업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1994년에는 작목별 생산량(액)과 판매량(액)을 조사하여 상품화율을 계산하였으나 이와 비교할 1985년의 자료는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목별 식부면적을 사용하여 상업화율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1985년도의 상업화율은 설문조사를 통해 작목별 식부면적을 자가소비용과 지대지불용, 판매용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후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이는 작목별 토지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면적만을 계산한 것이므로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높은 시설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가의 상업화율은 과소평가되었을 것이다.

1994년 경종부문 상업화율은 40.3%로 1985년에 비해 약간 상승하였지만 다른 세 마을이나 전국 평균치에 비하면 매우 낮다. 더구나 증촌마을의 상업화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작목의 선택이라는 적극적 상업화가 아니라, 자급용 식량작물을 재배하여 자가소비분을 제외하고 판매하는 소극적·사후적 상업화라 할 수 있다. 즉 이 마을에서 상업화율의 상승은 농가 가구원수의 감소로 자가소비분이 줄어들어 판매량이 늘어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증촌마을에서는 기계화를 제외하고는 재배기술의 특별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벼 직파재배나 비닐하우스 도입 등 부근 지역에서 일반화된 기술도 도입되지 않아 농업기술면에서 낙후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농가의 농산물 판매액 분포를 보면 33호(86.8%)의 농가가 연간 500만원 미만을 판매하고 있으며, 연간 1,000만원 이상을 판매한 농가는 3호에 불과하다.

표 3-13 상업화율의 변화

구 분		1985	1994
경종 상업화율별 농가수*	25% 미만	23	12
	25 - 50	10	10
	50 - 75	12	10
	75% 이상	2	5
	계	47	37
평균 경종 상업화율		35.9	40.3
전체 상업화율		-	49.2

* 경종 상업화율에서는 축산농가등 경종의 농가는 제외함.

** 마을 평균상업화율은 개별 농가의 상업화율을 산술평균한 것임.

표 3-14 농산물 판매액별 농가호수

단위: 호

판매액	250만원 미만	250 - 500	500 - 1,000	1,000 - 1,500	1,500 - 2,000	2,000만원 이상	계
농가수	24	9	2	1	2	-	38

6.2. 경영성과 분석(1994년)

농가의 경영성과 즉 농업조수입과 소득분석은 기장조사를 하지 않는 이 조사연구의 한계 때문에 원래의 연구설계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가 1994년도에 처음 실시하였다.

먼저 농업조수입은 작목별 생산량과 자가소비량, 판매량(액)을 조사하고, 축산부분은 당년 증체분(增體分)을 추정하거나 송아지 판매액을 조사하여 계산하였다.

농업경영비에서 물재비용은 농촌진흥청의 표준소득자료 중 단위면적당 투입액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고용노동량과 지불지대는 실제 조사결과를 이용하였다.

충촌마을의 총 농업 조수입은 21,789만원으로 이 중 수도작이 11,329만원(52.0%)로 가장 많고, 다음이 비옥우 4,615만원(21.2%), 양돈 4,170만원(19.1%), 고추 1,071만원(4.9%)이며 기타 들깨, 감, 콩, 마늘 등이 각각 1% 미만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호당 평균 농업조수입은 573만원이며, 평균 농업소득은 339만이다. 이러한 농업소득 규모는 전국 통계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는 조사마을에 영세한 규모의 농가가 다수 집적되어 있으며 겸업농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⁵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에서는 평균적 농업소득 수준보다는 개별 농가들의 소득분포와 소득수준별 농가들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

기존의 분석에서 농가의 농업소득 수준은 보통 경영규모의 차이로 설명되어 왔고 정부의 공식 통계도 농지의 경작규모별로 소득을 발표하여 왔다. 그러나 축산, 시설원예의 비중이 점차 커져 농지가 경영규모를 정확히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차치하고 보더라도 이러한 접근방법은 일종의 동어반복으로서 분석결과가 설명하는 내용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 분석에서는 농가의 경제활동의 크기와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경영주의 연령으로 대표되는 농촌가족의 가족주기상의 위치와, 경영주가 농업과 비농업 어느 쪽의 경제활동에 주력하고 있는가의 두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가정하고 그룹별로 소득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충촌마을에서의 1994년 농업소득 분포를 보면 연간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농가가 18

⁵ 1994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전국 평균 농업소득은 1,032.5만원으로 본 조사연구의 사례마을과 큰 격차를 보인다. 그 원인은 사례마을의 농가들이 전국 평균보다 더 노령화되고 영세하다는 특성 외에도 이 조사연구에서 생산량 특히 채소, 잡곡 등의 자가소비량이 과소 계상되었을 가능성에 있다고 본다. 한편 정부의 농가경제조사의 표본이 상향 偏倚된 점, 조사방법에서 경영비가 과소평가되는 점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는 점도 지적해 둔다.

호, 250~500만원이 15호로 대다수 농가가 500만원 미만의 낮은 농업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경영주가 60세 이상이거나 비농업부문에 주로 종사하는 농가로서 이들을 포함한 평균 농업소득은 그 의미를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표 3-15 농업수입과 소득

단위: 만원

	마을 전체	호당평균
농업조수입	21,789	573
그중 판매액	16,252	428
농업경영비	8,899	234
농업소득	12,890	339

표 3-16 경영주 취업상태·연령별 농업소득

단위: 호(%)

경영주 농업소득	계	농업 전업 또는 농업이 주				비농업이 주
		-49	50-59	60 이상	소 계	
250만원 미만	18 (47.4)	-	1	8	9	9
250 - 500	15 (39.5)	-	2	6	8	7
500 - 750	3 (13.5)	1	2	-	3	-
750 - 1,000	1 (12.6)	1	-	-	1	-
1,000 - 1,500	-	-	-	-	-	-
1,500 - 2,000	-	-	-	-	-	-
2,000만원 이상	1 (2.6)	1	-	-	1	-
계	38 (100.0)	3	5	14	22	16
평균농업소득	339	1,286	424	245	417	232
평균농외소득	545	1,000	237	174	233	974
평균농가소득	884	2,286	661	419	650	1,270

표 3-17 A농가의 경영성과

품 목	규 모	생산량(액)	판매량	조수입	비 용	소 득
수 도	1,000평	15가마	없음	170	44	126
감	500평	150만원	150	-		150
비육우	31두	1,600만원	1,600	800	800	
양 돈	120두	4,170만원	4,170	3,038	1,032	
계			5,920만원	6,090만원	3,882만원	2,108만원

반면 경영주가 40대와 50대이면서 농업에 전업적으로 종사하는 농가들은 비교적 높은 농업소득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마을에서 농업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농가는 1호에 불과하다. 그 다음으로 농업소득이 많은 농가는 기계작업자인데 농업소득 832만원에 기계임작업소득 700만원을 더하면 사실상 농업관련소득이 1,500만원을 넘는다. 이들의 성장과정과 경영주 인적사항, 영농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보기로 한다.

이들 두 농가는 모두 40대의 젊은 가구로서 1호는 양돈을 주로 하고 1호는 수도작과 기계임작업을 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다..

양돈을 하는 A농가는 소규모 자작농 출신으로 영농을 처음 시작할 때의 규모는 작았지만 시설원예나 축산을 통하여 꾸준히 규모를 확대한 대표적 경우이다. 1985년도에는 34세로 경지 2,357평을 소유·경작하면서, 이웃 동년배와 함께 모돈 8두 내외로 소규모 양돈을 공동경영하였다. 그러다가 1986년에 돈콜레라가 발생하여 상당한 손해를 보았는데 동업을 하던 친구가 탈락하고 혼자 경영하게 되었다. 이 농가는 경영주가 38세 되던 1989년 대전으로 이주하여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경영주만 마을로 출퇴근하며 양돈을 계속하였다(야간에는 마을에 사는 모친이 관리하였음). 정육점 운영에서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한 것으로 보이며 1994년에 축산을 전업적으로 하기 위해 부인과 다시 마을에 전입하였으며 정육점은 처분하였다. 1994년의 영농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로 양돈과 비육우로 소득을 얻고 있으며 수도작은 자급용 정도만 재배한다. 한편 이 농가는 1994년에 부인이 정육점 운영에서 3,000만원의 소득을 올려 마을내 최고소득자가 되었다. A 농가의 농업경영 형태를 보면, 영농의욕과 기술수준이 높은 편이나 위험이 따르는 대규모 투자나 급격한 규모확대는 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 경영을 꾀한 것이 특징이다.

수도작과 기계 임작업을 주로 하는 B농가는 29세 되던 1979년에 부모로부터 1.200여평의 논을 증여받아 분가하면서 영농을 시작하였다. 이촌한 형이 소유한 논 외에 몇 사람의 농지를 임차하여 대략 4,000평 내외의 규모로 영농을 해 왔다. 가끔 주변 공사장에 막일을 다니기도 하였으나 연간 10여일 정도이고 주로 농사일에만 전념하여 왔다. 1983년에는 경운기를 구입하였으며, 1989년에는 콤바인을, 1991년에는 이앙기와 트랙터를 구입하여 자가영농 외에 마을내 농지의 50% 가량을 맡아 작업을 하고 있다. 1994년에는 자기 논 1,248평 외에 논 3,400평, 밭 400평을 임차하여 농사를 지어 농업소득 832만원을 올렸다. 기계 임작업은 경운·정지 40,000평, 이앙 36,000평, 수확 50,000평을 하여 비용을 제외하고 700만원의 기계작업소득을 올렸다.

7. 비농업 경제활동

본장 첫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촌마을의 조사기간중 비농업취업자수는 급증하고 있다.

증촌마을의 비농업취업자수가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대전 시내로의 교통여건이 좋아진데 연유한다. 도로포장, 시내버스의 증차로 대전으로의 통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마을에 거주하는 영농종사자가 새로 취업한 경우도 있지만, 외지에 진출해 취업해 있던 가구원이 귀향한 경우, 타지 비농업가구가 전입한 경우,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 취업하는 젊은 가구원이 이촌하지 않고 마을에 거주하면서 취업한 경우도 있다.

비농업활동의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직영하는 소규모 자영사업 취업자는 4명에서 7명으로 소폭 증가한데 비해 피고용취업은 6명에서 33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직종별로는 공장 생산직과 서비스업(피고용 또는 자영) 종사자 증가가 가장 두드러

표 3-18 비농업 취업 직종

단위: 명

		1985	1994					평균소득
			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피고용 취업	공무원, 교사, 농협 등	1	7	3	-	3	1	1,345
	회사 사무직	-	2	2	-	-	-	660
	공장 생산직	1	6	2	-	-	4	585
	경비원, 택시 등 서비스업	-	6	2	-	-	4	476
	미장, 일용 건설노동	4	12	1	1	8	2	550
	소 계	6	33	10	1	11	11	713
자영 사업	식품소매업	1	1	-	1	-	-	1,000
	기타 상업	-	-	-	-	-	-	-
	제조업(모두 임금공임)	2	1	-	1	-	-	300
	도정업	1	1	-	-	-	1	150
	용역, 서비스업	-	4	1	2	-	1	450
	소 계	4	7	1	4	-	2	507
계		10	40	11	5	11	13	677

지며 단청일은 아직 가장 중요한 취업처로서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밖에 주변 도시에 신설되는 공장이나 아파트의 경비원은 2교대 근무로 영농을 하면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4명이 신규 취업하였다.

자영업으로는 마을내의 소규모 잡화가게와 가내임가공은 쇠퇴하고 대신 주변 도시에 서 학원이나 세탁소를 경영하는 경우가 늘어나 농외취업처의 공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 취업처의 공간분포를 보면 마을내가 3명, 기성동(옛 면 지역)이 15명, 대전시나 인근 도시가 15명, 전북 정읍이 1명, 기타 단청일이나 건축노동처럼 장기간에 걸쳐 외지에 출타하여 취업한 경우가 6명이다.

업종의 변화와 함께 고용의 안정성도 높아져 피고용취업자 33명 중 21명(63.6%)이 상시취업자이다.

제 4 장

사회구조의 변화

1. 사회집단의 변화

농촌의 사회집단은 구분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지만(김대환 1975; 김영모 1975; 김일철 1975; 김주숙 1991; Sanders 1977; 정기환 1988; 정지웅 1984; 최재석 1988; 홍동식 1988), 이 연구에서는 Sanders(1977), 김영모(1975) 등의 분류방법에 입각해서 농촌마을의 사회집단을 血緣集團, 地緣集團(지역집단), 利益集團으로 분류해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표 4-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도시 근교마을인 증촌마을의 사회집단의 수는 1986년의 25개에서 1994년에는 16개로 9개가 감소했다. 血緣集團 및 地緣集團은 각각 1개씩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익집단은 1986년의 23개에서 1994년에는 14개로 9개가 감소했다. 즉, 경제적 이익집단은 1986년의 5개에서 1994년에는 1개로 4개가 감소했고, 사회적 이익집단은 1986년의 18개에서 1994년에는 13개로 5개가 감소했다.

1.1. 혈연집단

혈연집단은 가족, 혈족과 같은 혈연적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집단이다. 혈연집단의 대표적인 것은 門中契를 들 수 있다. 문중계는 동일한 조상에 대한 제사를 공동 집

전하기 위한 조직이다. 즉, 문중계는 조상의 묘역과 문중의 공동재산을 관리하며, 문중의 친목과 공동 관심사를 협의·조정하는 활동을 한다.

증촌마을의 혈연집단으로는 茂松 庾氏 문중계가 있다. 무송 유씨 문중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은 없다. 그런데 현존하는 문중계는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茂松 庾氏 진잠과 雄字의 후손들이 坪村 3리에 모여 살면서 조직한 것이다. 증촌마을의 무송 유씨 문중계는 大宗中, 中宗中이 각각 1개씩 조직되어 있고 小宗中은 2개로 나누어져 있다. 대종중은 炳자의 14代祖 이하의 후손으로 구성되고, 중종중은 炳자의 10대조 이하의 후손으로 구성된다. 또한 소종중은 炳자의 7代祖 이하의 후손으로 구성된다(정기환 외 1989). 1994년 말 현재 무송 유씨 문중계(대종중)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증촌부락 거주자 43명, 五里와 대전, 서울 등지에 거주하는 사람 40명을 포함해서 약 80여명으로 1986-1994년간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증촌부락에 거주하는 무송 유씨 가구가 6가구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중계의 전체 회원수가 그대로인 것은 계원의 사망시에 가족이 승계하고, 이혼자들도 회원권을 계속 보유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무송 유씨 문중계의 기구는 宗孫, 門長, 公事員을 들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종손은 문중의 적장자로 승계되며 종중별로 종손의 계보가 형성된다. 종손은 문중을 대표하고 사회·경제적 면에서 支孫과 달리 우대를 받으며 종중의 의사결정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오늘날에 와서 종손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낮아졌지만 아직도 형식상으로는 종회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며 문중 소유의 재산권에도 대표자가 된다. 무송 유씨의 경우, 대종중과 중종중의 종손의 혈통이 승계되지 않고 있으며 소종중의 종손도 모두 마을 밖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하여 문중계의 운영은 문장과 공사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4-1 증촌마을의 사회집단 현황

단위: 개수

구 분	1986년	1994년
혈연집단	1 (무송 유씨 문중계)	1 (무송 유씨 문중계)
지연집단	1 (행정부락)	1 (행정부락)
이익집단*		
경제적	5	1 (1)
사회적	18	13 (1)
합 계	25	16 (2)

* () 안은 유명무실한 사회집단의 수임.

門長은 문중에서 行列이 가장 높은 사람 중에서 최고 연장자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門長은 실질적으로 문중계를 대표하는 원로의 역할을 하며 종회 등의 각종 회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제례에 있어서도 종손 다음의 지위를 갖는다.

공사원은 종회에서 선출하는데 종토폐리, 묘제의 준비, 종회의 개최, 각종 기록 및 문서의 보관 등 문중계의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공사원은 종회에서 선출되는 두 사람의 유사의 보조를 받아 종회업무를 꾸려 나간다.

시제와 종회는 문중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이다. 문중계의 모임은 시제를 전후해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門長은 공사원과 유사와 함께 시제에 소요되는 제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다. 무송 유씨 문중계의 시제는 종중별로 음력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 동안에 先代에서 後代의 順으로 지낸다. 시제에는 종손이 참석하여 제를 주재하고 초헌을 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종손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문장이 제를 주재하고 초헌자가 된다. 공사원은 시제의 제반 진행을 담당한다.

宗會는 시제가 완료된 다음에 정해진 날짜에 갖는다. 즉, 대종중의 종회는 음력 10월 30일에, 중종중의 종회는 11월 1일에, 소종중의 종회는 소종중별로 각각 11월 3일에 별도로 갖는다. 종회에서는 시제에 소요된 경비를 정산하고, 묘역관리와 기타 종회업무에 관한 공사원의 보고 및 토론이 이루어지고, 종중의 재산관리, 종회활동 등의 사항을 논의하고, 차기의 공사원과 유사 등을 선출한다.

무송 유씨 문중계는 시제나 종회 이외에도 묘역관리, 종토폐리 등을 위해서 수시로 종중별로 모임을 가지며, 의사결정은 구성원들의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종손이나 문장, 그리고 종중의 원로들의 의견이 존중된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문중계의 실무 협의는 공사원과 문장 및 문중 원로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문중계의 유지와 운영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경비는 종중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종중 구성원의 추가적인 경비부담은 거의 없다. 증촌의 무송 유씨들은 문중이 소유한 토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곤궁한 구성원은 낮은 임차료로 종중토를 경작하고 있으며 문중소유의 임야에는 소나무와 낙엽송을 조림하여 경제림으로 육성하고 있다.

무송 유씨 문중계는 문서화된 규범과 이를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제재 등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문중 구성원간의 서열의식과 강한 혈연적 유대로 인해 문중의 질서는 비교적 잘 유지되어 왔다.

요컨대, 무송 유씨 문중계는 목적, 기구, 회의 및 의사결정, 경비의 부담, 규범과 통제

등에 있어서 그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문중계 소유의 공동재산 현황에는 변동이 있었다. 대중중의 경우에는, 문중재산(논 1,200평, 대지 1,055평)을 2억 8천만원에 매각하여 제각을 건립하는데 2억 1천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농협에 예치했다고 한다. 1994년말 현재, 대중중의 재산은 임야 100ha, 논 9,500평, 밭 3,550평, 기금 9,000만원이다. 중중중의 재산은 논 4,000평, 밭 1,000평, 대지 300평이고, 소중중(갑)의 재산은 논 1,200평, 밭 600평이며, 소중중(을)의 재산은 논 4,000평, 밭 2,000평, 대지 90평, 기금 100만원이다. 계기금의 관리는 계원들에게 빌려주는 방식에서 농협이나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1.2. 자연집단

地緣集團은 자연적인 지리적 조건에 의하여 형성되는 사회집단이다. 증촌마을에 조직된 대표적인 자연집단은 行政里와 大洞契이다.

증촌마을은 충남 대덕군 기성면 평촌3리로 지칭되다가 1989년 1월 1일자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대전직할시 기성동 13통으로 개칭되었다. 자연집단으로서 증촌은 1989년 1월 1일 이전의 기성면 평촌3리의 里行政 구역이다. 증촌마을의 구성원은 1985년의 58가구에서 1994년의 50가구로 8가구가 감소했다. 증촌에 거주하는 가구원은 관할 행정기관에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법적, 행정적으로 완벽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증촌마을은 지역사회행정의 행정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통장을 두고 있으며, 그 아래에 개발위원회와 반장을 두고 있다. 개발위원회는 1972년부터 운영되어 왔는데, 마을개발과 마을행정 수행에 따르는 제반 의사결정등의 참여 등을 통하여 통장을 지원한다. 1994년말 현재 증촌마을의 개발위원회는 통장(새마을지도자를 겸임), 부녀회장, 반장, 마을유지 등의 11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증촌마을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되고 있으며,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 수시로 임시총회 또는 개발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정기총회는 연말에 개최하며 여기에서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의 마을지도자를 선출하고 일년간의 회계결산보고와 신년도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 마을개발 및 주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한다. 마을총회의 의사결정은 합의제가 원칙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투표를 한다.

정부로부터 마을 단위로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예를 들면, 적십자회비, 의연금, 지원금 등)은 각 가구의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통장이 부과하고 있다. 이 때 생활보호대상자는 부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대동계는 상부상조, 마을 공동행사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공동신앙의 집전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지연집단이다. 대동계는 행정리의 마을회의 또는 개발위원회와 실제적 역할에 있어서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대동계는 자생적 집단이고, 주요 기능이 마을의 사회적 협동과 공동신앙의 집전 등에 인데 반해서 행정리는 비자생적 집단이며 주된 기능이 자치행정이다. 증촌부락은 여전히 대동계와 같은 지연집단이 없으며 공동체적 성격을 갖는 喪事契인 명륜계가 지연집단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

1.3. 이익집단

이익집단은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증촌마을에 조직되어 있는 경제적 이익집단으로는 수리게, 마을금고, 저축계, 새마을영농회가 있으며, 사회적 이익집단으로는 喪事 관련 契, 婚事 관련 契, 친목 관련 契, 새마을부녀회, 노인회가 있다.

1.3.1. 경제적 이익집단

가. 水利契

증촌마을의 수리게는 일명 增村湫라고 부르며 마을 앞을 흐르는 별곡천의 물을 이용하여 증촌뜰의 논에 관수하기 위하여 湫를 만들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농민들의 자생적 집단이다. 증촌보의 구성원은 湫의 물리구역내에 경지를 갖고 있는 경작자들로 구성된다. 1986년 이전까지 증촌보는 증촌마을에 거주하면서 보의 물리구역내에 경지를 갖고 있는 농민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86/87년의 경지정리사업으로 물리구역이 늘어나 증촌과 五里의 주민 13호가 포함되어 56호의 농민으로 구성되었으며, 1994년말 현재 62호의 농민이 참여하고 있다. 증촌보의 물리면적은 1986년의 230두락에서 1994년에는 320두락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신규 참여자가 생겼고 밭을 논으로 변경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증촌보의 내부 기구로는 계장, 부계장, 총무, 감사가 있다. 계장은 湫主라고도 불리며 수리게를 대표하고 계무를 총괄하는데, 현재 계장직은 통장이 겸임하고 있다. 그런데 계장직은 명예직에 가깝고 실무는 부계장과 총무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부계장(2인)은 하보주라고도 부르며 계장을 보좌하고 계장의 유고시에 그를 대신하여 계의 일을 총괄한다. 부계장은 수리게의 작업계획 수립 및 이의 추진과 계원간의 연락 등을 담당한다. 총무는 보의 운영에 관한 각종 서류의 처리와 회계를 담당한다. 감사는 수리게의 운영

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및 회계감사를 담당한다. 수리계의 임원들의 임기는 1년이다.

수리계의 정기회의는 연1회 꽃보막이라는 이름으로 3월말경에 보막이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수리계의 의사결정은 합의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 계장의 선출은 전형위원회에 의해서 후보자를 세우고 투표로 결정한다. 부계장 이하 총무 및 감사는 계원들의 구두 추천과 전체 계원들의 동의를 얻어 계장이 임명한다.

증촌마을 수리계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몽리구역내에 있는 경작지의 면적에 비례해서 농민들에게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수리세로 충당한다. 즉, 각 농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는 수리계의 연중 총예산액을 경지면적 비율로 나눈 금액이다.

수리계의 연간 예산액은 1986년에는 약 14만원 이었는데 1994년에는 약 60만원 정도였다. 그리고 몽리구역의 모든 계원들은 1986년에는 두락당 600원씩의 수리세를 부담하였는데 1994년에는 두락당 2,500원씩의 수리세를 부담하였다.

수리계의 공동재산은 湫 이외에는 없다. 그러나 새로 가입하는 계원들에게는 入湫金으로 두락당 20,000원씩을 징수하고 있다. 入湫金은 湫의 개·보수 또는 새로운 수리시설물의 설치 등에 사용하고 있다.

공동 보막이와 물관리는 수리계 운영의 핵심이 된다. 그리하여 보막이와 물관리에는 엄격한 규범이 적용되고 이를 어기는 계원에게는 벌과금이 부과된다. 보막이에 동원되는 노동력은 계원들의 경작면적에 비례해서 결정된다. 1990년 이후로는 보막이 작업시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수로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공동작업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포크레인을 이용한 보막이작업에는 불참자들에게는 10,000원의 벌금(잠시 실시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벌금액수가 적음)을 부과한다. 물대기에 관련된 규정은 여전히 매우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마을금고

마을금고는 마을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3년에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조직되었다. 증촌마을의 마을금고는 집행부로 이사장과 6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및 감사를 두고 있었다. 1986년말 현재로 회원수 58명, 총자산액 13,927,690원이던 증촌마을의 마을금고는 시중 금융기관의 낮은 대출 이자율에 밀려 1990년에 해체되었다. 마을금고의 예탁금은 대략 90%는 농협으로, 그리고 10%는 시중 은행으로 유출되었다고 한다.

다. 저축계

저축계는 주로 부녀자들이 조직하여 운영하는契로서 전통적인 계에 현대화된 제도 금융의 특성을 가미하여 조직한 것이다. 저축계의 조직목적은 계 활동을 통해서 저축을 장려하고 회원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증촌마을의 저축계는 2개가 조직되어 있었다. 저축계A는 1983년에 13명의 주부들이 모여서 조직했는데 계의 규모는 매월 2,000원씩 저축하는 것이었고 저축계B는 1985년에 17명의 주부들이 모여서 조직했는데 계의 규모는 매월 1,000원씩 저축하는 것이었다. 저축계의 구성원은 30대 주부가 주축이 되었다. 저축계는 타집단과 달리 계장 등 임원이 없고 매월 모임을 주관하는 유사만을 두었다. 저축계는 계 활동을 위한 특별한 경비를 지출하지 않고 모임에 필요한 음식물이나 음료수 경비는 당월의 유사가 부담한다. 저축계는 경제적 유인의 부족, 회원들의 참여부족 등으로 인해서 1991년에 해체되었다.

라. 새마을영농회

새마을영농회는 농촌진흥청 계통의 농사개량구락부와 농업협동조합에서 육성하던 협동회 및 작목반을 1977년말에 통합하여 만든 것이다(홍동식 1988). 새마을영농회는 농업이 관리하는 마을 단위 농민집단으로 영농의 과학화와 협동화를 실현하고 생산성의 증대와 유통개선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영농회는 이장(통장)이 겸임하는 새마을영농회장만 있을 뿐 회원의 실체는 없는 실정이다. 즉, 새마을영농회는 그 조직이 구조화되지 못하고 실체가 없는 명목상의 집단으로 전락하였다.

1.3.2. 사회적 이익집단

가. 喪事 관련 이익집단

喪事 관련 이익집단은 부모의 親喪이나 장인, 장모 등 연고자에 대한 喪을 당했을 때 경제적, 사회적 협동을 통하여 喪禮를 갖추기 위한 집단으로 대부분 契의 형태를 취한다. 상사 관련 이익집단은 공동체적 성격을 갖는 喪事契와 또래집단적 성격을 갖는 喪事契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동체적 성격을 갖는 상사계는 마을 전체 주민을 성원으로 구성하고 喪事を 마을 전

체 주민의 喪事로 간주하여 공동 대처하는 계를 말하는데 증촌마을의 명륜계가 있다.

증촌마을의 명륜계는 신분제가 붕괴되고 자유주의와 평등사상이 확산되면서 마을의 지배적 씨족인 무송 유씨와 기타 성씨간에 갈등이 표출되면서 喪事와 같은 마을의 중요한 일에 대한 상호협동의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위계적 질서를 버리고 보다 평등적인 입장에서 마을 喪事に 공동체적인 의무감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946년에 조직되었다. 명륜계의 구성원은 마을을 구성하는 각 가구의 가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명륜계의 기구는 계장, 부계장(2명), 총무, 재무로 구성된다. 명륜계는 매년 음력 11월 10을 계날로 정하고 있다. 명륜계의 의사결정방법은 합의제이다. 계장과 부계장은 연령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맡는다. 총무와 재무는 계원들의 추천 및 동의를 얻어 계장이 임명한다. 증촌마을의 명륜계는 1986년에 회원수가 71명이고 기금이 91,800원이던 것이 1994년말 현재 회원수가 57명이고 기금이 30만원 가량이라고 하며 그 간에 신규가입은 없었다고 한다. 명륜계는 계원들의 喪事に 공동체적 연대감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규범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또래집단적 喪事契는 마을이라는 대면적인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친밀한 상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또래들이 공통적으로 닥쳐오는 親喪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친목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사회집단이다. 또래집단적 상사계는 그 명칭이 다양하나 크게 爲親契, 喪布契, 술통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증촌마을의 또래집단적 상사계로는 위친계, 장수위친계, 친목위친계, 위친상포계 등의 명칭으로 조직되어 있다(표 5-2 참조).

표 4-2 증촌마을의 또래집단적 喪事契의 현황

집단명	설립연도	집단의 성	구성원수		보좌조건
			1986년	1994년	
위친계A	1958	남	21	해체됨	쌀 10말, 노력지원
위친계B	1958	남	28	"	"
장수위친계A	1966	남	23	"	"
장수위친계B	1966	남	23	"	"
친목위친계	1971	남	19	"	"
위친상포계A	1963	여	19	19	쌀 10말
위친상포계B	1963	여	23	22	"
위친상포계C	1963	여	21	20	"
위친상포계D	1963	여	27	27	"

또래집단적 상사계는 주로 마을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원들의 연령차이는 10~20세 이내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또래집단적 상사계는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는 명륜계와는 달리 계원수가 평균 20명여명이며 구성원들간의 친목과 유대가 강하다. 계원은 사망, 탈퇴 등으로 계원자격을 상실하지만 추가적인 계원의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래집단적 상사계들은 집단의 응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확한 규범과 강력한 통제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표 4-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남성들의 또래집단적 喪事契 5개가 그간에 없어졌다. 이것은 고령화, 사망 등으로 인해서 계의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들의 또래집단적 상사계인 위친상포계는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나. 婚事 관련 이익집단

婚事 관련 이익집단은 주로 婚事契의 형태로 나타난다. 혼사계는 나이찬 자녀를 둔 부모 특히 주부들 사이에 조직되며 자녀들의 결혼시에 경제적, 사회적 협동을 위하여 조직된다.

증촌마을의 혼사계는 결혼계라는 이름으로 2개가 있었다. 즉 결혼계A는 1965년에 조직되었고, 1986년에 계원수가 20명이었으며, 결혼계B는 1970년에 조직되었고 계원수가 19명이었다. 보좌조건은 두 결혼계 모두 쌀1가마였다. 그러나 증촌마을의 결혼계는 그간에 모두 순번을 채워 해체되었으며 그 뒤 새롭게 조직된 것이 없다.

다. 친목 관련 이익집단

친목 관련 이익집단으로는 친목계, 동갑계, 놀이계 등의 각종 契가 있다. 친목계의 특성은 契가 정한 특정한 보좌대상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조직의 목적이 계원들 자신이라는 점에서 다른 계와 구별된다. 친목계의 구성원은 대개는 또래들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친목계는 또래 이외에도 직업, 취미, 사회활동 등에서 동질성을 갖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면서 구성되기도 한다. 동갑계는 출생연도가 같은 동갑끼리의 집단이므로 구성원들의 연령이 같다. 놀이계는 관광계라고 불리워지기도 하는데 주로 부녀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그 조직의 주된 목적이 관광이나 봄, 가을의 들놀이 등이다. 친목 관련 契 중에서 그 구성원의 자격을 개방하는 개방성의 순서는 놀이계, 친목계, 동갑계 順이다.

<표 4-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증촌마을의 경우, 남성 친목계 2개(친목계A 및

친목계B)와 여성 친목계 1개(경사친목계), 그리고 혼성 동갑계 1개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남성 친목계 1개(친목계C)는 소멸되었다. 친목계A는 이웃부락 동창 10명이 합세하여 구성원수가 21명으로 늘어났고 보좌조건도 “경사시 쌀1가마”에서 “경사시 5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놀이계가 새로 3개가 생겼는데 놀이계 A는 30-40대의 여자 초등학교 동창들을 중심으로 1989년에 조직되어 1994년말 현재 회원수가 12명이고 1인당 매월 1만원씩 회비를 내어 저축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제주도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계B는 주로 40-50대의 부인들이 1993년에 조직했으며 1인당 매월 5,000원씩 회비를 내어 저축하고 있으며 1994년말 현재 회원수가 40명으로 나타났다. 놀이계 C는 60대 이상의 여자노인들이 1988년에 조직하여 1인당 매월 3,000원씩 회비를 내어 저축을 하고 있으며 주로 마을 근처의 명승지로 놀이를 다녀왔다고 하며 1994년말 현재 회원수가 9명으로 나타났다.

라.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부녀회는 1977년 7월 8일 국무총리 훈령 제141호에 의거 전국적으로 기존의 마을 단위 여성 사회집단들을 통합하여 조직하였다. 새마을부녀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등의 임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임원들의 역할은 새마을부녀회의 활동이 저조하여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새마을부녀회장은 농협, 농촌지도소, 면사무소 등으로부터 업무연락 등의 필요에 의해서 접촉하고 있어 대외적인 활동이 약간 드러나고 있다. 새마을부녀회의 회원은 마을에 거주하는 20-60세의 부녀자들로 구성되어 있으

표 4-3 증촌마을의 친목 관련 이익집단의 현황

집단명	설립연도	집단의 성	구성원수		보좌조건
			1986	1994	
친목계A	1968	남	11	21	경사시 50만원
친목계B	1969	남	10	10	애경사시 쌀1가마
친목계C	1970	남	6	해체됨	-
동갑계	1977	혼성	12	12	봄·가을놀이 2회
경사친목계	1983	여	11	11	경사시 쌀1가마
놀이계A	1989	여	-	12	봄·가을놀이
놀이계B	1993	여	-	40	1-2회
놀이계C	1988	여	-	9	"

며, 60세 이상의 부녀자는 명예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다. 회원수는 1994년말 현재 50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들은 새마을부녀회 명단에만 등재되어 있을 뿐 사실상 활동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부녀회의 기금은 1986년에는 30,000원 정도였는데 1994년말 현재로는 약 30만원이 적립되어 있다고 한다.

마. 노인회

노인회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60-64세는 준회원임)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이익집단이다. 노인회의 주된 활동은 노인회관(노인정)의 관리·운영, 관광 등이다.

증촌마을의 경우, 1989년에 노인회가 조직되어 1994년말 현재 회원수가 19명이고 회장과 총무가 있다.⁶ 회장은 9번 가구의 가구주가 맡고 있고 총무는 7번 가구의 가구주가 맡고 있으며 회비로 매월 1인당 1,000원씩 내고 있다. 1992년 8월에 노인회에서 대전시 구청 예산(4,500만원)과 마을재산(대지 90평)을 사용하여 2층짜리 노인정을 건립했다. 노인정은 노인들의 휴식 및 오락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때로는 밥짜기와 같은 부업을 하는 작업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어떤 독지가(스포츠용품업체의 사장)가 노인정 운영비로 매월 10만원씩 보내주었으나 1994년에 들어와서 중단되었다고 한다.

1.4. 마을 밖의 사회집단

마을 안의 사회집단은 감소하는 반면에 마을의 범위를 초월하는 사회집단은 증가하고 있다(신행철 1994). 몇 개 마을이 결합하여 조직되는 사회집단으로는 위친계, 친목계가 대표적이다. 면 단위로 조직되는 대표적인 사회집단으로는 작목반, 소방대계, 초등학교동창회, 농어민후계자회 등이 있다. 군 단위로 조직되는 대표적인 사회집단으로는 종친회, 중·고등학교 동창회, 농민회 등이 있다. 군 단위를 벗어나서 조직되는 대표적인 사회집단으로는 친척계가 있다. 마을의 유지나 전·현직 이장의 경우 일반 주민들에 비해서 마을 밖의 사회집단에 훨씬 더 많이 가입하고 있다. 증촌마을의 지도층 주민의 한 사람인 B씨는 5개의 마을 밖의 사회집단에 가입하고 있었다. 이들 사회집단들은 주로 면 단위 및 군 단위의 각종 위친계 및 친목계들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B씨가 가입하고

⁶ 최근에 65세 이상의 여자 노인들이 따로 모임을 결성했는데 조직적 측면에서 아직 체계화가 덜된 상태임.

있는 “기우계”는 기성동 통장들의 위친·친목 목적의 모임으로서 회원이 22명이라고 한다. 마을 지도층 주민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집단에 중복가입함으로 인해서 수시로 열리는 각종 회의 때문에 영농에 지장이 있다고 토로하는 사람이 많았다.

2. 사회망과 지도력구조의 변화

2.1. 사회망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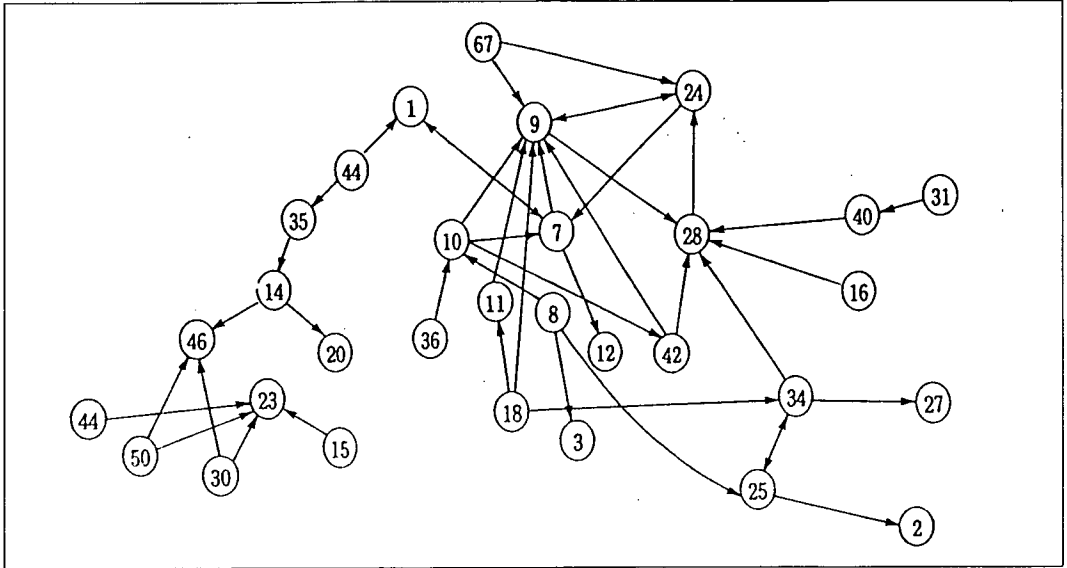
증촌부락의 의사교환망은 1988년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친척들(9번, 28번, 16번, 40번), 또래집단(14번, 15번, 23번, 30번, 46번), 마을의 전·현직 지도자들(7번, 24번, 28번)이 각각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그림4 -1 참조). 지도력의 요건에 있어서는 경제적 지위 보다는 문중내의 지위나 이장과 같은 사회적 지위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의사교환의 사회망은 또래집단 및 전·현직 공식지도자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마을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민주적 방법이 증대하고 있다. 즉,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민 전체의 의견을 존중해야한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마을내 의사결정의 주체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도력구조는 토착적 지도력이 약화되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과 같은 공식 지도자들이 부각되고 있다.

2.2. 지도력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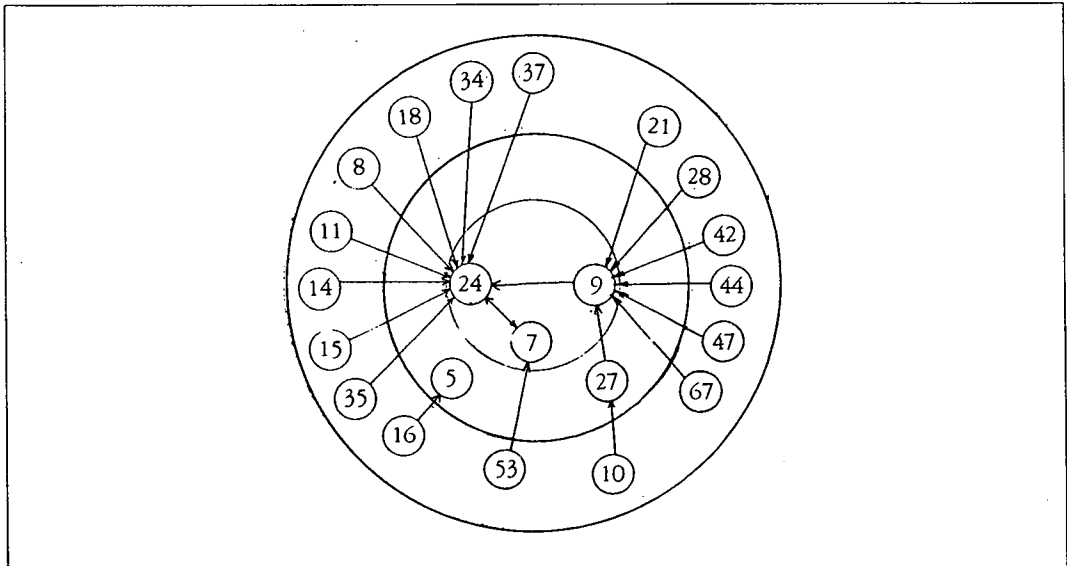
지도력 구조는 9번과 24번이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2 참조). 9번은 연령이 76세이고 국졸이며 중농이지만 대·중·소종중의 공사로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4번(현 통장)에게 전하는 여론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7번은 연령이 71세이고 한학을 했으며 중농으로 현 통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과 비교해 볼 때, 지도력구조에 있어서 28번이 퇴조한 대신에 9번이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 증촌마을의 의사교환망



* 그림에서 숫자는 가구번호를 나타냄.

그림 4-2 증촌마을의 지도력구조



* 그림에서 숫자는 가구번호를 나타냄

3. 종교 및 세시풍속의 변화

3.1. 종교의 변화

<표 4-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증촌마을의 경우, 천주교 및 기타 종교를 신봉하는 가구는 증가했지만 나머지는 다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증촌마을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는 여전히 불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를 신봉하는 가구는 1986년에 46.4%였는데 1994년에도 44.0%나 차지하고 있다.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가구는 1986년에 41.4%였는데 1994년에는 34.0%로 낮아졌다.

기독교 및 천주교 신자들은 매주 1회 이상 교회 및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신자들은 대체로 일년에 4-5회 정도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있으며 성주신, 조상신 등의 家神에게 기원하는 시월고사와 영등제 등을 지내는 가구의 비율이 다른 종교 신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세시풍속의 변화

세시풍속은 많이 약화되었으나 일부는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 증촌부락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세시풍속은 설날, 윷놀이, 경칩먹기, 사월초파일, 추석, 정월대보름 정도로 나타났다. 약화된 세시풍속으로는 춘축(입춘), 한식, 단오, 영등제, 시월고사 등으로 나타났다. 사라진 세시풍속으로는 안택굿, 용왕제, 화전놀이, 백중이 있다.

표 4-4 종교별 가구수의 변화

단위: 가구수

종 교	연 도	
	1986	1994
기 독 교	5 (8.9)	4 (8.0)
천 주 교	0 (0)	2 (4.0)
불 교	26 (46.4)	22 (44.0)
기 타	1 (1.8)	4 (8.0)
무 종 교	23 (41.1)	17 (34.0)
무 응 답	1 (1.8)	1 (2.0)
합 계	56(100.0)	50(100.0)

설날: 설날에는 각 가정별로 4대조까지의 다례를 堂内の 장손집에서 지낸다. 支孫의 조상에 대한 다례는 장손집에서의 제사가 끝난 다음에 支孫별로 별도로 지낸다. 조상의 묘소에 대한 성묘, 집안 및 동네 어른들에 대한 세배, 그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루를 즐기는 것 등의 풍습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안택굿: 정초에 날을 잡아서 판수나 무당을 불러다가 한해동안 집안에 탈이 없도록 터줏신, 조상신 등에게 기원하는 것을 안택굿이라고 한다. 굿이 끝나면 제물은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그러나 이러한 안택굿의 풍습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졌다.

춘축: 춘축이란 입춘날 春聯을 대문이나 장광, 부엌문 등에 써붙이고 송축하는 행사다. 春聯으로는 “入春大吉 建陽多慶” 또는 “雨順風調 時和豐年” 등의 문귀가 많았다. 증촌마을에서는 아직도 7가구 정도가 춘련을 붙이고 있다.

웃놀이: 웃놀이는 정월 보름을 전후해서 적당한 날을 잡아 웃놀이를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루를 즐기는 것을 말한다. 웃놀이는 사전에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이 돈으로 생활용품을 상품으로 정하여 편을 갈라서 논다. 1986년에는 주로 부녀자들이 웃놀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4년의 조사에서는 부녀자들은 노인회관의 실내에서 웃놀이를 하고 남자들은 노인회관 앞의 마당에서 웃놀이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악: 농악은 정월초, 추석 등 큰 명절에 남녀가 함께 즐기는 놀이다. 증촌마을에는 징, 팽과리, 북, 장구 등으로 구성된 풍물이 있어서 전통적으로 농악을 즐겨왔는데 1989년경에 풍물들이 모두 떨어지고 깨어져서 더 이상 농악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사물놀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풍물을 구입하면 농악을 즐기고 싶다는 사람이 많았다.

영등제: 영등제는 음력 이월 초하루날 부녀자들이 부엌이나 장독대에 음식을 차려놓고 風神(영등할머니)에게 기원해서 무병안택과 풍년을 비는 풍신제이다. 영등제는 1994년말 현재 절집에서만 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경칩먹기: 경칩날을 전후해서 마을 근처의 산골짜기의 논이나 개울에서 개구리알을 건져다가 소주에 타 마시는 풍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한식: 寒食은 文公이 介子推의 충심을 몰랐다가 후에야 뉘우치고 고사를 지냈다는 중국 진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전설에서 유래하는 절기 중의 하나이다. 한식에는 술, 과일, 포, 떡, 탕, 적 등의 음식을 차려서 제사를 지낸다. 또한 한식에는 성묘를 하며 제각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있다. 최근 한식날의 제사는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간소화 되었고 지

내는 집도 많이 감소했다.

초파일: 석가모니의 탄신을 경축하는 사월 초파일에는 부녀자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에 있는 화개사를 찾아 불공을 드린다. 초파일에는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치성을 드리러 절을 찾는다.

단오: 오월 단오는 예로부터 큰 명절로 인식되어 조상에 제사를 지내왔으나 1970년대 초부터 단오제사는 사라졌다. 단오는 아직도 명절로 인식은 되고 있지만 그네뛰기와 같은 풍습은 별로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칠석제: 칠석날(음력 초이렛날)은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1년만에 만난다는 전설과 관련되는 명일이다. 칠석제는 마을공동으로 지내는 칠석제와 각 가정별로 지내는 칠석제가 있다. 칠석제에서는 재앙과 질병을 막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기원한다. 칠석날에는 마을공동행사로 공동우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질병을 막아달라고 제사를 지낸다. 또한 칠석날에는 마을길 등을 보수하며 주민들이 함께 술과 안주를 장만하여 농악놀이를 하며 즐긴다. 그러나 1990년부터 이러한 행사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있으며 절(화개사)에 가서 간략하게 합동으로 칠석제를 지내고 있다. 각 가정별로 드리는 칠석제는 칠성단이나 장독대에 치성을 드리며 가족들의 재앙과 질병을 막아달라고 기원한다. 1994년말 현재 대략 6가구 정도가 각 가정에서 칠석제를 드리고 있는데 주로 노령층 가구들로 나타났다.

백중: 백중날은 음력 칠월 보름날을 말하는데 불가에서는 夏安居를 마친 뒤 대중 앞에서 허물을 말하며 참회를 구하며, 절에서는 재를 올린다. 백중날 일반 가정에서는 농사일을 다 끝내고 주인이 머슴이나 일꾼들에게 용돈을 주고 하루를 즐기도록 하는 날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백중날 풍습은 1970년대 이후 사라졌다고 한다.

추석: 추석에는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로 차례를 지낸다. 차례를 지내는 순서는 설날과 같으며 당내간 친척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식사 후에는 조상의 산소를 찾아 성묘한다.

시월고사: 시월은 상달이라 하여 초 사흘날경에 각 가정마다 햇곡으로 떡을 빚어 家神들에게 고사를 지낸다. 시월고사는 노령층 가구를 중심으로 성주신, 터주신, 삼신, 조상신 정도에게만 고사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짓날: 동짓날은 붉은 팔죽을 쑤어 대문이나 벽에 뿌려서 귀신을 쫓아 액운을 면하는 것을 도모하는 풍습이다. 옛날에는 동짓날에도 家神들에게 치성을 드렸으나 1960년대말부터 사라지고 최근에는 팔죽을 쑤어먹는 풍습만 남아 있다.

제 5 장

생활환경 및 공간구조의 변화

1. 생활환경의 변화

1.1. 교육환경

농촌사회의 교육환경은 급격한 학령아동의 감소와 학생수의 변화로 폐교와 통합 등 가장 크게 변화되고 있는 생활환경의 하나이다. 도시근교지역인 증촌의 경우도 행정구역상으로는 대전광역시에 속하지만 지리적 여건이 산간지역 농촌의 전형적 형태를 띠고 있어 인구의 노령화와 학령아동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1985년에 이 마을의 총학생수는 77명이나 되던 것이 1988년에는 60명으로 그리고 1994년에는 42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 중 특히 초등학교 학생수는 1985년에서 94년에는 35명에서 11명으로 줄었으며, 1994년 현재 총가구수 69호 중 13%에 해당하는 9호에서만 초등학교 재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였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령아동의 자녀를 두고 있는 젊은 세대수가 전체 주민의 13% 밖에 안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마을의 어린이들이 통학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마을에서 도보로 20~3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이웃마을 평촌2동의 길현초등학교이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도보로 통학을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중학교는 면소재지였던 기성동 흑석리에 소재한 기성중학교에 다닌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큰 도로가 있는 평촌1동까지 도보로(20분 정도 소요)와서 그곳에서 기성동까지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

어 통학시간은 보통 40분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평촌3동 부락까지 들어오는 시내버스 시간을 이용할 경우는 10여분을 절약할 수 있어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중학교 재학생수는 1985년에 18명이었으나 1988년에는 15명, 1994년에는 13명으로 줄었고 그 중 1명은 시내에 나가서 거주하며 시내의 중학교로 취학하고 있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일정한 학군별 배정 진학이 아니었으므로 대전시내의 고등학교로 분산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학생이 부락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한 통학을 하고 있어 보통 통학시간이 50~60분 소요되고 있었다. 고등학교 재학생수는 1985년에 13명이었으나 1988년에는 8명으로 줄었다가 1994년에는 15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1985년에는 이 부락이 대전시로 편입되기 이전이어서 시내의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시내로 이주해야만 되었으나 이제는 대전 광역시로 편입되어 이주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현재에도 대전 시내에 하숙을 하면서 취학하고 있는 학생이 2명이나 되고, 그 중 한 가정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인 세 자녀를 위해 시내에 전세집을 얻어 현지 취학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증촌마을이 대전시로 편입되기 이전의 전형적인 농촌 가구의 자녀교육 형태인 도시유학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이다.

대학생은 1985년에 11명이나 되던 것이 1988년에는 3명으로 줄어들었고, 1994년에도 3명이었는데 대전시내의 대학에 취학하고 있었다. 1994년 현재는 3명의 재학생 중 1명은 대전시내에서 하숙을 하고 나머지 대학생 2명은 모두 집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전형적인 농촌자녀교육 형태인 이촌취학이 대전광역시로 바뀐 현재에는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촌 취학은 1985년 당시만해도 부락내 총 취학생 77명 중

표 5-1 증촌마을의 취학생 변화

	총 학생수			재촌 학생수			이촌 취학생수		
	1985	1988	1994	1985	1988	1994	1985	1988	1994
초등학생	35	34	11	35	34	10	-	-	1
중 학생	18	15	13	18	15	12	-	-	1
고등학생	13	8	15	4	2	13	9	6	2
대 학생	11	3	3	0	0	2	11	3	1
계	77	60	42	57	51	37	20	9	5

20명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88년에는 60명 중 9명으로 15%로 낮아졌고 1995년에는 총 취학생 42명 중 5명으로 11.9%까지 줄어들었다. 1995년의 조사결과에서 이촌 취학생 중 초등학교 학생 1명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형들을 따라 함께 전세집에서 취학하게 된 특수한 형태였다.

1.2. 의료환경

농어촌 의료환경의 변화는 1988년부터 국민의료보험제도의 일환으로 확대 실시된 전국 농어촌지역 의료보험과 국민 건강의식의 향상에 영향으로 의료이용의 일반적인 증가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민의료보험제도의 확대 실시는 그 동안 농어촌 주민들의 억제되었던 의료욕구를 발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의료기관의 확대와 증설 및 의료비 부담의 감소는 주민의 의료기관 접근도를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

의료기관은 면소재지였던 기성동에 보건지소가 있으며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 의사 1명과 간호보조원 1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이곳에는 민간의료기관으로 기성의원이 있으나 의사가 노인이 되어(60세가 넘음) 이용자가 줄고 있고 보건지소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이었다. 특히 의료보험 실시 이후 보건지소의 의료수가가 일반의료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져 보건지소의 이용이 증가한 상태이다.

이곳 보건지소는 관할구역이 적어서 일반 공중보건의사만 배치되어 있고 치과공중보건의사는 없는 상태여서 주민의 불편이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대전광역시로 편입되어 다른 민간의료기관 이용이 편리해졌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는 부각되지 않고 있다. 주민의 의료이용 형태를 보면 면소재지였던 기성동의 보건지소와 기성의원 이용은 감기, 몸살이나 경미한 질병의 경우이고 중병이나 입원이 필요한 질병은 시내의 중대형 병원들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주민들 중에서도 노령자나 부녀자들은 가깝고 비용이 적게 드는 기성동 보건지소를 이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보건지소의 이용이 늘어났다. 그러나 주민의 전체의료이용률 증가에 비하면 이곳 보건지소의 이용률은 낮은 셈이다.

의료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1985년에는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직업이 공직자이거나 자녀 중 공직자가 있는 가구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직장의료보험이나 공무원, 교직원의료보험에 가입된 주민이 27.6% 정도였다. 현재는 전국민의료보험시대가 되어 모든 주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직장의료보험가입자가 24호이고 지역의료보험가입자는 15호로 지역의료보험가입자수가 적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

은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가족원 중 누구라도 한명만 직장을 가지게 되면 부모들은 물론 동거가족 모두가 그 보험에 동반 가입되도록 되어 있는 지금의 의료보험 가입규정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보호자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이며 이들이 10가구나 되어 전체 가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의료보호대상자들은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그 대신 의료이용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보건의료 기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중병이나 응급의 경우는 일반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은 농가의 경우 농가소득 비례보험료와 농지, 가옥 등 재산 등급별 보험료, 그리고 소유자동차의 등급별 보험료와 가족수에 따른 보험료를 각각 합산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농지규모가 크거나 가족수가 많은 농가가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는 농사에 필요한 자동차를 보유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보험료 부과대상으로 하여 자동차에 대해서만 등급에 따라 매월 800원에서 5,000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 마을에도 1994년 현재 봉고트럭이 3대, 승용차가 7대 등 10여대의 자동차로 늘어났다.

주민가구 중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는 가구는 매월 47,000원의 보험료를 내는 가구가 있었으며, 부락 전체 평균적으로는 17,500원 수준의 보험료부담을 안고 있어 전국 평균치보다 비교적 보험료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의료보험 종류별 가입 현황

단위: 가구

구 분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의료보호	계
가구수	24	15	10	49

표 5-3 지역의료보험료 부담 현황

단위: 가구 월액/원

최고납부액	최저납부액	평균납부액
47,000	9,600	17,529

1.3. 시장 · 생활권

증촌마을의 시장이용과 생활권을 살펴보면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이전인 1985년에는 면소재지인 기성면 흑석리의 5일장을 중심으로 시장권이 형성되고 있었으나 그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오다가 대전광역시 편입 이후는 그 기능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흑석장날은 매 2일과 7일자에 장이 섰으며 1985년의 1차 조사시기에도 이미 그 5일장의 규모가 크게 약화된 시기였다. 면소재지에는 행정조직인 면사무소와(현재는 동사무소로 바뀜) 경찰지서 외에 보건지소와 농업협동조합 등이 자리하고 있어 아직도 이들을 이용하기 위한 발걸음이 생활권과 연결되고 있었다. 특히 농업협동조합의 석유류 취급소는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들에게는 면세카드를 이용한 값싼 유류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에 그 활용도가 높았다. 그외에도 다방이 3개나 있고 이발소 2개소 미용실 2개소 및 각종 음식점이 6개소나 있었으며 잡화점이나 농협구판장 등이 있어 아직까지도 면소재지였던 과거의 생활권 중심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평촌1동이 대로변에 위치하고 평촌 2동, 3동이나 인근 부락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모여드는 장소가 되므로 통행인구가 늘어나 식당과 가게가 들어섰고, 기성면 농업협동조합에서는 평촌지소를 설치하여 신용사업과 구판장사업을 하고 있다. 평촌 1동에는 현재 다방 1개소와 식당 1개소, 가게가 3개소 있어 소규모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기성동의 생활중심권이 다소 분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고급소비재나 다량소비를 위한 시장출입은 대전 시내로 가고 있어 기성동의 시장권은 약화되고 있었다.

증촌의 교통여건은 동내안까지 들어오는 시내버스가 1일 6회 운행되고 있으며 이 버스를 이용할 경우 농협지소가 있는 평촌 1동까지는 10분 이내에, 그리고 동사무소가 있는 기성동까지는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 시내버스는 운행회수가 적어 많은 경우 평촌1동까지 도보로 나가 큰길에서 20~30분간격으로 운행되는 좌석버스나 일반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일반시내버스는 논산군 별곡에서 대전시 농수산물 시장을 오가는 노선으로 60~8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좌석버스는 별곡에서 법통을 오가는 노선으로 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그외에도 평촌1동의 대로변을 오가는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아 평촌1동은 새로운 시장권이 형성되는 도시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 마을에서 산골짜기로 들어가게 되는 평촌 3동은 별곡천을 건너 1.3km나 떨어져 있으므로 아직도 농촌의 전

형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기성동과 평촌 1동의 도시화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평촌 3동의 생활환경도 빠른 속도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된다.

2. 주거 · 문화공간

2.1. 주거지의 분포와 주거 형태

2.1.1. 마을의 입지와 지리적 형태

지리적 특성에 따른 마을유형은 자연지리적 분류방식(입지적 위치, 자연지형, 입지 패턴), 경관 형태에 의한 분류방식(집산도, 평면형태), 인문·사회적 분류방식(종교, 동족 관계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증촌마을은 인근 대전시와의 사회 경제적 연계성과 지리적 거리의 측면에서 보면 도시근교적 특성을 띠면서도 일반 농촌지역의 성격이 드러나는 도시 음영지대(urban shadow)에 속하는 마을이다. 그리고 자연지리적 특성에서 보면 준산간마을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특성은 자연지형적으로 산록분지에 위치하여 배산임수형의 입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마을 공간의 평면적 구성을 보면 괴촌 형태의 집촌을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이 마을 총가구수의 80% 정도가 무송 강씨라는 점에서 인문·사회적 마을유형으로는 동족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형의 영향으로 마을공간이 형성된 형태를 보면 마을 내부에 주택들이 취합된 하나의 단위, 즉 공간 분절단위가 발견되는데, 전통적으로 공간 분절단위는 각기 다른 지명

표 5-4 마을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유형

구 분	자연지리적 분류			경관형태적 분류		인문사회적 분류
	입지(위치)	입지(지형)	입지(패턴)	집산도	평면형태	혈 족
증촌의 지리적 유형	근교지대촌	산록분지형	배산임수형	집 촌	塊 村*	동족촌

* 집촌화된 취락의 평면형태는 塊形, 環狀形, 부채꼴형(扇形), 列狀形 등이 있는데, 이 중 塊形은 기하학적인 형태나 규칙성이 없는 無定形의 촌락형태를 말한다.

표 5-5 마을의 지형 및 공간분절 특성

구 분	지형 및 시설	공간분절 단위	공간분절 형태
공간분절 특성	-盆地邊 산기슭 -마을회관, 동네마당, 공동우물 기준 -도로가 분절 기준	-안대, 바깥대, 서당골, 방아재 -장소인지적 분절	1개의 집촌 내부에 4개의 아주 약한 공간분절
공간분절의 변화		-외곽의 개별적인 시설 입지로 공간분절 단위가 불분명해짐	4개의 약한 공간분절과 영역 지을 수 없는 개별적인 시설

표 5-6 마을 공간분절단위의 특성과 변화

구 분	안 대	바 깥 대	서 당 골	방 아 재	기 타
분절의 내부구성 (1988)	마을 중심부 15호 타성씨 없음 서쪽 뒤편에 제각 있음	마을 남쪽부 28호 타성씨 5호	마을남서편 11호 타성씨 2호	마을북쪽 6호 암자(화개사) 타성씨 2호	마을회관, 구판장, 공동우 물, 동네마당이 공간분절 의 기준점으로 안대, 바깥 대, 서당골이 만나는 중간 지점
공간변화 (1994)	제각 폐가 신축 2호, 개축 1호, 폐가 및 철거 2호	개인운영상점. 제각·축사 신축. 주택신축 4호 개축3호, 폐가 및 철거 2호. 신축된 주택 1호 유입	주택신축 3 호, 폐가 2 호.	폐가 1호	회관신축. 구판장 바깥대 로 이동. 마을앞(안대앞)에 버스정류장, 축사, 양계장 들어섬. 방아재 지나 조각 공방 입주.

을 가지고 있다. 보통 산간 및 준산간 지대에 있는 마을들은 골이 깊고 소규모 산곡분지에 環圍되면서 마을에 주택이 들어설 국면이 좁아 일정 단위지역에 소규모 촌락이 산재하게 된다. 그러면서 취락의 물리적 형태에서 공간분절의 단위들이 평야지보다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증촌마을은 자연지리적 특성이 준산간마을에 가깝다는 점에서 공간분절단위가 잘게 나타날 것 같지만, 동족촌의 강한 사회적 결함력과 비교적 넓은 산록분지의 발달로 인해 규모화된 집촌이 하나의 분절단위를 이루고 있다.

증촌은 취락의 형성에 있어 하나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돼 있으면서 마을공간 내부로는 안대, 바깥대, 서당골, 방아재 4개의 지명으로 구분된 분절단위를 갖고 있다. 마을의 공간분절은 골(谷), 수계 등 자연지형에 의하기보다 방아간, 서당, 안과 밖 등 장소나 건축물에 대한 場所的 認知를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마을내 4

개의 공간분절은 마을회관, 동네마당 그리고 공동우물을 기점으로 진입로와 골목길을 경계 삼아 나뉘어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 주택이 신축된 곳은 주로 바깥대와 서당골이며, 마을중심부에 해당하는 안대는 주택이 부분적으로 개량되고 있다. 새로운 기능을 가진 시설은 주로 마을 외곽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마을제각과 彫刻工房 주택, 축사 등이다. 1991년에 대규모로 신축된 제각은 기존의 조그만 제각을 방치한 채로 마을남측 바깥대 인접 외곽에 입지하고 있다. 제각 전면에는 행사시 방문객의 주차장까지 갖추고 있다. 조각공방 주택은 마을에서 다소 외떨어진 방아재에서 庵子(화개사)앞 좁은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면 있는데, 대전에서 이주한 미술가가 야외 作業 및 작품 전시, 일상 주거를 겸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그리고 마을인근 북편으로는 가축분뇨의 냄새와 불결함 때문에 마을내부에 들어서기 어려운 축사가 건축돼 있다. 버스정류장과 안대 사이의 논에 소규모 양계장이 1995년에 들어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과거에 없던 새로운 기능을 가진 개별 시설들이 주로 외곽에 입지함으로써 마을 외곽의 공간분절 경계가 다소 불분명해지고, 아울러 자연지형보다는 장소에 대한 주민의 인지에 의해 구분되던 마을내 소영역들은 주택의 신축과 새로운 기능의 유입으로 영역화하기 어렵게 되었다.

주택의 향을 살펴보면 증촌마을은 祖山이라 할 수 있는 龍山을 마을 서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택의 향이 동향을 취하고 있다. 1988 조사 때 동향 40호(67.0%), 남향 15호(25.0%), 북향 5호(8.0%)로 되어 있었는데, 1988년 이후 신축된 13호의 경우에도 남동향 4호, 동향 9호로 대부분이 동향으로 터를 잡고 있다. 이는 이 마을이 입지한 지리적 형국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2.1.2. 주거지 공간구성의 변화

근교마을인 증촌의 주거공간의 변화 특징을 공간구성의 측면에서 다음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마을회관, 공동창고, 마을우물 등 공동공간에 대한 이용수요가 줄어들음에 따라 마을에서 이들 공간의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증촌마을의 경우 1993년에 과거의 마을 회관을 헐고 회의실, 노인정, 모임방 등을 갖춘 2층 회관을 신축했으나, 마을회관이 가진 원래의 기능 즉 회의, 친교, 놀이, 홍보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노인정으로서의 기능이 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과거 마을회관 옆에 있던 공동창고도 농

산물 및 농자재 수납, 마을용품 보관에 구심점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창고가 버스정류장 옆에 소규모(한칸)로 지어져 그릇계의 물품보관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신개축된 주택, 현대적 기능을 갖춘 개인문화시설 등이 휴식, 오락의 기능을 개별 주택 단위에서 대폭 수용하고 있고, 농업 현대화에 따른 협동적 영농활동의 급속한 감소, 공동물품의 수납 수요 감소, 개인주의적 도시생활 양식의 영향으로 공동공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드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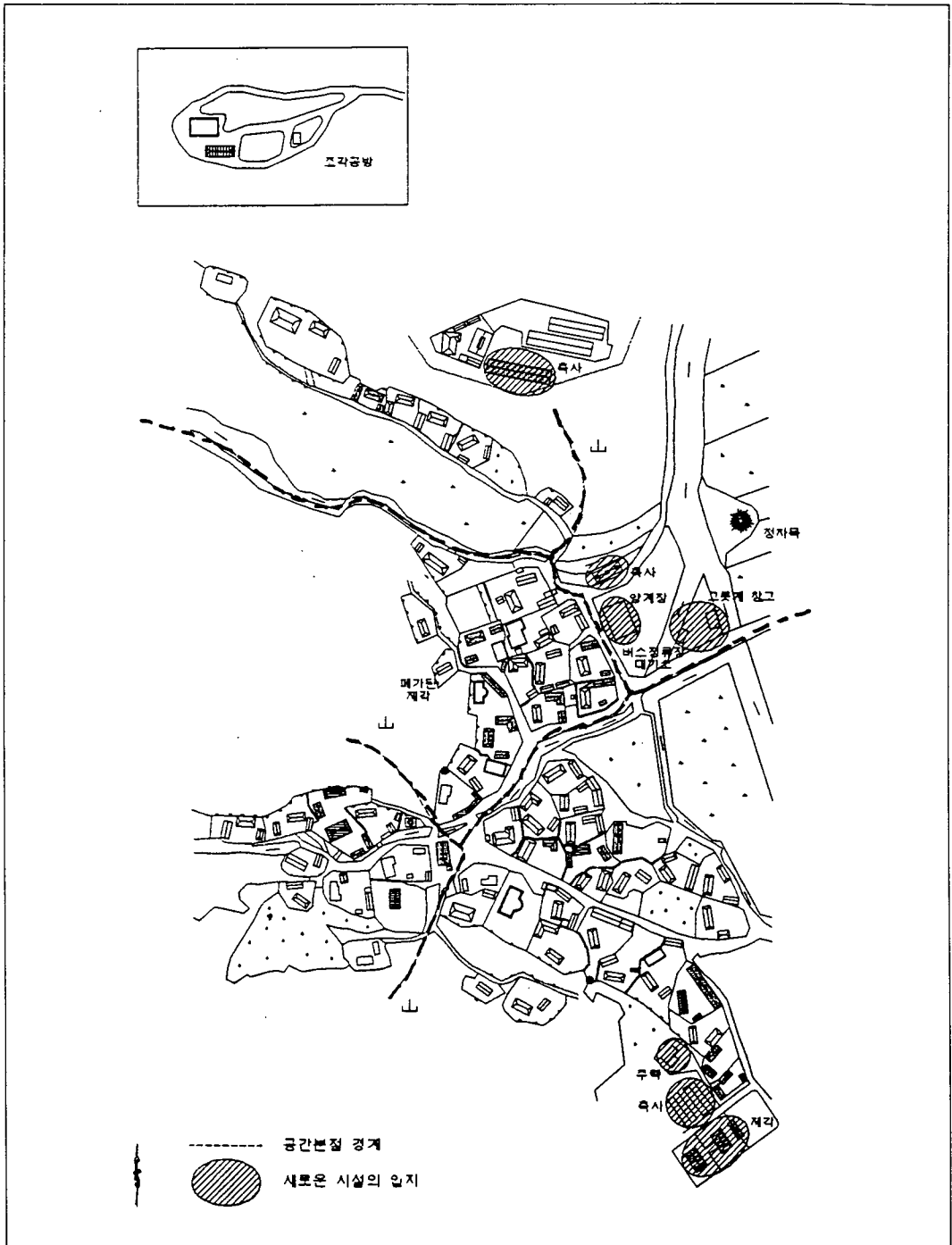
둘째, 농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자동차, 트럭, 농기계 등 운반수단의 이동로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이의 영향으로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농로 등 이동 및 운반수단의 주요 통로를 중심으로 마을공간의 재편이 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1985년과 1986년에 걸쳐 대전과 벌곡으로 이어지는 639번 지방도가 포장되면서 마을 인근 신평리까지 교통진입이 편리해졌고, 여기에서 1987년에는 639번 지방도에 접도하는 신평리와 마을간의 진입로가 확포장되었다. 그리고 마을로의 차량통행이 증가하고 1978년 벌곡천 위에 가설된 콘크리트 다리가 좁고 노후하여 시내버스 등 대형차량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다리를 신설 계획중에 있다. 한편 이 지역이 1989년 대전광역시에 편입되면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훨씬 수월해져 정주조건을 개선시키는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를 기점으로 이후에 마을에 신축되는 주택이 12호, 개량주택 5호, 증축 2호 등 총 20호의 주택이 신·개축 되었다. 그리고 1993년에는 마을회관에서 신축된 제각까지 마을안길이 포장되었고, 제각에는 별도의 주차장이 신설되었다. 기존의 열악한 생활환경 상태에서 환경개선의 중요한 동인을 제공하는 것은 다른아닌 도로개설 및 확포장이라 할 수 있다.

표 5-7 마을 주거공간의 주요 변화

구 분	공동공간			도로 및 교통		생산공간	주택공간
	마을회관	동네창	동네마당	마을내부	마을인근		
주요 변화	신축사용	철거후 소규모신축 부분 사용	부분사용 놀이터기능	진입로 포장(1987) 바깥대의 안길 포장	대전 연결 639번 지방도 포장(1985/86) 대전광역시 편입(1989)후 대중교통 편리 해짐	증촌뜰 경지정리 (1986/87)	신개축 20호 (총56호)

주: 주택의 총수는 공가를 제외한 가옥수로서 사회경제 단위로서의 가구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 5-1 마을의 분절단위와 새로운 시설의 입지, 증촌, 1994



도로, 교통 등 주민의 통행조건이 개선되는 것과 동시에 주민의 생활권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의 차량 보유대수의 증가에서도 알 수 있다. 1994년 현재 마을 전체 20대의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데, 1988년까지만 해도 마을에 자가용 보유자가 전혀 없던 것이 그 이후에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한편, 농업기계화가 진전되면서 농기계 이동의 편의를 위해 농로와 마을 안길의 연계 등 도로체계의 발달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이것이 마을공간을 점차 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1985년에 경운기 6대, 동력탈곡기 2대, 동력분무기 3대이던 것이 1994년에는 경운기 9대, 트랙터 1대, 이앙기 2대, 콤바인 1대, 동력분무기 5대 등 대형농기계의 보급이 크게 늘었다. 농기계가 개별주택에서 농경지까지 직접 연결되려면 주택과 마을 안길, 마을안길과 농로, 간선농로와 지선농로간의 연계성 그리고 도로 상태 등이 잘 갖추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경지정리나 마을안길의 확포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1986, 1987년에 증촌뜰이 경지정리되면서 농로가 확장·직선화 되고, 1993년에 바깥대의 안길과 경지와 접한 외곽길이 포장되면서 농기계의 경지접근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셋째, 공·폐가의 발생, 주택의 노후화, 공동시설의 쇠퇴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다른 한편에서는 현대식 주택의 신축, 기존 주택의 증·개축, 교통체계의 발달 등이 이루어지면서 주민의 생활권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8년 이후 신개축된 주택이 20호에 이르면서 주택의 양적, 질적 기능이 강화되고, 동시에 1987년 이후 꾸준히 마을 내·외부의 도로망이 개선되고, 최근 들어 자가용이 20대까지 보급되면서 대전을 일상 생활권으로 하는 등 주민의 생활권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 공간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마을 공동공간의 기능은 축소되는 대신 기초 정주 단위로서 주택의 기능이 강화되고 이것이 외부 중심지와 직결되는 양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2.1.3. 주택수 및 주거 형태의 변화

주택의 수를 중심으로 마을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먼저 가구수와 주택수의 변화간에 시간차가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경제적 단위로서 가구수가 급격히 줄어들더라도 생활공간 단위로서의 주택은 곧바로 줄어들지 않고 공폐가의 형태로 잔존하게 된다는 점이다. 주인이 이주해간 빈집은 곧바로 철거되지 않고 인근 가구의 농자재, 농산물 등의 수납창고로 활용되거나 새로 전입한 가구의 주택으로 활용되며 공가는 거의 방치되다가 형체가 많이 허물어졌을 때 비로소 철거되기 때문에 마을의 총 건물수는 인구 및 가구수의 감소만큼 줄어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마

을 주민이 관리 할 수 없는 주택은 외관이 크게 손상되고 이의 영향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전반적으로 마을 쾌적성이 크게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의 형태는 1985년 조사 때만 해도 양옥이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1988년에는 일부 건축되고 있고, 1994년 조사에서는 급작스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촌 주거양식이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은 근교마을에서 도시적 주거양식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지난 10년간 주택에서 지붕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살펴보면 주거 형태가 변화하는 방향을 감지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초가지붕은 목조기둥에 흙벽을 바탕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슬레이트나 합석지붕은 초가를 걷어내고 지붕만 부분 개량하거나 아니면 시멘트 블록벽으로 새로 지어지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기와집은 전통적인 목조주택으로서 흙벽을 사용한 경우이거나 70년대 새마을운동 이후 지어진 집은 흙벽대신 벽돌이나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88년 조사 이후에는 기와가 비싼 건축비용 때문에 제각(祭閣) 이외에는 거의 지어지지 않고 있다. 슬라브 지붕은 대부분 양옥 주택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마을회관 건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슬라브 지붕이나 개량 기와

표 5-8 가구수, 주택수, 주택형태의 변화

단위: 호

구 분	1985			1988			1994		
	주택수	가구수	주택형태	주택수	가구수	주택형태	주택수	가구수	주택형태
한 옥 양 옥	58	58	53 0	60(4)	56	56(4) 4	62(6)	50	48(6) 14

주: 1985년 조사결과 보고서상의 근교마을(중촌)의 주택수를 정정함.

주택수는 공가수 및 출입농가의 수를 합한 수치임.

() 안은 공가 및 출입농가 주택수를 나타냄.

표 5-9 주택 지붕 형태의 변화¹⁾

단위: 호, %

구 분	초 가	슬레이트 ²⁾	기 와	슬라브 ³⁾	계
1985	-(0.0)	26(49.1)	27(50.9)	-(0.0)	53(100.0)
1988	-(0.0)	29(48.3)	27(45.0)	4(6.7)	60(100.0)
1994	-(0.0)	25(41.0)	22(36.1)	14(22.9)	61(100.0)

1) 주택의 안채를 중심으로 파악함.

2) 슬레이트에는 합석지붕의 수도 포함.

3) 슬라브에는 근교마을의 조립식 주택 2호도 포함됨.

집일수록 주택이 현대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마을의 변화를 살펴보면 양육이 많이 신축되는 증촌마을에 슬라브, 기와 지붕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슬레이트 지붕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2.2. 주택 신개축 및 공폐가의 발생

1988년 이후 11호의 주택과 무송 유씨 사당이 신축되었고 5호는 주택내부 시설이 개량되었으며 증축된 주택은 2호이다. 신축된 주택은 대부분 벽돌 슬라브 형식의 양육이고, 조성단가가 벽돌 주택에 비해 저렴한 조립식 주택도 3호가 신축되었다.

신축된 주택의 평균규모는 대지면적 127.9평에 건평 26.7평으로 건폐율이 20.9% 정도가 된다. 주택신축에 소요된 자금은 평균 4,038만원으로서 슬라브 양육의 건축단가는 평당 160만원이고, 조립식은 44.2만원 정도이다.

채래식 주택에 입식부엌, 기름보일러 등 현대화되는 주거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량되고 있다.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금액은 호당 평균 183.3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택을 새로이 구입하거나 대지를 구입하는 경우도 각각 4호, 3호나 되는데, 개인 주거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축사는 냄새, 미관적 특성 때문에 주택지에서 떨어진 마을외곽에 4동이 들어서고 있다. 축사가 바깥대의 남측 즉 마을제각 옆에 2동이 신축되었고, 안대와 방아재 사이에 1

표 5-10 주택신축 상황, 증촌, 1994

단위: 평, 만원

가구번호	연도	주택형태	규모(건평/대지면적)	소요금액	비고
04	1992	양육	25/130	3,500	• 건축단가 - 슬라브 양육: 평당 160만원 - 조립식: 평당 44.2만원
09	1993	"	25/140	5,000	
11	1993	"	33/ 68	3,400	
27	1993	"	25/200	4,000	
28	1993	"	25/120	4,000	
36	1993	조립식	43/150	1,900	
39	1994	양육	30/119	7,500	
41	1992	"	23/108	3,000	
42	1994	조립식	25/ 55	-	
50	-	양육	25/117	-	
70	1994	조립식	15/200	-	
61	-	양육	-	-	
평균			26.7/127.9	4,038	

동이 들어섰으며 마을진입로 어귀의 기존 축사 옆에 1동이 추가로 입지 하였다.

공폐가수는 현재 5호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1988년 조사 때의 2호에 비하면 늘어난 것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폐가가 주거경관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주택 및 주변 주거환경의 변화를 주거공간의 구조적 측면에서 이해 하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택공간은 안채, 사랑채, 축사, 부속사(창고, 변소) 등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 안채 위주로 신축되고 있고, 사랑채는 없어지는 추세이며 농업생산과 관련된 부속사 등도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주택에서 생활공간인 몸채와 영농활동과

표 5-11 주택 증개축 및 주택구입 상황, 증촌, 1994

단위: 평, 만원

가구번호	연도	구분	내용	규모	소요금액	비고
01	1994	개량	입식부엌		300	
12	-	"	"		40	
17	-	"	차양시설		80	
24	-	증축	방		-	
25	1993	"	방, 입식부엌		500	
32	-	개량	기름보일러		80	
36	1991	"	"		100	
평균					183.3	
18	1994	대지구입		90	1,200	
21	"	"		86	1,032	
25	"	"		82.5	1,030	
40	"	"	중중터	80	1,400	
63	1991	주택구입	"	-	400	
66	1992	"		-	-	
67	"	"		-	-	

대지구입: 평당
13.2만원

표 5-12 주택 신·개축 및 공·폐가 증감 상황, 증촌, 1988-94

단위: 호, %

구분	신·개축				공·폐가				1994년의 주택수
	신축	개량	증축	계	폐가	철거	활용	계	
주택수	12(65.0)	5(25.0)	2(10.0)	20(100.0)	3	1	-	4	62

주: 증촌마을의 신축 주택수에는 마을회관, 마을제각도 포함됨

관련된 부속사의 공간구성을 볼 때, 최근의 농가주택은 과거와 달리 몸체를 위주로 신개축을 하고 있으며 몸체의 규모 또한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농가주택 전체 면적에서 몸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속사의 규모 확대나 신·개축 활동이 미약하고, 겸업농이나 비농가의 경우에는 부속사가 아예 없는 도시형 주택을 짓기도 한다.

신축된 주택(양옥)은 대부분 단층 슬라브 형식의 벽돌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조성 단가가 벽돌 주택에 비해 저렴하면서 건설방법이 용이하고 건설 기간도 짧은 조립식 주택도 건축되고 있다. 그리고 재래식 주택에서 입식부엌, 기름보일러 등 현대적인 주거시설의 설치, 즉 주택의 부분적 개량을 통해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주택을 신축하는 것보다 오히려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현재의 농가주택은 건물의 내구연한이 거의 다하였기 때문에 젊은 가옥주가 마을 정주를 계속 희망할 경우 공간의 이용 편의성과 심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축 혹은 개축을 하기 보다는 아예 신축을 하는 경우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2.3. 주택구조의 변화: 사례 주택의 공간구성 변화

1988년 마을 공간구조 조사에서는 주택의 평면적 배치 형태를 안채, 부속사, 사랑채 등의 공간적 구성과 배치된 각 건물의 기능적 연관을 기준으로 A, B, C, D형의 4가지 형태로 유형화하여 주택구조를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A형은 농촌의 전통적인 3칸 주택의 기본형으로서 부엌 1칸, 방 2칸으로 된 안채와 1~2칸 짜리 헛간 및 변소 1칸으로 구성된 부속사로 이루어진 단출한 주택구조이다. B형은 앞서 말한 A형 3칸 구조의 안채와 부속사 외에 추가 필요에 의해 사랑채를 덧붙인 경우이다. 당초 3칸 주택에 살던 가구가 경제적, 사회적 여유가 생기면서 부모, 부부, 성장한 자녀 등과의 독립된 주거공간이 필요하게 되어 추가로 확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사랑채는 안채와 공간기능상 뚜렷한 분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안채의 기능을 연장하여 가장이나 가장의父 등이 머무는 방을 들이면서 광이나 뒤주 등의 수납공간, 화장실 등을 함께 짓는 수가 많다. 이에 반해 C형은 안채와 사랑채가 공간기능상 분화가 뚜렷이 일어난 것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 중농 혹은 대농의 경우 머슴이 머무는 방이 별도로 설치될 경우나 가장 또는 가장의 父가 거처하는 공간으로서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안채와 사랑채가 동시에 건축된 것으로서 사랑채에는 광이나 뒤주 등의 수납공간이 덧붙여지지 않고 방들로만 구성된, 안채와 별도의 주거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기능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마지막

그림 5-2 주택배치도, 증촌,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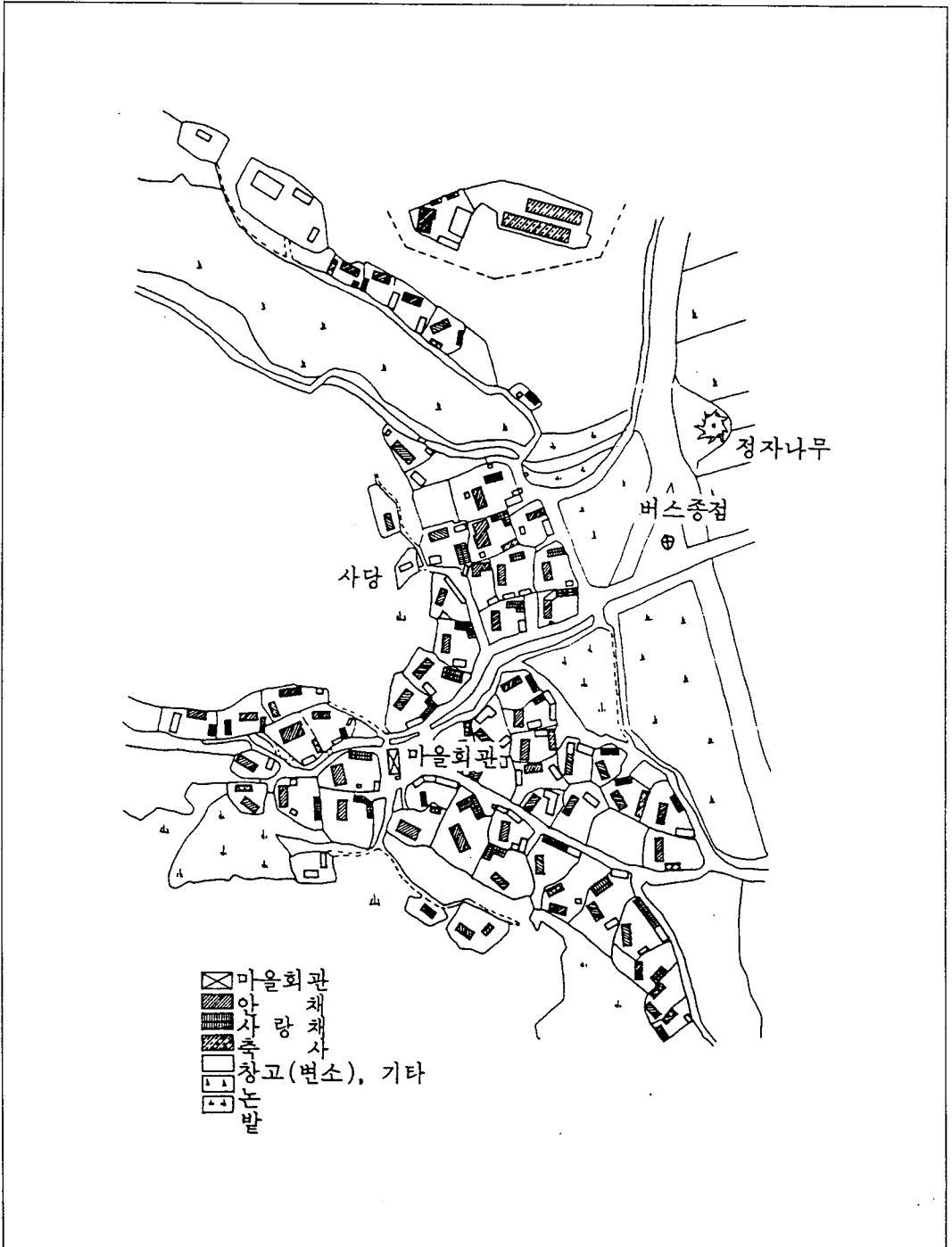


그림 5-3 주택배치도, 증촌,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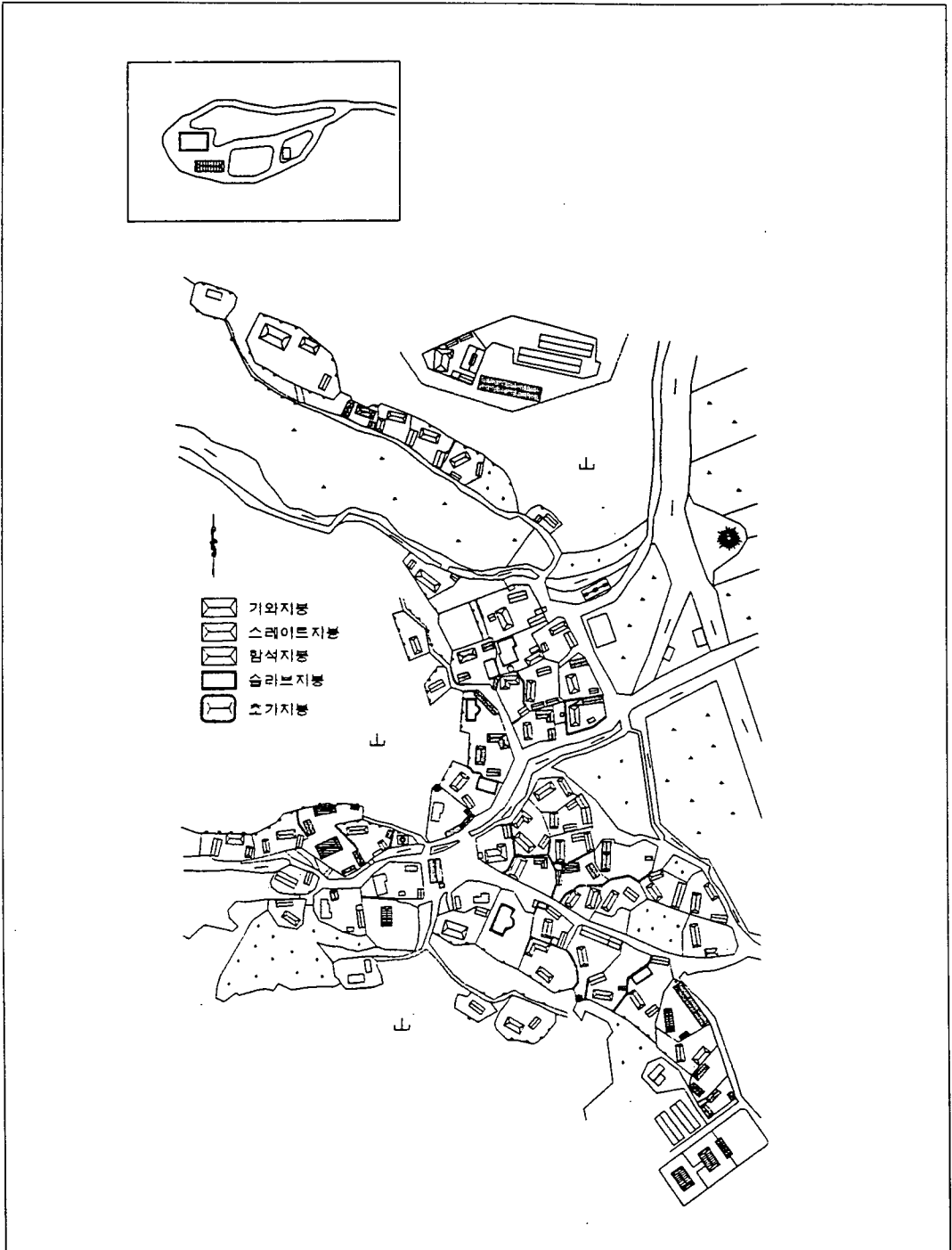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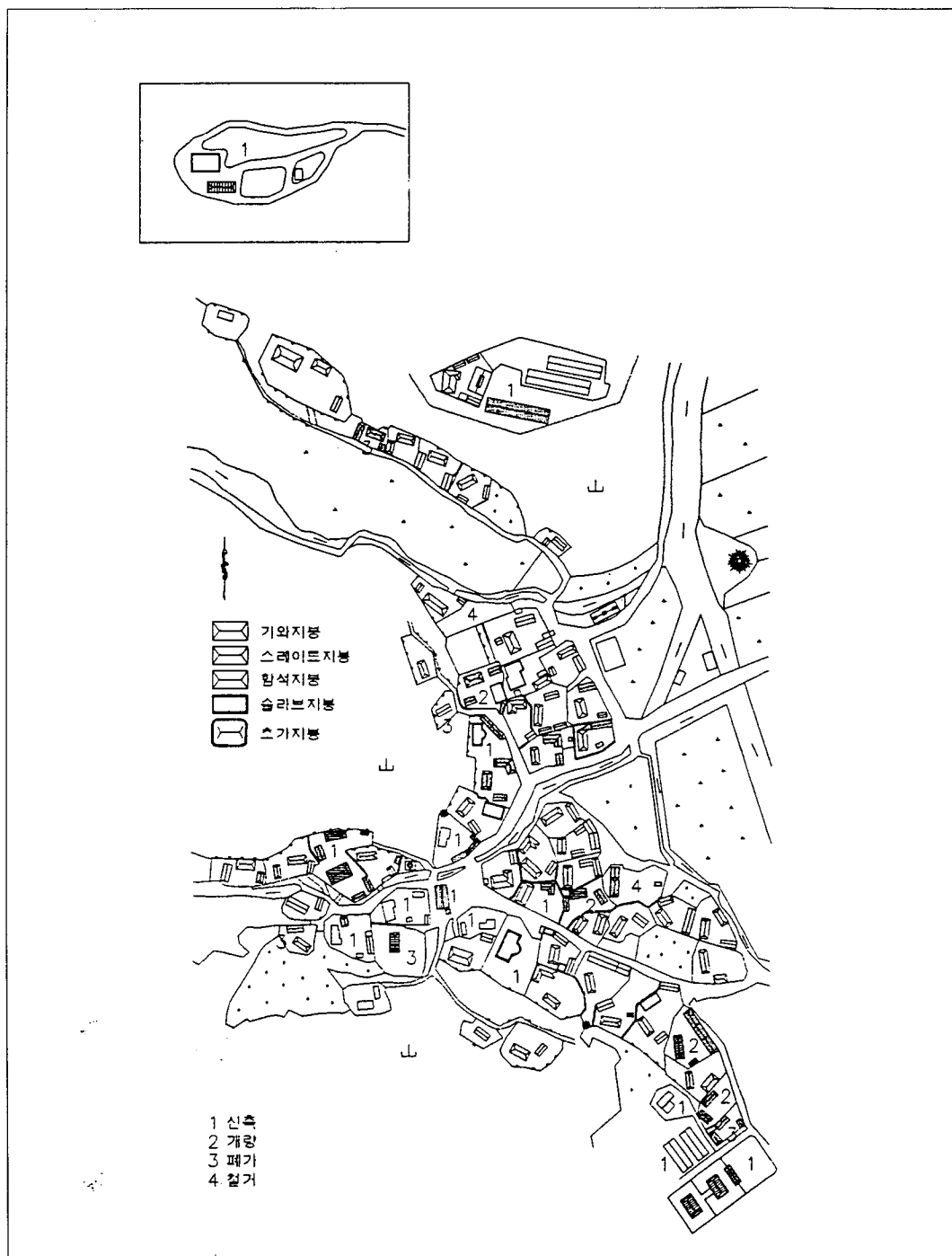


그림 5-4 주택 신개축 및 공폐가 현황, 증촌, 1994



으로 D형은 3칸 주택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설계에 의하여 최근에 신축된 주택으로서 도시형 양옥주택의 구조라 할 수 있다. 건축자재는 벽돌이나 시멘트벽돌을 주로 사용하고 단열재를 이용, 보온 효과를 높이기도 한다. 현대화된 입식 주방이 들어서고, 수세식 화장실과 함께 목욕탕이 설치되며 마루를 응접실로 꾸며 사용한다. D형 주택은 화목을 사용하여 난방이나 취사를 하지 않고 연탄, 석유, 가스 등을 이용하는데, 최근에는 D형 주택에서 연탄의 사용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KJH씨 맥(기존 A형): 전통적 3칸 주택 → 폐가

이 농가 주택은 우리나라 농가 주택의 기본형인 3칸, 즉 부엌, 안방, 바깥방, 쪽마루(혹은 봉당)로 구성되어 있다. 1988년 조사에 따르면 이 집은 화목연료와 연탄을 동시에 이용하여 난방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부속사에는 나뭇간과 연탄광이 자리잡고 있었다. 부엌은 군불을 지필 수 있는 고래와 연탄을 뿔 수 있는 고래가 두개 있었고 부엌 밖에는 간이 상수도가 위치해 있었다. 부속사는 나뭇간, 연탄광 이외에 채래식 변소가 있어 3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 뒤에는 장독대가 설치되어 있고 집 동측에는 굴뚝이 있다.

그러나 이 집은 현재 주인이 이주한 후 폐가되어 방치되고 있다.

YBR씨 맥(기존 B형): (3칸 몸채 + 사랑채) → 양옥

양옥을 신축하기 이전의 주택구성을 보면, 전통적인 3칸 몸채구조에다 사랑채를 추가한 형태로 되어 있었다. 경제 사회적 여유와 가구원의 성장으로 인해 추가로 신축한 사랑채에는 주거용 방뿐만 아니라 창고, 화장실 등도 포함하여 건축하였다.

그러나 이 집은 1994년에 구옥을 헐고 양옥으로 신축되었다. 신축된 주택의 공간구성을 보면, 몸채의 경우 거실, 안방, 작은방 2개, 입식부엌, 보일러실, 화장실, 야외 간이조리대, 펌프모터실, 옥상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속사의 경우에는 곡식창고, 개방벽의 생활용품 및 생산자재창고, 야외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다. 몸채는 콘크리트 적벽돌, 부속사는 블록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담장은 시멘트 재질의 규격화한 조립식이고 담장 밑과 마당 주변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화초 및 소관목들이 식재되어 있다.

YBU씨 맥(기존 C형): 바깥채 개축으로 부분 개량

몸채는 2칸으로 분리된 윗방, 아랫방,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과거에 사용하던 사랑채를 헐고 신축하여 몸채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주거생활은 신축된 사랑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 3칸, 생활창고 1칸, 방들 사이를 연결하는 봉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장실은 앞마당의 남성용과 뒷뜰의 여성용으로 분리되어 있고 부엌 뒤편에 장독대가 놓여 있다.

YBD씨댁(기존 D형): 축사공간 소멸로 생활기능이 더욱 강조된 양옥

이 마을에서 처음 지어진 양옥으로서, 주택의 공간구성에는 거의 변화가 없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양옥의 본래 기능대로 생활기능이 더욱 강조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대문을 지나 마당을 들어오는 입구부에 자동차 보관을 위해 차양텐트가 설치된 것과, 마당 전면 화장실 옆의 공터가 화단으로 조성된 것 그리고 1988년 조사때 축사로 쓰이던 부속사가 현재는 생활용품 보관창고로 변화된 것에서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농촌 주택구조에 대한 위의 4가지 유형별로 1988년 이후 변화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3칸 농촌주택이 노후화되고 공간적으로 협소하여 현대적인 생활양식을 수용하거나 기계화, 전문화되는 영농방식을 지원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농촌의 건축 규범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마을조사 결과에서도 3칸 주택의 표본(A형 표본)이 공폐

표 5-13 사례 주택의 공간구성변화, 1988/1994

구 분	1988	1994
A형 (3칸 주택)	3칸 안채(재래식 부엌, 방 2칸), 부속사(변소, 헛간 2칸)	- 폐가 후 방치
B형 (3칸에다 사랑채 추가)	3칸 안채, 7칸 부속사(방 2칸), 야외변소	- 구옥 헐고 몸채 양옥 과 부속사 신축 - 안채(도시형): 거실, 입식부엌, 방 3칸, 수세식 화장실, 보일러실, 야외 간이 조리대 - 부속사: 곡식창고, 헛간, 야외 화장실 - 화단, 조립식 시멘트담
C형 (안채와 사랑채 분화)	안채, 사랑채, 부속사, 쌀광, 야외변소 2동	- 기본구조 유지: 안채의 방은 유희, 사랑채의 부엌은 방으로, 우사는 생활창고로 개량하여 몸채로 사용. - 부속사의 재간은 창고, 나뭇간은 헛간으로 전용
D형 (도시형 주택)	안채(도시형), 부속사, 창고, 야외변소 2곳	- 기본구조 유지: 축사는 자재창고로 전환, 대문간은 차양 설치 후 차고로 활용

그림 5-5 폐가된 KJH씨댁, 증촌,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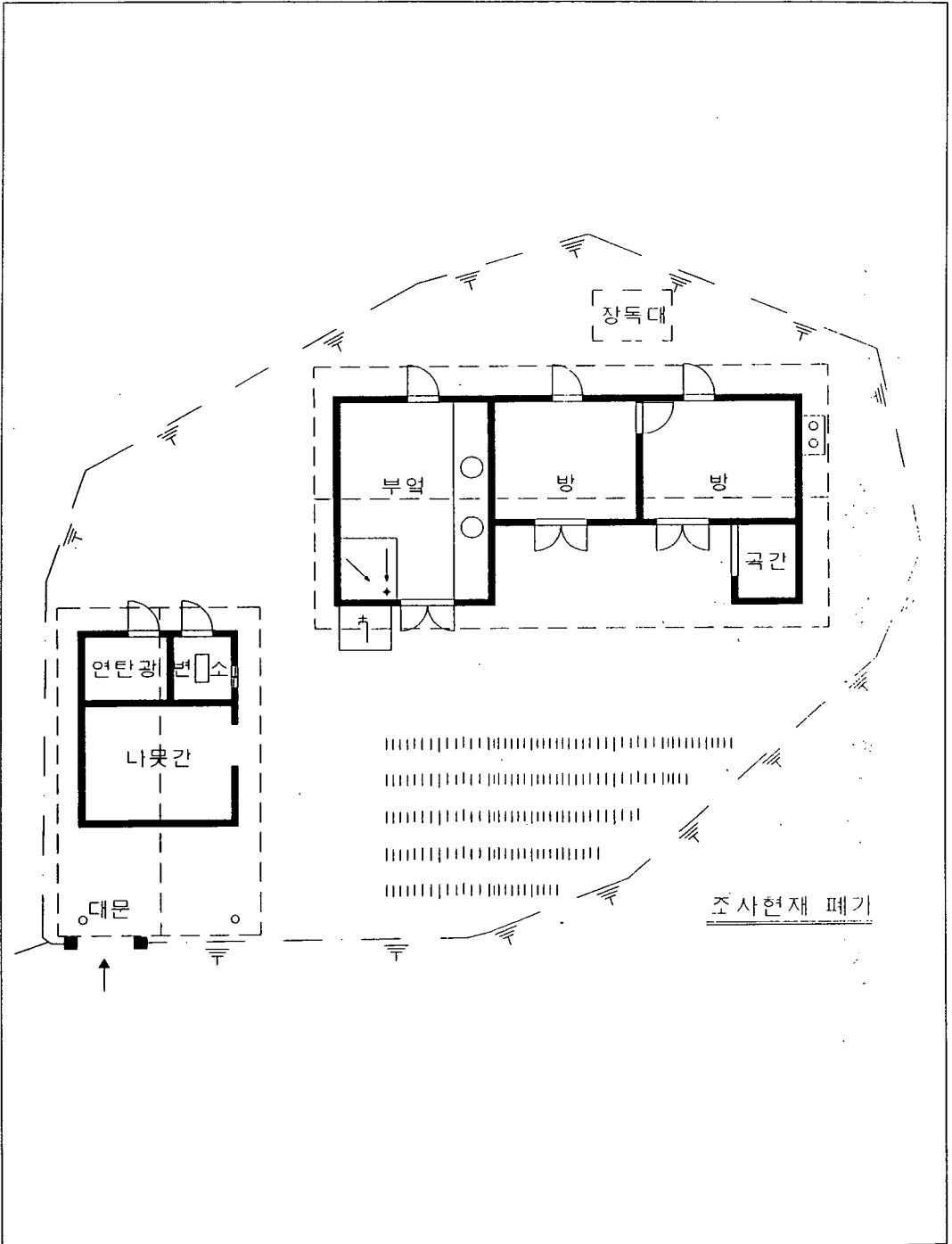


그림 5-6 구옥 철거 후 신축된 YBR씨덕, 증촌,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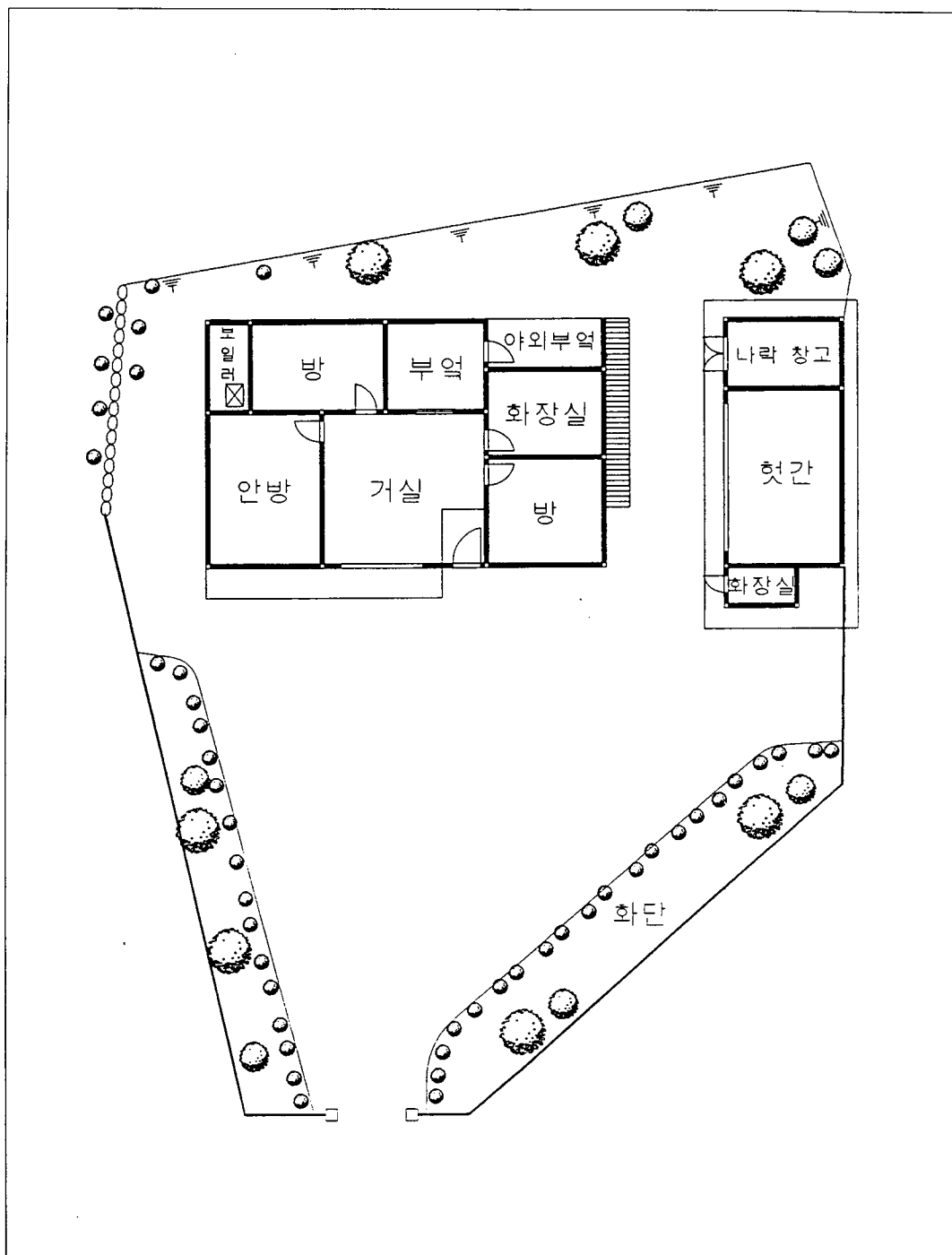


그림 5-7 바깥채 개축으로 부분 개량된 YBU씨댁, 증촌,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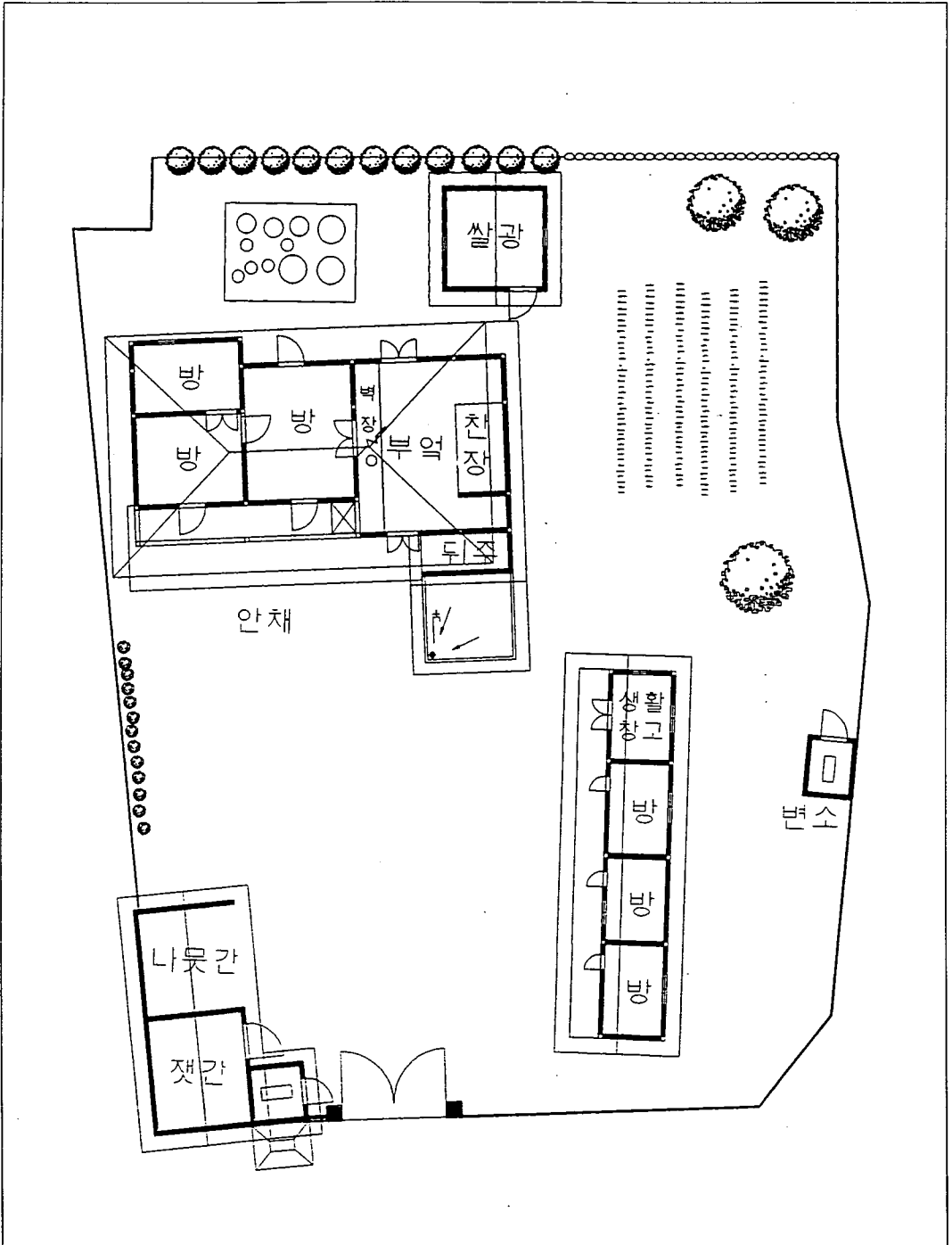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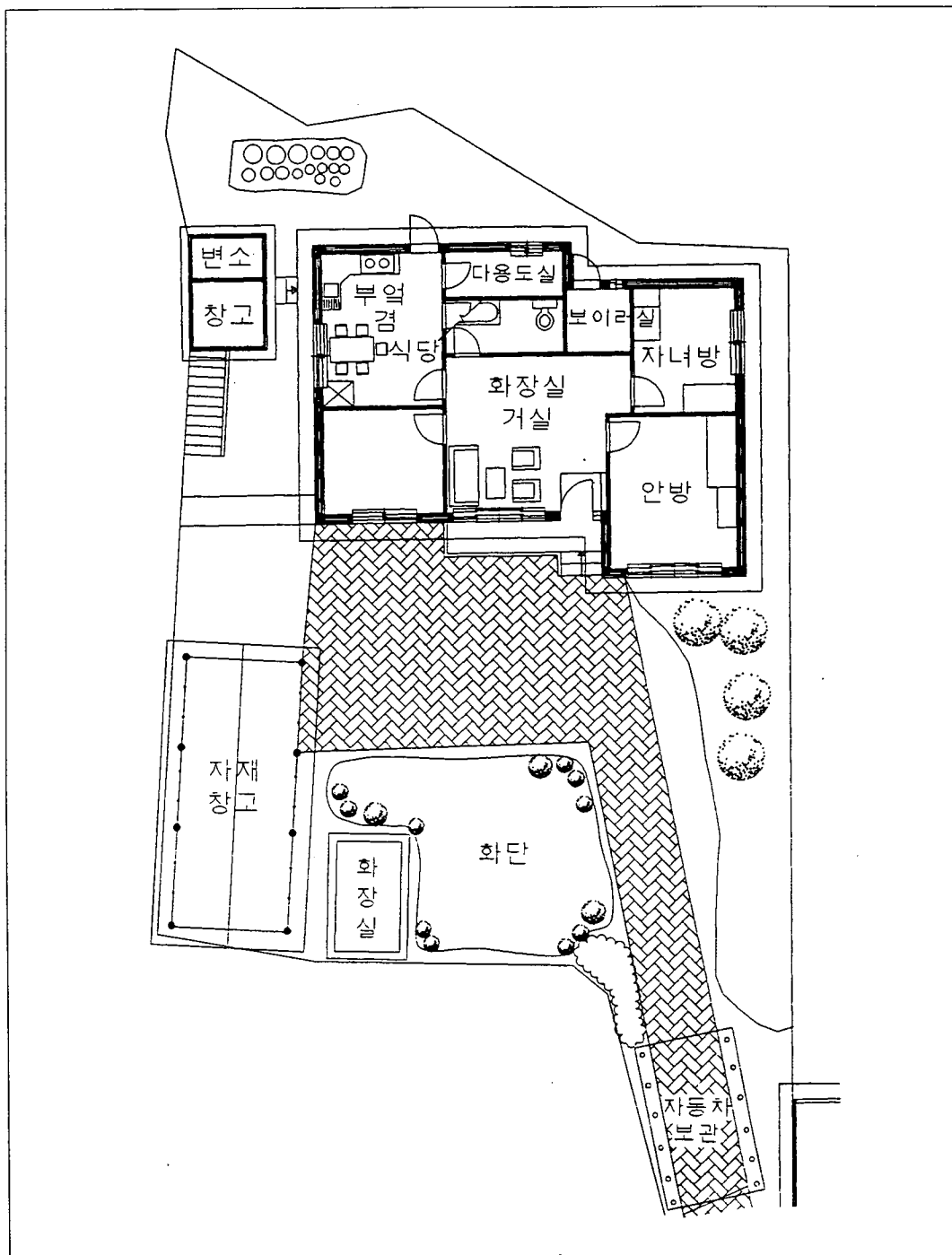


그림 5-8 생활기능이 더욱 강조된 YBD씨댁, 증촌, 1994



가로 변했거나 노후화된 채로 사용되고 있었다. 1994년 사례 주택조사에서 기존에 3칸 주택에서 살던 가구가 이농을 했거나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도 증개축 혹은 신축을 하여 주거생활이 A형 주택 형태에서 이탈해 있으며, 계속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노령화되어 주택 개조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는 경우에만 살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과거 영농활동과 관련이 많던 부속사, 사랑채의 기능이 거의 사라지면서 주택의 기능적 배치면에서 B형, C형 주택 형태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잔존하는 건물의 외관상 배치 형태는 안채와 분화된 사랑채나 부속사가 존재할지 몰라도 실제 이용을 하고 있는 점이나 건물의 기능면에서 보면 B형, C형의 주택 형태에서 이탈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사랑채의 기능 상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 할 수 있다. 다 세대가 살던 대가족 시대에 가장이나 가장의 부가 머물던 사랑채의 방들이 가족이 줄어들면서 대부분 유향화되고, 주택에서 남성공간으로 인식되던 사랑방이 농자재나 생활용품 창고, 혹은 빈방으로 전환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1994년 사례주택에 대한 조사에서도 B형의 경우 주택이 양옥으로 신축되었고, 타 주택의 경우 사랑채의 방이 폐실되어 방치되고 있거나 광이나 뒤주는 자재창고 등으로 용도가 전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사랑채의 기능이 강조되어 안채와 공간적으로 분화되어 있던 C형의 경우도 사랑채의 기능이 퇴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사랑방은 빈방으로 방치되거나 다른 생활용품 창고 혹은 농자재 수납고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랑채에 딸린 부엌, 축사 등도 폐실되어 방치 혹은 타용도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도시형 양옥 주택인 D형의 경우는 사례 마을에서 주택신축시 선호도가 높아 그 수자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 지워진 양옥은 부분적으로만 개수되면서 이용도가 증대하고 그 기능 또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유형의 주택은 도시형 주택과 같이 생활중심형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농가주택의 특성이 농업생산을 지원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안채 외부에 생산활동 지원공간으로서의 농자재 창고나 농작물 저장고가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양옥을 짓고나서 다른 한켠에 창고, 옥외화장실 등 부속사를 짓기도 한다. 농가에 있어 양옥 1채만으로는 농촌의 생활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은 신축 이후 부속사 증축과정이 이를 대신 말해 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영농활동을 중단했거나 아예 농사일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의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축사나 자재창고 등 부속사를 철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생활관련 부속사로 전환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4가지 주택유형별로 1988년 이후 주택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

았는데, 이제부터는 주택내부에서 안채, 사랑채 및 부속사, 채원 등 공간요소별로 어떤 변화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지 간추려 보기로 하겠다.

먼저 안채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무엇보다 가구원수가 감소함에 따라 빈방수가 증가하고, 빈방은 방치되거나 생활용품 창고, 자재창고, 곡식수납고 등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전통적인 3칸 몸채에서 탈피하여 안채의 부엌이나 방은 현대적 주거시설(싱크대, 보일러, 목욕탕, 수세식 화장실 등)이 도입되면서 개량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사랑채 및 부속사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취사 및 난방연료의 변화로 잿간, 나뭇간, 짚간 등 사랑채나 부속사의 폐실된 공간은 생활자재창고나 농기계 격납고로 전환되고 있다. 아울러 영농의 기계화와 전문적인 축산농가의 등장으로 가내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던 돈사, 우사 등 축사는 폐사되고 대신 이를 농자재나 생활용품, 농기계 등을 수납하는 헛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 농가가 별도의 농기계 보관창고를 만들지 않고 헛간을 이용하여 농기계 비가림을 하는 정도이고, 집까지 농기계가 진입하지 못하는 농가는 안길이나 공터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두드러진 것은 과거 가장이거나 가장의父, 며슴 등이 머물던 사랑채의 방은 신분제도나 관습 그리고 가족제도의 변화로 대부분 폐실되어 방치하거나 창고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룹에 따라 농촌주택에서 사랑채의 기능이 거의 소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축된 도시형 양옥 주택에서는 안채 이외에 농가의 특성에 맞게끔 자재창고, 헛간, 야외 화장실 등이 추가로 신축된다는 점도 부속공간 변화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마당 및 채원(菜園)의 이용에 관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농가주택의 마당은 농작업, 일상의 만남, 세시놀이, 아동놀이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기능이 미분화된 복합적인 장소이다. 그러나 1994년 조사에서는 마당에서 탈곡, 농작물 말리기, 자재수리 등 농작업 활동, 세시놀이, 아동놀이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당이 화단으로 조성되거나 농기계 보관 및 자동차 주차공간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마당이 지닌 생산관련 기능이 약화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주택이 신축되면서 마당의 생활기능이 강조되는 것은 주택공간 변화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내부에 가용 양념류나 여름채소류를 기를 수 있는 菜園(텃밭)이 있는 주택은 거의 없는데, 이는 가까운 마을 주변에 밭이 두루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2.4. 주생활 여건의 변화

증촌마을의 주택은 1988년조사 때까지만 해도 난방연료의 69.8%, 여름 취사연료의 4

7.2%, 겨울 취사연료의 86.8%가 화목이 사용되고 있었다. 마을인근 산에서 채취되는 나무연료나 벼 수확 후의 짚대 등을 난방과 취사연료로 사용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화목의 비중이 크게 줄어 1994년에는 전체 난방연료 중 화목의 사용비율이 14.0%로 감소하고 대신 과거에 사용이 극히 저조하던 기름보일러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석유의 사용

표 5-14 난방연료의 변화

단위: %

구 분	화 목	연 탄	석 유	기타(전기)
1985	69.8	28.3	1.9	-
1988	41.1	57.1	1.8	-
1994	14.0	40.0	44.0	2.0

표 5-15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설치, 1988-94

단위: 호, %

	증촌(/50)
입식부엌	16(32.0)
수세식 화장실	13(26.0)

주: () 안은 마을 총호수에 대한 비율임

표 5-16 생활·문화수단 및 편의시설의 변화

단위: %

		1985	1988	1994
교통·통신수단	전화	42.3	57.0	98.0
	오토바이	5.8	4.0	4.0
	승용차	-	-	20.0
	화물차	-	-	-
매스컴	컬라TV	3.8	42.9	94.0
	일간지	11.5	12.5	12.0
	농업전문지	17.3	10.7	12.0
	월간지	-	-	2.0
기타 편의시설	VTR	-	3.6	20.0
	냉장고	32.7	73.2	92.0
	가스렌지	7.7	83.9	96.0
	전자렌지	-	-	12.0
	세탁기	-	-	66.0

주: 표에 나타난 비율은 총호수에 대한 백분율임.

률이 1988년의 1.8%에서 1994년의 44.0%로 급증하고 있다. 한편 연탄의 경우는 1988년까지 그 이용이 57.1%까지 늘어나던 것이 1994년 조사에서는 40.0%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어 연탄사용이 감소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부엌, 화장실 등 주생활 시설은 1988년 이후 많이 개량되고 있는데, 입식부엌이 32.0%, 수세식 화장실이 26.0%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현대식 주거시설의 대부분은 주택을 신축하면서 설치된 것이나, 재래식 주택에서 부엌, 화장실, 아궁이 등이 부분적으로 개량되는 경우도 있다.

1975년에 마을에 처음 가설된 전화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1994년 현재 98.0%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어 전 가정에 한대 정도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90% 이상의 높은 보급률을 나타내는 생활 주거용품으로는 전화 이외에도 칼라 TV 94.0%, 냉장고 92.%, 가스렌지 96.0% 등이 있다.

교통수단으로서 승용차는 1988년까지만 해도 전혀 보급되어 있지 않던 것이 최근에는 점차 늘어나 20.0%의 보유율을 보이고 있고, 오토바이 보유는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중촌 주민들의 신문, 전문지, 월간지에 대한 구독률은 1985년, 1988년과 비교 할 때 별다른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일간지 및 농업전문지는 평균 6내지 7호 수준에서 구독되고 있고, 월간지는 1988년 조사때까지 전혀 구독되지 않던 것이 현재 1호에서 구독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5-17 마을 공동시설의 변화

구 분		근 교
1988	생활 공동시설	마을회관(회의실, 부엌, 방, 구판장), 공동우물(공동세탁장), 동네마당(건조장), 버스정류장, 간이상수도(마을 뒷산 집수정)
	생산 공동시설	마을창고 없음
1994	생활 공동시설	• 1993년 구마을회관 헐고 신축(1층:남·여 노인방, 부엌, 남·여 수세식 화장실, 2층: 회의실, 수세식 화장실) • 버스정류장에 대기소 만듦 • 명륜계 그릇 창고 신축 • 쓰레기 롤박스 • 공동우물가의 세탁장 여전히 사용 • 구판장 개인 운영
	생산 공동시설	• 마을창고는 1989년에 지었다가 1993년 회관 신축시 동네주차장에 새로 지음.

2.5. 공동이용 시설의 변화

1988년과 1994년의 조사를 비교했을 때 마을별로 공동시설에 대한 이용의 변화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마을은 1993년에 마을회관을 헐고 2층 회관을 신축했는데 1층에는 남녀 노인방 2칸, 공동조리실, 공동화장실 2칸이 있고, 2층에는 회의실, 화장실 1칸이 설치되어 있다. 마을창고는 1989년에 지었다가 1993년 회관 신축시 철거하고, 대신 동네 주차장 옆에 1평 정도 크기로 조그맣게 지어 그릇계의 그릇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을회관 옆의 재래식 공동우물은 부녀자들의 세탁장으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증촌마을에 상·하수도 체계가 변화된 것은 거의 없고, 새마을 운동시 축조된 상·하수관망을 그대로 유지하여 노후된 상태이다. 모든 개별 주택에서 자가수도나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증촌마을은 지형을 이용하여 마을 뒷산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개별 주택으로 급수하고 있다.

하수체계에 있어서도 과거와 큰 변화가 없는데, 생활하수는 정화되지 않은채 마을 뒷산에서 동네 가운데(안대, 바깥대 사이)를 가로질러 증촌뜰로 흐르는 하천이나 마을 앞 농업용수로에 자연 방류되고 있어 벌곡천의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2.6. 도로 체계

도로 형태에 있어 증촌마을은 전통적인 樹枝形(나무가지 모양)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특징은 거의 변화되지 않고 있다. 1986년, 1987년에 걸친 경지정리 사업으로 진입로가 직선화되었지만, 마을내부의 도로 형태는 여전히 수지형을 유지하고 있다. 마을진입로는 경지정리사업으로 농로체계 변화와 함께 크게 바뀌면서 대중 교통수단 및 농기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마을진입로는 현재 완전히 포장되었고 이와 함께 마을안길도 1993년에 마을회관에서 마을제각까지 포장되어 자동차의

표 5-18 마을 도로체계의 변화

구 분	1985	1994
도로체계 의 변화	• 도로형태: 樹枝形 • 진입로: 미포장 • 안길: 미포장	• 진입로: 1986/87년 경지정리사업으로 농로체계와 함께 크게 바뀜 • 안길: 마을회관-사당間 포장(1993) • 마을진입 다리 新橋 건설 계획중

개별 주택까지의 진입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정지정리가 이루어지면서 진입로, 농로와 마을안길의 연결이 원활하여 농기계의 이동도 수월해졌다. 과거에 가설되었던 마을 진입다리는 좁고 노후하여 1994년 현재 새로운 다리의 건설을 구상중에 있는데 위치는 기존 다리의 약간 북쪽이고 방향은 진입로와 일직선으로 연결하여 기존의 다리방향이 진입로 방향과 다소 어긋나 차량 이동에 불편한 점을 보완하게끔 계획하고 있다.(이후 보완조사 시점인 1995년 12월 현재 건설 공사중.)

2.7. 종교 · 문화공간

마을공동의 세시풍속이 사라져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네 풍물놀이마당 등 문화공간도 거의 사라진 상태이고, 다만 윷놀이 등 일부 놀이공간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증촌마을은 동족촌인 관계로 문중 사당(무송 유씨 제각)은 계속 이용되면서 확대·신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마을 제각은 폐가인 채로 방치하고 1993년에 마을 바깥대 남쪽편에 주차장이 전면에 딸린 기와지붕으로 3동이 신축되었다.

명절때 동네마당에서 치러지던 풍물놀이나 윷놀이는 1994년 조사에서는 윷놀이만 명맥이 유지되고 있었고, 풍물놀이는 농악기의 관리 소홀과 풍물(농악, 풍장) 기예의 전수 단절로 인한 치배(농악기 연주자)구성의 어려움으로 마을놀이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따라서 동네마당도 문화놀이공간으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상실해 가고, 다만 어린이들의 놀이터나 주차장 정도로만 이용되고 있다. 마을 공동행사의 축소·약화로 동네마당이 마을 문화공간의 핵심적 장소로서의 의미가 퇴색하고, 대신 노인정이 노령화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마을 앞에 있던 정자목은 과거에는 하절기에 주민들의 휴식과 모임 장소로 이용됐으나 현재는 이런 기능은 쇠퇴하고 대신 농구대가 설치되어 청소년들의 운동공간으로 부분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표 5-19 종교 · 문화공간의 변화

구 분	1988	1994
제례공간	· 무송 유씨 사당(時祭) · 마을 뒤산-유씨의 宗山으로 幽宅으로 인식(유씨 문중 묘지)	· 유씨 구사당 방치되면서 마을 남쪽에 사당 신축(1993)
문화공간	· 마을회관, 마을마당(명절 윷놀이, 풍물놀이) · 정자나무(하절기 휴식, 모임 장소)	· 마을회관 신축후 노인정 이용 활성화 · 마을마당(명절 윷놀이) · 정자목에 청소년 농구대 설치

그림 5-9 마을 공동이용 시설 및 종교·문화 공간, 증촌,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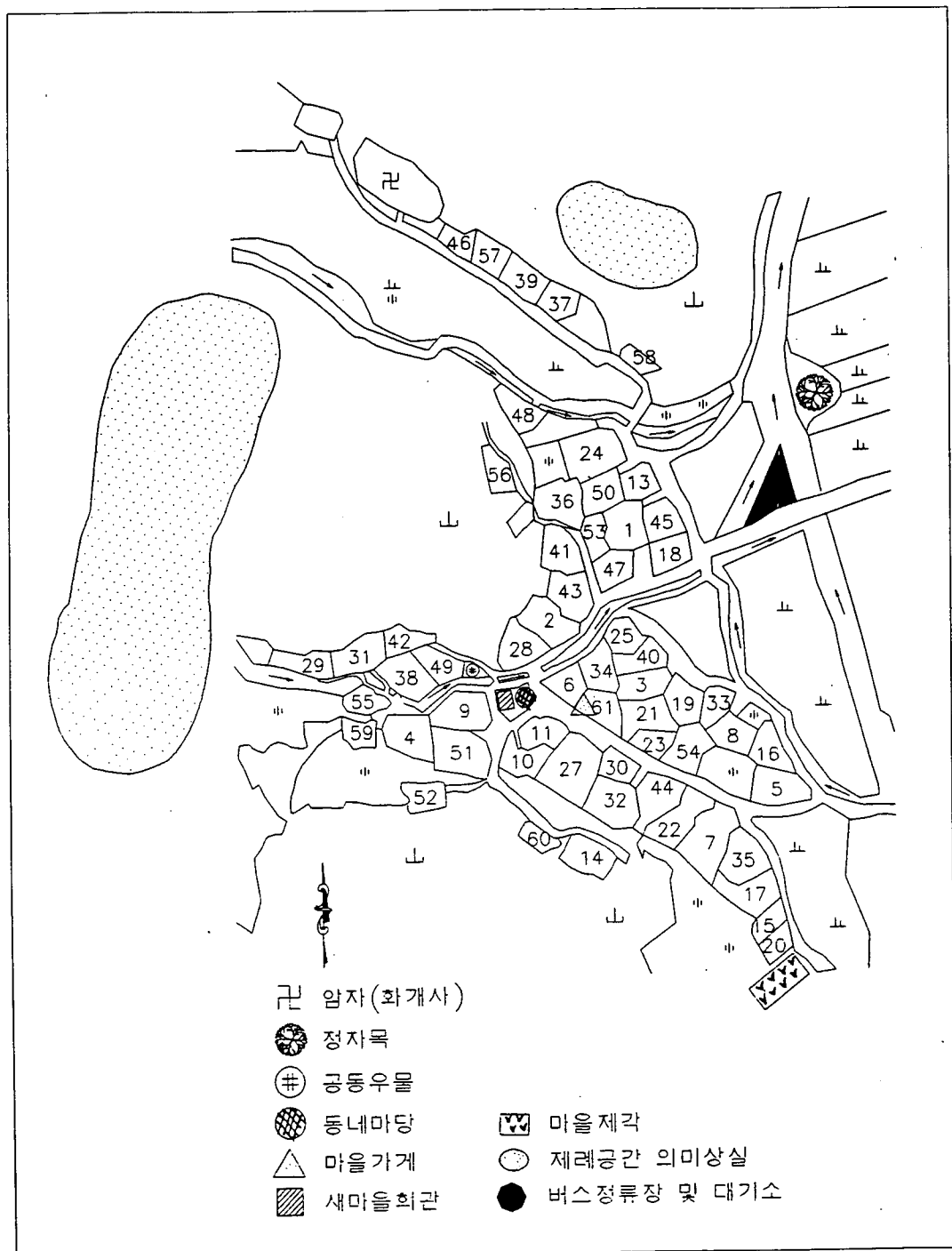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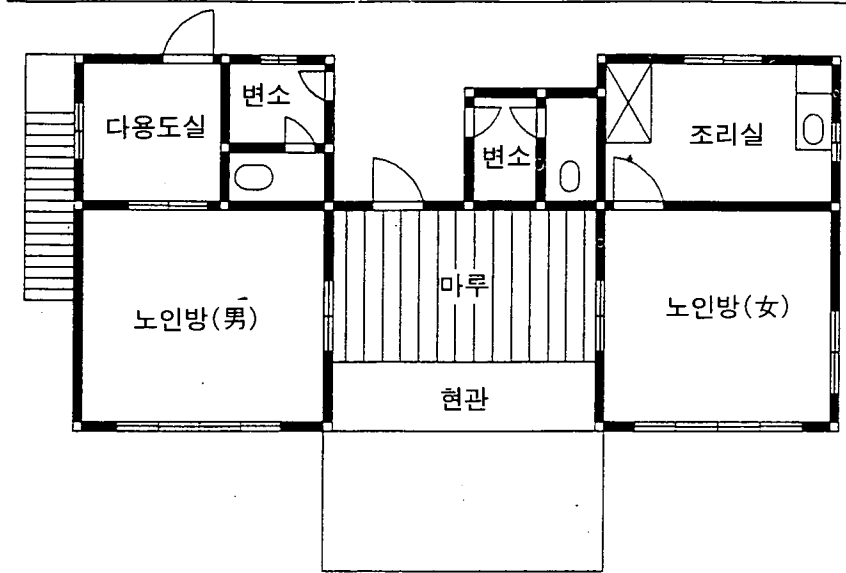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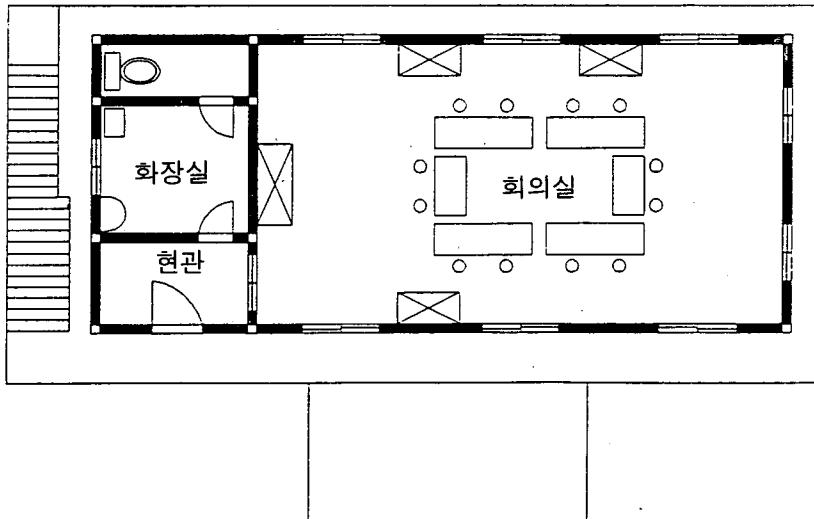


그림 5-10 신축된 마을회관의 평면도, 증촌, 1994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 생산공간

3.1. 농경지의 분포와 경작 활동의 변화

농경지의 공간적인 분포에 있어 큰 변화는 1986년, 1987년에 증촌뜰이 경지정리되었다는 점이다. 경지정리를 통해 등고선식 농지 형태가 바둑판식 격자형으로 변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농로체계가 재편되면서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간선농로, 지선농로 등의 연결체계가 변화 되었다. 증촌마을의 경우 마을앞의 논이 경지정리가 되면서 마을에 이르는 진입로가 정비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경지정리로 농기계의 이동성이 향상되는 것과 때를 거의 같이 하여 정부의 농기계 보급정책, 농기계기술 향상 등의 영향으로 농작물 및 농자재의 운반수단으로 지게, 우마차, 리어카 등이 거의 사라지고 경운기가 운반수단의 대종을 이루게 되었다. 1985년 조사 때만 해도 증촌마을에서 사용되던 지게, 우마차, 리어카 등이 1994년 조사에서는 사라졌음을 볼 수 있다.

농경지의 분포에 있어 또 특징적으로 변화한 것은 총경작면적의 감소와 답률의 증가를 들 수 있다. 1985년을 기준으로 1994년 경작면적을 보면 증촌마을은 23.2%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체 경작면적이 감소하는 와중에서 경작지를 기

표 5-20 농경지의 분포와 경작 활동의 변화

구 분	농 경 지 의 변 화
1985	· 경지는 벌곡천 유역과 방아재와 매통골의 소하천 유역에 분포 · 마을 동측 증촌뜰은 벌곡천의 범람으로 퇴적된 토사에 의해 형성, 하상의 잦은 변화로 뜰 남단은 밭으로 이용 · 방아재와 매통골은 소하천을 따라 길게 분포하는 계단식 논 · 경지정리 안됨 · 총경작면적 89,184평(호당 1,858평) · 답률 73.0%
1994	· 1986/87 증촌뜰 경지정리로 농로 및 용수로 발달, 농기계 접근성 증대 · 총경작면적 68,458평(호당 1,755평) · 답률 82.4%

준으로 했을 때, 답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조금 증가하고 있다. 경지면적에서 답률이 73.0%에서 82.4%로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답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전반적인 경지면적 감소추세에서 논·밭의 이용 감소 속도보다 밭의 이용 감소 속도가 더 앞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밭작물의 생산성 저하, 채산성 악화, 노동력 부족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앞의 제3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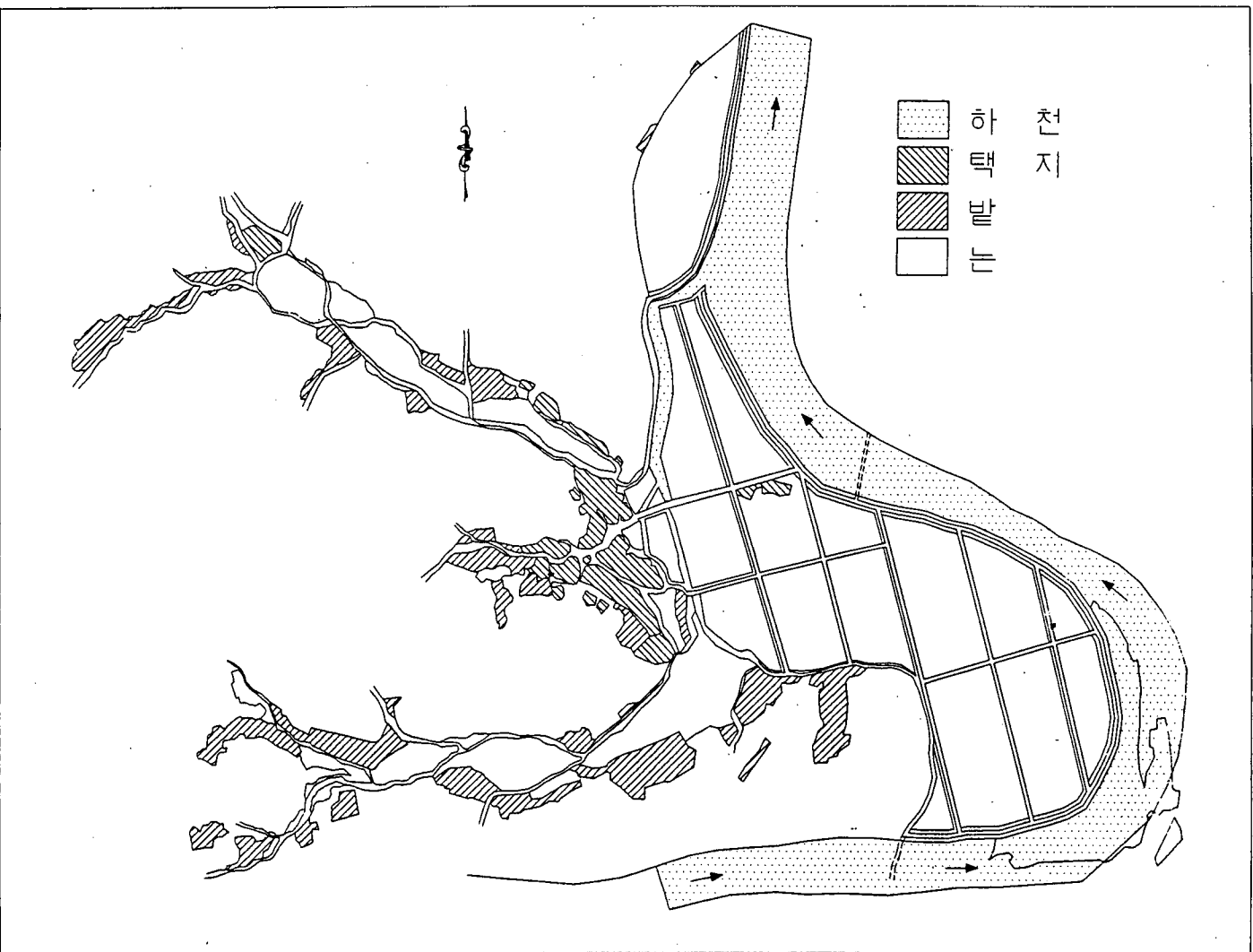
3.2. 농업적 토지이용

공간적인 측면에서 지난 10년간 농업생산, 농지이용 변화의 주요 특징은 먼저, 앞의 제3장에서도 살핀 바대로 작목구성에서 단순화 경향을 나타내면서 농업적 토지이용에서도 복합적 이용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경지이용률이 108.1%에서 98.9%로 감소하고 있으며, 개간된 산전의 유희화로 식량작물인 맥류·잡곡·서류의 식부면적이 1,510평이던 것이 전혀 재배되지 않고, 1,600평이던 담배 재배면적 또한 전무가 되고, 두류는 9,260평에서 2,753평, 노지채소는 11,665평에서 1,720평, 참깨·들깨는 6,298평에서 2,806평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작물의 일부가 재배가 단절되고 전반적인 식부 면적이 감소하면서 밭작 및 답작의 복합이용과 밭의 작물간 조합이 줄어들고 있다.

증촌마을은 대전광역시외의 근교지대로서 상업적 영농이 발달할 수 있었으나, 시설원예에 대한 농사기술의 부족, 최근에 편리해진 교통의 영향 등으로 근교농업적 특성이 발달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물론 경지정리지구의 배수불량으로 답리작이 곤란하고, 경사지에 개간된 산전 또한 토양이 척박하여 시설원예를 하기에 불리한 점도 작용했다.

산의 경우, 한우 5마리 미만을 기르는 부업적 사육농가가 1985년 36호에서 1994년에는 12호로 감소했고, 양돈 또한 1985년의 2호에서 1호로 줄어들었다. 이 한 농가는 사육 규모를 최근에 120두로 늘리면서 전문적 축산경영 농가로 발전하면서 정미소 옆의 축사도 가건물 형태로 늘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과거 마을 내부에 입지했던 축사가 냄새와 미관적 특성 때문에 주택지에서 다소 떨어진 마을외곽 전답지에 입지하고 있다. 마을입구 방아재에 1988년에 2채이던 축사가 3채로 늘어 났고, 마을앞 북쪽 논에 1채의 축사가 1990년에 들어섰다. 그리고 토종닭 사육장도 마을 안대앞 버스정류장 근처에 소규모로 지어졌다(1995년 12월 보완조사에서 확인). 축사의 공간분포가 마을의 주거공간과 혼재되어 있던 것에서 점차 분화되어(아직 규모화된 축산단지가 조성된 것은 아니지만), 개별 농가 단위에서 독립된 토지이용의 형태로 점차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1 농경지 면포 및 토지이용, 중촌, 1994



참 고 문 헌

- 공세권, 조애조, 김승권. 1993.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3-17.
- 김경동. 1983. “농촌사회의 변화와 쟁점,” 「70년대 한국사회」. 한국사회학회(편). 평민사.
- 김관태(역). 1975. 「한국의 촌락」. Brandt. 시간문제연구소.
- 김대환. 1975. “농촌사회학론,” 「농촌사회학」. 한국농촌사회학회(편).
- 김영모. 1975. “지역집단,” 「농촌사회학」. 한국농촌사회학회(편).
- 김일철. 1975. 「농촌의 사회적 협동과 이익집단」. 한국농촌사회학회(편).
- 김주숙. 1991. “농촌결사체의 성격,” 「한국의 사회와 문화」 18: 139-164.
- 김준보. 1980. “한국소농의 주체성 재평가,” 「학술원 논문집」 19. 인문·사회과학편.
- 김춘동. 1983. “이농이 소농의 재생산구조에 미친 영향,” 「인류학논문」 6. 서울대학교.
- 김택규. 1979. 「씨족부락의 구조연구」. 일조각.
- 문현상. 1991.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92-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배진한. 1978. “농촌노동력 유출과 노동시장,” 「노동경제논문」 2.
- 여중철. 1977. “한국농촌의 가족주기와 가족유형,” 「한국문화인류학」 9. 한국문화인류학회.
- 오내원, 김종채, 최양부. 1986.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1985-2001)② : 1985기
준년도 조사결과」, M15-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경문. 1991. 6.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의 경우(1966-1985)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39(1): 157-210. 한국경제학회.
- 윤원근, 이상문. 1995. “정주계층간 사회경제 및 공간 관계 변화에 대응한 농촌공간정책의 방
향 모색,” 「농촌사회」 5. 한국농촌사회학회.
- _____. 1996. “산간 촌락에서의 정주공동성의 존재 형태.” UR 이후 한국 농촌사회와 농촌사
회학의 재정립. 1996년도 한국농촌사회학회 정기 학술대회 자료.
- 이가옥, 권중돈, 권선진, 안혜영, 정윤자. 1989. 「노인가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89-1
3.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이광규. 1975.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일지사.
- _____. 1990. 「한국의 가족과 종족」. 민음사.
- 이만갑. 1973. 「한국농촌사회의 구조와 변화」.
- _____. 1984. 「공업발전과 한국농촌」.
- _____. “농촌사회의 구조와 변화,” 「한국사회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민음사.

- 정기환, 민상기, 최양부. 1987.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1985-2001)⑥ : 마을사회집단의 조직과 변천」, M15-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기환, 오내원, 허장, 민상기. 1989.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1985-2001)⑪: 근교마을의 사회경제구조—대전시 기성동 증촌마을 사례」, M15-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기환, 이노동. 1988.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1985-2001)⑨ : 농촌마을의 공간구조—도시근교마을, 산간마을」, M15-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기환. 1988. “농촌지역의 사회집단의 분류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11(1): 109-119.
- 정병휴. 1967. “한국답작농업지대의 농촌가족구성과 농업노동에 관한 일분석,” 연구총서 제2호. 서울대학교 인구연구소.
- 정지웅. 1984. 「한국의 농촌」.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양부, 박성재, 오내원. 1983. 「농가경제의 유형과 성격분석」, 연구보고 7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양부, 오내원. 1986.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1985-2001)① : 조사연구설계」, M15-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재석. 1966. 「한국가족연구」. 민중서관.
- _____. 1975. 「한국농촌사회연구」. 일지사.
- _____. 1988. 「한국농촌사회변동연구」. 일지사.
- 한국농촌사회학회(편). 1984.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현대사회연구소.
- 홍동식. 1988. 「농촌사회학의 이해」. 법문사.
- Chajanov, A. V. 1966. The Theory of Peasant Economy, ed. by Daniel Thorner, Basile Kerblay and R. E. F Smith. Richard D. Irwin, Inc.: Homewood, Illinois.
- Rogers, E. M., R. J. Burdge, P. F. Korsching and J. F. Donnermeyer. 1988. Social Change in Rural Societie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NJ.
- Sanders, I. T. 1977. Rural Society.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NJ.

M15-17

한국 농촌사회경제의 장기 변화와 발전: 1985-2001 ■
근교마을의 사회경제 변화: 대전시 기성동 증촌마을 사례

등록 제5-10호(1979. 5. 25)

인쇄 1996년 9월 일

발행 1996년 9월 일

발행인 / 박상우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962-7311~5
팩시밀리 02-965-6950

인쇄 / 동양문화인쇄주식회사
전화 02-737-210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